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기획 2023-114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관한 기초 연구

지은이 권치홍, 김옥연, 이슬해

발행인 김홍배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 소 (3404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홈페이지 <http://lhi.lh.or.kr>

전화번호 042-866-8560

이메일 chihung5@lh.or.kr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Research on the Housing Stability of Newly Married Households in the
Response to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

권치홍·김옥연·이슬해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권치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슬해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심의위원장)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이현정 경희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용 한국부동산원 부장

방송희 HF 주택금융연구원

박홍일 LH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최정우 LH 판매기획처 차장

조승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황규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 (가나다순)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

박정호 경희대학교 교수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 4차 정보화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요인들의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가 발생
- 인문사회적 환경변화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결혼 후 여성 중심의 가사·육아 전담이 지속되고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임
- 학술적 측면의 경우, 신혼가구의 주거와 출산/양육 문제는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특성 및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임
- 동기부여 이론 및 가족 발달이론의 고찰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5가지 하위 특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설정을 위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 주거 안정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접목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을 설정하였으며, 측정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음
 - 매슬로의 욕구 단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사랑의 욕구, 자아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5가지의 주요 특성을 설정하였음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요인들은 가족관계, 가계 재무, 주거, 고용, 출산 및 양육에 관련 된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였음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과 가족생활 이론을 접목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을 제시하였고 주거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 개념과 지표들을 검토하여 주거 안정성에 대한 체계도를 구축하였음

[요약 표 1]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이론	동기부여 이론 : 매슬로 욕구단계론			
	가족 발달이론 : 가족생활(생애)주기			
정의	신 혼 부 부 : ▶ 결혼 7년 이내이거나 자녀 연령 6세 이하			
	주거 안정성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특성	자아 실현의 욕구	▶	현재까지 사회 및 가정생활을 통해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 현재 생활의 만족도,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에 포함됨	⇒ 주거 안정성
	자아 존중의 욕구	▶	소속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 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성취감에 대한 욕구 - 자신감, 소속감, 일에 대한 만족도, 갈등 해결 등을 통해 소속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부심 등이 이에 포함됨	⇒ 고용 안정성
	소속사랑의 욕구	▶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이는 가족 형성(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의 양육, 가족(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등) 간 관계성 등을 의미함	⇒ 가족 관계성 출산양육 지속성
	안전의 욕구	▶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욕구 - 천재지변 또는 범죄, 인간관계의 갈등 등에서 벗어나 느끼는 해방감 또는 해소되는 느낌 등을 의미함	⇒ 거주 안전성
	생리적 욕구	▶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주거밀도, 방의 개수, 소득, 주택 등을 포함	⇒ 가계 재무 건전성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와 측정 지표 검토

-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는 5가지 특성과 56개의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음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재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회적 지위 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

[요약 표 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특성과 측정 지표 검토

-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월소득액과 총자산액(중위수 기준)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가계수지표와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 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기 부채관리가 필요
-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학력수준(대졸 이상)과 고용유형 등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전반적인 일 등의 만족도에서는 낮은 수준
-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비율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 월임대료대비 월소득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 중 40% 정도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인척 만족도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함
-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되고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중 사용 비율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 및 주택 마련 지원, 보육비, 육아휴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별 검토 결과 및 시사점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주거 안정성	▶ 신혼부부는 현재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회적 지위 변화 가능성이 낮은 수준임	■ 단기적 정책 대응 방안 마련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신혼부부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 회복 필요
가계 재무 건전성	▶ 신혼부부의 월소득액과 총자산액(중위수 기준)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계수지지표와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아 장기적인 부채관리가 필요	■ 신혼부부의 장기적 부채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월임대료대비 월소득비율이 높은 임차 가구를 위한 차등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
고용 안정성	▶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학력 수준(대졸이상)과 고용 유형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일 만족도 등에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일자리와 일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직장 내 상담제,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의 노력도 필요
거주 안전성	▶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비율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편임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저렴한 오피스텔과 연립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쉽게 주거 사다리나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가족 관계성	▶ 신혼부부 중 40% 정도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만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총 7가지의 성 역할 항목 중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하다”와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 소득 기여한다” 항목에서만 동의함	■ 가족관계 만족도는 친인척 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이라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한 상황 ■ 성 역할 인식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점진적 성 역할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출산양육 지속성	▶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음 ▶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중 사용 비율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과 주택 마련 지원, 보육비, 육아휴가 등의 순으로 높음	■ 신혼부부의 양육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차등화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제시 및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의 제공이 시급하고 공공에서는 경영성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관한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신혼부부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추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나 특성, 측정 지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증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연구에는 기초 연구의 한계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예정임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 내용	3
2.2 연구 범위	6
2.3 연구 방법	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법률·제도·사업 현황	7
1.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7
1.1 동기부여 이론과 가족 발달이론 고찰	7
1.2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정의 개념적 접근	10
1.3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와 관련된 연구 검토	13
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법률·제도·사업 현황	27
2.1 법률 현황	27
2.2 제도 현황	30
2.3 주거지원사업 현황	37
3. 소결	38
제3장 신혼부부 가구 특성 및 현황	39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이	39
1.1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39
1.2 젠더 이슈	40
1.3 경제 성장	41

1.4 자산 양극화	42
2. 가구의 특징 및 현황	43
2.1 세대 특징	43
2.2 일반 현황	44
2.3 가구 특성별 현황	49
2.4 지역별 신혼부부 수와 지역별 영향 요인 분석	71
3. 소결	73
 제4장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검토	 75
1.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75
1.1 신혼부부와 주거 안정성의 개념	75
1.2 주거 안정성의 주요 욕구와 하위 항목 간의 연관성	76
1.3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판단기준 설정	77
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검토 개요	83
2.1 측정 지표의 검토 방향과 통계자료 설정	83
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와 측정 지표 검토	87
3.1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 구성	87
3.2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88
3. 소결	10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1. 결론	103
1.1 연구의 주요 내용	103
1.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대한 개선 방향	10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08
1.1 연구의 한계	108
1.2 향후 연구과제	108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연도별 주요경제지표 추이	2
[표 1-2] 주요 연구 내용의 목차 I	5
[표 2-1] 동기부여 이론의 정리	8
[표 2-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14
[표 2-3] 주거 안정성(주거권)에 관한 선행 연구	15
[표 2-4] 가계 재무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17
[표 2-5] 고용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19
[표 2-6] 거주 안전성에 관한 선행 연구	20
[표 2-7] 가족 관계성에 관한 선행 연구	22
[표 2-8] 출산 양육 지속성에 관한 선행 연구	24
[표 2-9] 주거 이동 및 주거환경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26
[표 2-10] 주거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27
[표 2-11]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27
[표 2-12] 가정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28
[표 2-13]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29
[표 2-14] 공공주택정책의 흐름	30
[표 2-1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상의 공공주택의 공급 유형	31
[표 2-16] 신혼희망타운의 개요	33
[표 2-17] 매입임대주택 지원기준 변화	33
[표 2-18] 신혼부부 I & II 매입임대주택의 개요	34
[표 2-19] 주택자금지원 제도	35
[표 2-20]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36
[표 2-21] 임대주택 재고 현황	37
[표 2-22] 2022년 LH매입임대현황	37
[표 3-1] 세대별 특징 비교	43

[표 3-2] 혼인유형별*연도별 추이	44
[표 3-3] 혼인유형별*지역별 신혼부부 수	44
[표 3-4] 혼인 유형별* 맞벌이 가구 분포	45
[표 3-5] 시도별*연도별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수	47
[표 3-6] 2021년 가족과출산 조사의 개요	49
[표 3-7] 2021년 가족과출산 조사의 주요 내용	50
[표 3-8] 신혼부부의 가구원 수별 분포	51
[표 3-9] 가구주의 성별 분포	51
[표 3-10]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 연령별 분포	52
[표 3-11] 가구주와 배우자의 학력 수준	52
[표 3-12] 가구주 연령별*맞벌이 여부	53
[표 3-13] 양가 부모님과 동거 여부	54
[표 3-14] 비동거 부모 교류 현황	54
[표 3-15] 부모의 경제 상황	55
[표 3-16] 양가 부모님과 신혼부부 간의 정기/비정기 평균 현금지원	55
[표 3-17]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및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액	56
[표 3-18] 가구주 연령*학력별 직장 유형* 정규직 여부	57
[표 3-19] 맞벌이* 가구주 직장유형*정규직 현황	58
[표 3-20] 가구주 연령*주택 유형	59
[표 3-21] 가구주 연령*주택 점유	60
[표 3-22] 신혼부부의 가계 재무 상태	62
[표 3-23] 맞벌이의 가계 재무 상태	63
[표 3-24] 가구주 연령별*결혼 횟수 현황	64
[표 3-25] 점유 형태 * 출산 자녀 수 현황	65
[표 3-26] 가구주 연령 * 출산 자녀 수 현황	65
[표 3-27] 신혼부부의 점유 형태별 영유아 육아 서비스 비교	67
[표 3-28] 맞벌이 가구의 주택소유여부별 가사 분담 비율 및 만족도	68
[표 3-29]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형태별 양육의 어려움 비교	68
[표 3-30] 자녀별 영유아 양육비용 검토	70
[표 3-31] 기본 변수의 예상 방향	71
[표 3-32] 기초통계량	71

[표 3-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72
[표 3-34] 회귀분석 결과	72
[표 4-1]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주요 의미	75
[표 4-2]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76
[표 4-3] 주거 안정성의 특성별 하위 지표	77
[표 4-4]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평가 기준 설정 I ..	81
[표 4-5]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평가 기준 설정 II	82
[표 4-6]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별 통계자료 적용 항목 비교	84
[표 4-7] 24차 노동패널조사자료의 개요	85
[표 4-8] 24차 노동패널자료의 주요 내용	86
[표 4-9]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87
[표 4-10] 신혼부부의 가구원 분포	88
[표 4-11]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89
[표 4-12]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91
[표 4-13]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93
[표 4-14]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94
[표 3-15] 신혼부부의 성 역할 항목에 대한 의견 결과	95
[표 4-16]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97
[표 4-17]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99
[표 5-1]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104
[표 5-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105
[표 5-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별 검토 결과 및 시사점	10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이	1
[그림 1-2] 혼인*출산 건수 추이	2
[그림 1-3] 혼인*출산 건수의 변동률 추이	2
[그림 3-1] 남성과 여성의 성비	39
[그림 3-2] 평균 가구원 수 추이	39
[그림 3-3] 성별 추이	39
[그림 3-4] 여성 가구주 변화 추이	39
[그림 3-5] 여성 박사학위 취득 비율 추이	40
[그림 3-6] 주요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40
[그림 3-7] 주요국 임금 근로자의 성별 고용 비율	40
[그림 3-8]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40
[그림 3-9] 경제성장률 추이	41
[그림 3-10]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41
[그림 3-11]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41
[그림 3-12] 개인 창업 추이	41
[그림 3-13]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42
[그림 3-14] 금융자산 추이	42
[그림 3-15] 아파트가격지수와 가격추이	42
[그림 3-16] 자산 불평등도	42
[그림 3-17] 지역별 자가 분포	45
[그림 3-18] 지역별 자가 분포	45
[그림 3-19] 지역별 자가 분포	45
[그림 3-20] 아내의 학력 비율_전체	46
[그림 3-21] 아내의 학력 비율_초혼	46

[그림 3-22] 아내의 학력 비율_초혼	46
[그림 3-23] 주택 소유 대출 비율	46
[그림 3-24] 주택 소유 대출 비율	46
[그림 3-25] 주택 소유 대출 비율	46
[그림 3-26] 연령별 취업 비율	56
[그림 3-27] 연령별 구직비율	56
[그림 3-28] 연령별 비경제활동비율	56
[그림 3-29] 세대별 주택유형_전체	59
[그림 3-30] 세대별 주택 유형_MZ	59
[그림 3-31] 세대별 주택유형_X	59
[그림 3-32] 세대별 점유형태_전체	60
[그림 3-33] 세대별 점유형태_MZ	60
[그림 3-34] 세대별 점유형태_X	60
[그림 3-35] 결혼 前 점유형태	61
[그림 3-36] 결혼 직후 점유형태	61
[그림 3-37] 현재 점유 형태	61
[그림 3-38] 점유 형태_맞벌이	61
[그림 3-39] 점유 형태_외벌이	61
[그림 3-40] 거주 외 소유_전체	61
[그림 3-41] 거주 외 소유_맞벌이	61
[그림 3-42] 결혼 기간 중 자녀 출산 경험 유무	64
[그림 3-43] 결혼 기간별 자녀 출산 비중	64
[그림 3-44] 출산 전후 사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69
[그림 3-45] 육아휴직 이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69
[그림 3-46] 연속사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69
[그림 3-47]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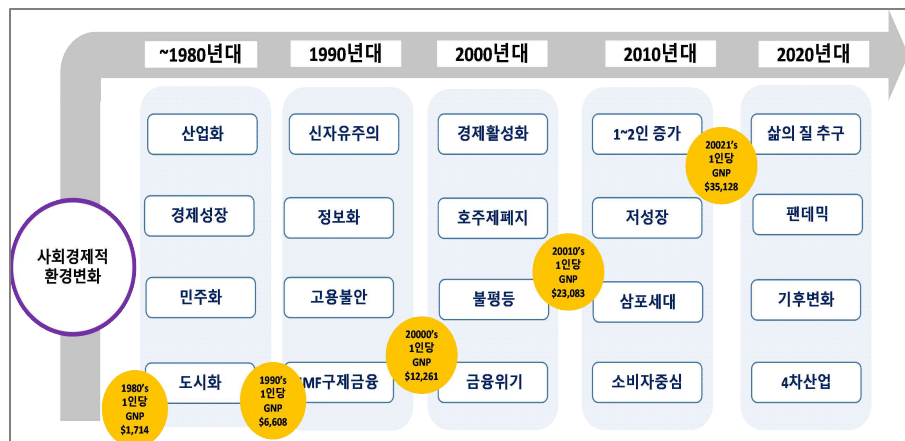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세계적 패러다임의 변화(1차 산업혁명 ~ 4차 정보화시대)와 주요 이벤트(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가 발생
 -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개인의 취향 및 인식의 변화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1-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이

- 과거 고성장, 높은 취업률, 평생 고용의 경제 환경은 2%대의 선진국형 성장세, 실업 증가, 고용 불안 등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청년·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발생
 -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후하여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 가구의 대출 상환 부담 가중 또는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불안과 자산 불평등화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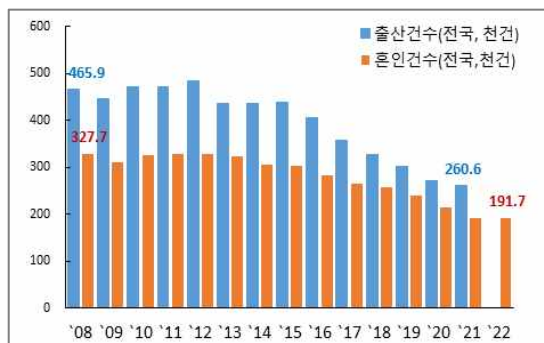
[표 1-1] 연도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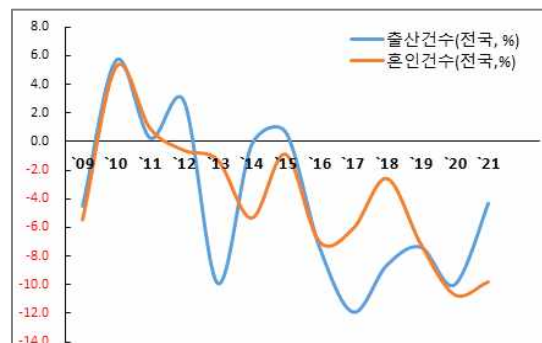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	3.2	2.8	2.9	3.2	2.9	2.2	-0.7	4.1	2.9
기준금리	2.0	1.5	1.3	1.5	1.8	1.3	0.5	1.0	1.9
물가상승률	1.3	0.7	1.0	1.9	1.5	0.4	0.5	2.5	2.0
실업률	3.5	3.6	3.7	3.7	3.8	3.8	3.9	3.7	3.6
주택가격(전국, KB)	2.1	4.4	1.4	1.2	3.2	0.2	8.4	15.0	3.6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 최근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경제적 자립하는 여성 가구주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결혼 후 여성 중심의 가사·육아 전담, 가부장적 전통의 지속, 주거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양상
- 혼인 건수(통계청, 혼인·이혼 통계)는 2008년 327.7천 건에서 2022년 191.7천 건으로 41.5% 감소하였고 출산 건수도 '08년 465.9천 건에서 '21년 260.6천 건으로 44.1% 감소



[그림 1-2] 혼인*출산 건수 추이



[그림 1-3] 혼인*출산 건수의 변동률 추이

- 전국 신혼부부 수(단위 : 쌍)는 2015년 1,471.6 천 쌍에서 2018년 1,322.4 천 쌍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019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01.5 천 쌍으로 연평균 4.7% 감소하였음
- 신혼가구의 주거와 출산/양육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주택 분야의 선행 연구는 주로 물리적 또는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 또는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여서 신혼부부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특성 및 측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임
 - 동기부여 이론, 가족 발달이론 등의 이론, 주거 안정성의 개념적 흐름과 실천 방안,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를 접목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함
 - 신혼부부 특성 및 주요 통계 현황, 법률 및 제도적 현황, 신혼부부의 거주환경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데 고려할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특성, 측정 지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 이론적 고찰 및 법률·제도 사업 현황

-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틀과 신혼부부와 연계된 법률, 제도, 사업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이론적 틀의 경우, 주거 안정성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신혼부부는 가족 발달단계 중 하나의 이벤트인 결혼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족생활(생애)주기 이론을 검토하고자 함
 - 법률 현황에서는 신혼부부의 관련된 주제인 주거, 가족관계, 출산 및 양육, 가정,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제도 및 사업 현황은 주거지원 사업과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신혼가구의 특성 및 현황 분석

- 3장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특성 및 현황을 통계청의 2021년 “신혼부부통계”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현황 및 가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1차 현황 분석은 통계청의 2021년 “신혼부부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2차 분석의 연구 방향을 제공
- 2차 현황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주제별 현황 분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 및 측정 지표의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성 조작적 정의 설정

- 제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주요 특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제 자료를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동기부여이론 중 하나인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을 반영하여 설정할 예정이고 인간의 삶의 관점을 고려한 주거 측면에서 특징과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함

■ 결론 및 시사점

- 제5장에서는 4장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개선할 점들을 정리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제약 요인과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도 검토할 예정임

[표 1-2] 주요 연구 내용의 목차 I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연구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II. 이론적 고찰 및 법률·제도·사업 현황	2.1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 동기부여 이론과 가족발달 이론 고찰 ▶ 주거 안정성/주거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주거 안정성의 주요 요인별 선행 연구
	2.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법률 · 제도 · 사업 현황	▶ 법률적 현황 ▶ 제도적 현황 ▶ 주거지원사업 현황
	[소 결]	
III. 신혼부부의 특성 및 현황 분석	3.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 인구 가구구조 변화 ▶ 젠더 이슈 ▶ 경제 성장 추이 ▶ 자산 양극화
		▶ 세대 특성 ▶ 주요 현황 ▶ 가구 특성 및 현황 ▶ 지역별 신혼부부 수와 지역별 영향 요인 분석
	3.2 가구 특성 및 현황	
	[소 결]	
	IV.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개념과 분석	4.1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4.2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관한 측정 지표 설정		▶ 측정 지표에 대한 개요
4.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관한 체계도와 측정 지표 검토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소 결]		
V. 결론 및 시사점	5.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및 개선점 ▶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2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분석 내용에 따른 자료 구득의 한계로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분석 항목에 따라 2021년 횡단면 자료와 종단면 (2015~2021년) 자료를 혼용할 예정임

■ 공간적 범위

- [분석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기본 분석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연구 내용에 따라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별 분석도 포함 예정

2.3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및 선행 연구자·전문가 자문

- [목적]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조사 방법] 법률·정책·통계자료, 학계 전문가 대상 자문 및 인터뷰

■ 통계 현황과 표본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

- [목적] 신혼가구의 기본 현황과 표본 가구 도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 [현황 분석] 통계청 사회조사·신혼부부통계, 국토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 [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조사 등을 활용

■ 분석 방법론

- 현황 분석에서는 빈도분석, 카이제곱 분석, One-way
- 신혼부부와 주거환경의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상관계수, 다변량회귀분석
- 주거 안정성과 출산은 영향도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법률·제도·사업 현황

1.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1.1 동기부여 이론과 가족 발달이론 고찰

1) 동기부여 이론¹⁾

■ 매슬로의 5가지 욕구 단계 이론

-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은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는 동기 이론 중 하나임
- 결핍 욕구 단계(Growth Needs) : 한번 충족되면 더는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음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 욕구
 -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 신체적 안정, 외부 위험으로부터 안전
 - 소속·사랑의 욕구(Love/Belonging Needs) : 정서적인 만족, 집단소속&관계 만족
 - 자아 존중 욕구(Esteem Needs) : 자아 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 성장 욕구 단계(Growth Needs) : 충족이 될수록 그 욕구가 더욱 증대됨
 -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 자기를 계속 발전하게 하고자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

■ 알더퍼의 존재 · 관계 · 성장(ERG)이론

- 알더퍼의 ERG 이론은 매슬로의 5가지 욕구단계설을 발전시켜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욕구의 구분단계는 존재 욕구, 관계욕구, 성장 욕구로 나누어지고 욕구 좌절, 욕구 강도, 욕구 만족의 과정으로 작동한다고 제시
 - 성장 욕구 단계(Growth Needs) : 자기 자신에게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욕구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킴

1) 네이버 백과사전 재인용

- 관계욕구 단계(Relatedness Need) : 중요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로써 상호 관계를 통해 의사와 교감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킴
- 존재 욕구 단계(Existence Need) : 물질적·심리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욕망을 포함

■ 브레드 쇼의 욕구 이론²⁾

- 브레드 쇼의 욕구 이론은 사회적 욕구로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 사회구조적 맥락을 지닌 욕구를 의미함
 - 규범적 욕구 : 최저생계비, 절대적 빈곤선 등 전문가가 규정하는 욕구
 - 체감적 욕구 : 욕구 조사 등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로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표현적 욕구 : 대기자 명단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 이를 표현하는 욕구
 - 비교적 욕구 : 상대적 빈곤 등과 같은 다른 집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욕구

[표 2-1] 동기부여 이론의 정리

이론	단계	주요 내용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Maslow's Hierarchic of Needs)	성장 욕구	▶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결핍 욕구	▶ 자아 존중 욕구(Esteem Needs): 자아 존중, 자신감
		▶ 소속·사랑의 욕구(Love/Belonging Needs): 정서적인 만족, 집단소속 & 관계 만족
		▶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 신체적 안정, 외부 위험으로부터 안전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 욕구
알더퍼의 ERG 이론 (Alderfer' ERG Theory)	성장 욕구	▶ 자기 자신에게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욕구로써 ▶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 욕구를 만족시킴
	관계 욕구	▶ 의미 있는 사회적 개인적 인간관계 형성으로 충족될 수 있는 욕구
	존재 욕구	▶ 기본적인 욕구로 기본 생활에 대한 욕구
브레드쇼의 욕구 이론 (Bredshaw's Need)	규범적 욕구	▶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욕구
	체감적 욕구	▶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측정되는 욕구
	표현적 욕구	▶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욕구가 충족되길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의 욕구
	비교적 욕구	▶ 서비스 대상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욕구

2) 가족생활(생애)주기 이론

■ 가족생활(생애)주기의 개념³⁾

- 가족생애주기는 가족생활주기와 같은 개념으로 가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

2) 전재일 외, 1999,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3) 김관용, 2018, “장애인가구 빈곤 진입 분석-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재인용, 향후에는 가족생애주기를 가족생활주기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함

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진행 과정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한 것임(Cater & McGoldric, 1899)

- 가족생활주기의 대표적 학자인 듀발(Duvall, 1957)은 “가족의 형성으로 시작해 해체될 때까지 가족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적인 단계들이라고 정의하였음
- 국내 학자인 최현자·최은숙(1986)은 “두 사람의 결혼으로 형성되어 자녀를 가지면서 점점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부터 다시 축소되어 마지막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다시 부부 두 사람의 가족이 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음
- 안종수(2002)는 “가족 구조상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가족의 공통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구분한 단계”로 정의하였음

■ 가족생활주기의 적용 가능성

- 가족생활주기이론은 한 가족의 형성부터 해체까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고, 전체 과정 동안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별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함
 - 가족생활주기이론⁴⁾은 결혼,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의 단계로 구성되고, 이 이론은 가계와 관련된 연구, 가구 소득 및 재무 현황, 주거 만족도, 가족 관계성, 세대 간 갈등 등의 연구 이론으로 활용됨
- 본 연구의 분석 주체인 신혼부부는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에서 결혼, 출산, 영유아 양육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따라서 결혼 만족도, 가족 갈등, 부모와 자녀 관계, 한 가계의 소득수준, 소비자 행동 등 가정생활의 주요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음(Duvall, 1977). 또한, 가족생활 주기별 가족 계획, 복지사업 등 실천적인 사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4) 서춘희, 201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재인용

1.2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정의 개념적 접근

1) 주거 빈곤 개념과 유형

■ 빈곤의 개념

- 빈곤(Land banking)이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적 욕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세부적 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

■ 빈곤의 유형

- 빈곤의 유형에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성
 -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절대 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함
 - 상대적 빈곤 :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으로써 이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의 판단으로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됨

2)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정⁵⁾

■ 주거 빈곤의 개념

- 주거 빈곤이란 주거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주거 안정이란 주거 빈곤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며, ① 안정적 주거(Stable Housing)와 ② 양질의 주택(Decent Home)을 포괄하는 개념임
 - 주거 빈곤은 절대적 최소보다 낮은 상태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가 과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써 ‘주거비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박신영, 2012)
 - 주거 빈곤은 적절한 주거비 부담(Affordable Housing), 적절한 주거 생활(Decent Housing)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임세희 외, 2017)
 - 주거 빈곤은 주택소요⁶⁾를 통해 파악함

5) 최은희 · 권치홍 · 임덕영 · 이슬해, 2018,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재인용

- 주거 빈곤(Housing Poverty)이란 절대적인 주택 부족, 열악한 주택 상태, 과밀 거주, 홈리스 등을 말함(영국 해비타트)
- 특히 주거 빈곤에서 자주 언급되는 적정한(Adequate)란 단어의 의미는 주거의 가치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확보나 주택이라는 상품의 제공을 넘어 인간 생활의 핵심으로서 질적인 측면(사회·경제·문화·환경적 일정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함
- 경제적 빈곤과 주거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는데, 주거 빈곤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위한 기준 제시보다는 빈곤의 유발, 악화 또는 완화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거를 보고 있음

■ 주거 안정(주거권) 개념의 흐름

- 주거권은 모든 인간이 적정 주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주택 조건을 향유 할 권리로서 주거에 관한 국민 생활 저지선의 확보를 의미
 -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천명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는 인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천명
 -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의 명확화와 함께 이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사회구성원 등의 새로운 인식과 노력을 호소
 - 1976년 인간 정주에 관한 밴쿠버 선언 (제1차 세계 주거 회의 UN Habitat)에서는 인간 거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배제된 계층, 즉 홈리스 상태에 처하거나 외국인 추방으로 홈리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의 재정착이어야 함(chapII, para 15)
 - 199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결의안에서는 “적정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4” (General Comments 4)를 통해 7가지 구성 요소 제시
 - ※ 7가지 요소는 ① 점유의 법적 보장 ② 제반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 ③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 ④ 거주 적정성 ⑤ 접근성 ⑥ 입지 ⑦ 문화적 적절성
 - 1997년 제2차 세계 주거 회의와 그 의제(UN Habitat II)에서는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택에 거주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

6) 주택 소요(Housing Needs)란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주거시설과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정책적 의미의 용어라고 본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지불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집단에 게 적용되는 주택수요(Housing Demand)와 다른 개념임(하성규, 2018, 주택정책론)

택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함

※ ① 적절한 규제 장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유인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②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및 다른 형태의 주택자금지원을 통해 부담 능력을 향상시킴 ③ 지역사회에 기반한 협동 주택과 비영리 임대주택, 자가 주택사업을 지원 ④ 홈리스와 그 밖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국내에서 주거권에 대한 적용은 주거 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었음

- 주거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1.3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와 관련된 연구 검토

1) 신혼부부에 관한 선행 연구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

- 주거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박미선(2017)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신혼부부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단계별[입주 전 (대상자선정의 시급성·공정성·입지의 적정성), 입주 후(수요대응형 거주 편의성, 주거 안정성, 육아 지원형), 이동 시(가구 확장 대응, 주거 상향 이동, 주거 사다리, 개발이익 배분)]로 정책지원 방향 제시
- 출산과 주거 안정성에 연관성을 분석한 이상림(2016)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출산에 중요한 결정 요인임
 - 주택 점유 형태인 자가·전세·월세로 출산의 차이가 존재하고 출산단계별 이행이나 혼인 연령 등 혼인 생활 진전 혹은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에 따라 주거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차별적임
- 출산과 일자리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조성호 외(2020) 연구에 따르면, 출산 의향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과 근로 시간은 출산 의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의향 여성의 경우, 첫 자녀는 경제적 여건, 둘째 자녀는 경제적 여건과 시간적 인 여유(시간 및 남편의 육아에 관한 관심 등과 큰 관련)가 의미 있게 나타남
- 김현식(2017) 연구에서는 자산과 소득에 따른 출산 차별력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가구 소득에 따른 출산 위험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 자녀 출산에 있어 월세 및 기타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나 전세인 경우에 비해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고 부채의 크기에 따른 출산 위험의 차이가 존재함
- 신윤정 외(2017) 연구에서는 배우자 간 교육 수준이 더 동등해지고 연령 격차 축소로 배우자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완화될 것 예상되었지만,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음
 - 남성 부성 역할의 제도화 및 활성화, 맞춤형 주거 공급, 결혼 비용 절감, 보편적 육아 환경 내실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 확대

[표 2-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연 구 명	발행기관	주요 내용
이상림 외 2016	신혼부부 주거 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에서는 '15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14~'16년 신혼 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 ▶ 주거 관련 요인들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주거 안정성이 출산에 중요한 결정 요인임 ▶ 주택점유 형태인 자가·전세·월세로 출산의 차이가 존재 ▶ 출산단계별 이행이나 혼인 연령 등 혼인 생활 진전 혹은 이와 관련된 생애과정에 따라 주거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차별적임
박미선 2017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주거실태조사, 자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자료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와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활용 ▶ 설문조사를 통해 신혼부부를 4가지(전체·유자녀·신혼·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분류, 단계별[입주 전 (대상자선정의 시급성·공정성·입지의 적정성), 입주 후(수요대응형 거주 편의성, 주거 안정성, 육아 지원형), 이동 시(가구 확장 대응, 주거 상향 이동, 주거 사다리, 개발이익 배분)] 정책지원 방향 제시
신윤정 외 2017	배우자 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부문 2% 표본자료 ▶ 부부간의 교육 수준이 더 동등해지고 연령 격차 축소로 배우자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완화 예상→ 가정/직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에서 남성우위중심 →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여성의 초혼 연령 상승 →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가혹한 상황 ▶ 남성 부성 역할의 제도화 및 활성화, 맞춤형 주거 공급, 결혼 비용 절감, 보편적 육아 환경 내실화, 근로자의 고용 안정 확대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 출산력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패널자료 (1~7차) ▶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월세 및 기타 형태에 거주 시는 자가 또는 전세 경우에 비해 낮은 출산 위험을 보였고 부채의 크기에 따른 출산 위험의 차이가 존재 ▶ 자녀 출산 시 가구 소득에 따른 출산 위험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조성호 외 2020	일자리 안정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패널조사자료와 2019년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를 활용하여 출산과 일자리와의 관계 분석하고자 함 ▶ 출산 의향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과 근로 시간은 출산 의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 출산 의향 여성의 경우, 첫째 자녀는 경제적 여건, 둘째 자녀는 경제적 여건+시간적인 여유(시간 및 남편의 육아에 관한 관심 등과 큰 관련)의 의미

2) 주거 안정성 및 주거권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 연구

■ 주거 안정성(주거권)의 개념에 관한 연구

- 해외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개인의 욕구(Kaur, 2013)와 결합한 형태의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국내에서는 주로 물리적·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의와 요인들을 도출하였음
 - Kaur(2013)는 “주거 욕구란 주거와 관련한 결핍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내적 상태로 주거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 심리상태”라고 언급
 - 주택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적정 주거 수준(Decent housing),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등 3가지 주거 욕구를 주거 안정성 평가 요소로 정의
 - 국회예산정책처(2015)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의 4가지 요소를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시설의 적정성(Adequacy, Habitability), 규모의 적정성(Suitability), 거주 및 이동의 자유(Stability, Security)

[표 2-3] 주거 안정성(주거권)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제목	발행기관	주요 내용
한국주거학회 주거학 연구회 2013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주거 욕구” 개념으로 설명 ▶ Kaur(2013)는 주거 욕구란 주거와 관련한 결핍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내적 상태로 주거에 대한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 심리상태, 주택에 대한 접근성 적정 주거 수준, 부담 가능성 등 3가지 주거 욕구를 주거 안정성 평가 요소로 정의
국회예산정책처 2015	‘주거 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주거 안정성의 4가지 요소 :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시설의 적정성(Adequacy, Habitability), 규모의 적정성(Suitability), 거주 및 이동의 자유(Stability, Security) ▶ 부담 가능성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주거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 ▶ 주거비 지불 가능성은 주택점유 형태(자가, 임차) 및 임차인의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가능성(RIR) ▶ 시설의 적정성은 기본적인 생활공간과 냉난방, 상하수도,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적절한 시설임 ▶ 거주·이동의 자유는 계속 거주, 이동할 수 있는 자유
통계청 2010	부동산 분야 통계품질 진단연구 용역보고서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적정성은 주거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로 1인당 주거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밀도를 평가하였고 거주·이동의 자유는 계속 거주,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그 외 부담 가능성과 시설의 적정성, 가용성을 평가 요소로 선정하였음
남기철 2019	시민 관점에서의 서울 시민 복지 기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안정이란 “적절한 주거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주거의 이전(혹은 박탈)이 나타나지 않으며 월세 등의 불안정한 거주지가 아닌 안정적인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

3) 가계 재무의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 가계 재무제표 개발 및 포트폴리오관리에 관한 연구

- 유호실 외(2018) 연구에서는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 2016년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의 특성별로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30~50대 4인 가구의 평균 종합 점수는 56.9점 기록
 -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가계 재무 구성 요소, 주관적 재무 상태에 따른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교육 수준은 입주 형태에 따라 가계 재무 종합지수에 차이를 보임
- 김민정 외(2007)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직업 안정성과 주관적인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소비자의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 안정성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 감수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계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고, 직업 안정성이 낮은 집단은 주식·채권·신탁자산의 보유율과 총자산 대비 비중이 낮음
- 양세정 외 (2018)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가계 재무비율을 도출하고 각각의 재무비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함
 - 한국형 재무비율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그리고 건전성과 성장성 요소를 고려하여 가계수지지표, 비상 자금 지표, 부채부담지표, 보장성보험 준비지표, 저축 및 투자성향 지표 등 5개 영역의 지표 군을 선정
 - 부채부담지표 군은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부채부담지표(총부채 상환지표, 소비생활 부채상환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상환지표)와 자산부채 측면에서의 부채부담지표(총부채 부담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부담지표)로 구분
 - 저축 및 투자성향 지표 역시 현금흐름 측면(총저축 성향 지표, 금융 투자성향 지표, 노후 대비저축지표)과 자산부채 측면(금융자산 비중 지표)으로 구분하여 제시
- 이지운 외 (2018) 연구에서는 재무 목표의 정의 및 설정 방법을 검토하고 가계 재무 상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재무 목표의 적절성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무 목표 설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 재무 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해 각 재무 상태 평가 지표의 충족 여부와 재무 목표 설정 여부에 따라 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시,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

상환' 외 나머지 유형에서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계 재무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는 소득지출 평가와 정기적 저축 여부 등이 유의한 변수임

[표 2-4] 가계 재무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연구명	발행기관	주요 내용
유호실·양세정 2018	가계 재무 종합지수(HFC)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v6.3	<p>▶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개발</p> <p>▶ 2016년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의 특성별로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30~50대 4인 가구의 평균 종합 점수는 56.9점으로 기록.</p> <p>▶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가계 재무 구성 요소, 주관적 재무 상태에 따른 가계 재무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는데, 교육 수준, 입주 형태에 따라 가계 재무 종합지수에 차이 보임,</p>
김민정·손지연·최현자 2007	직업 안정성과 위험 감수 성향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V3. 2	<p>▶ 객관적인 직업 안정성과 주관적인 위험감수성향에 따라 소비자의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직업 안정성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 감수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p> <p>▶ 직업 안정성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가계 재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직업 안정성이 낮은 집단은 주식·채권·신탁자산의 보유율과 총자산 대비 비중이 낮음</p> <p>▶ 직업 안정성이 낮은 집단의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무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가계가 보유한 재무 위험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p>
양세정·주소현·차경욱·김민정 2018	한국형 가계 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 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v6.3	<p>▶ 한국 가계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가계 재무비율을 도출하고 각각의 재무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p> <p>▶ 한국형 재무비율은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 그리고 건전성과 성장성 요소를 고려하여 가계수지지표, 비상 자금 지표, 부채부담지표, 보장성보험 준비지표, 저축 및 투자성향 지표 등 5개 영역의 지표 군을 선정</p> <p>▶ 부채부담지표 군은 현금흐름 측면에서의 부채부담지표(총부채 상환· 소비생활 부채상환·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상환지표)와 자산부채 측면의 부채부담지표(총부채 부담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부담지표) 선정</p> <p>▶ 저축 및 투자성향 지표 역시 현금흐름 측면(총저축 성향 지표, 금융투자 성향 지표, 노후 대비 저축지표) 과 자산부채 측면(금융자산 비중 지표)으로 구분하여 제시</p>
이지운·김민정·최현자 2018	가계 재무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가계 재무 상태 평가 지표의 활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v11.2	<p>▶ 가계 재무 목표의 정의 및 설정 방법을 검토하고 가계 재무 상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재무 목표의 적절성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무 목표 설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p> <p>▶ 재무 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해 각 재무 상태 평가 지표의 충족 여부와 재무 목표 설정 여부에 따라 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상환' 외 나머지 유형에서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비중이 높음</p> <p>▶ 가계의 재무 목표 설정에 있어 소득·지출 평가와 정기적 저축 여부 등의 재무 행동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p>

4) 고용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 고용 안정에 관한 연구

- 강순휘(2016) 연구에서는 청년 패널 1~7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초기의 일자리 변동과 안정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취업 유지확률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고졸자가 고학력자와 비교하면 취업 유지확률이 낮고 대학 진학이나 미취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음
 - 정규직 진입자의 정규직 유지 가능성이나 3개년 연속 동일 일자리를 유지하는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높기는 하나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때도 상당한 정도의 고용 형태 및 일자리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일자리 유지 확률이나 정규직 유지확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안영은 외 (2017) 연구에서는 대학 전공계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외환위기 직후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내 중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분석함
 - 고용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직업경력 배열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직업경력은 정규직 안정형, 장기 미취업형, 비정규직 전전형, 비임금 근로 전전형으로 유형화함
 - 둘째, 고용 안정성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배경변수 중 대학 유형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일수록 장기 미취업형과 비정규직 전전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주요 연구변수인 대학 전공계열의 경우 이공계열 대비 인문 사회계열이 장기 미취업형, 비정규직 전전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기덕 외 (2019) 연구에서는 2015~2017년까지 고용유지율을 통해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고용유지율은 크게 증가하였음
 - 2년간 고용유지율은 2003~2005년 60.3%에서 2015~2017년 72.2%로 11.9%p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계층에서도 확인됨
 -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많이 개선되면서 성별에 의한 격차는 다소 해소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과는 달리 20대의 고용 안정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의 고용 안정성이 증가
 - 2년 고용유지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기 근속기간과 법정 복리후생, 그리고 조직몰입으로 나타남

[표 2-5] 고용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제 목	발행기관	주요 내용
강순휘 2016	취업 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 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 v27.4	<p>▶ 청년 패널(2007) 1~7차 자료를 가지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초기의 일자리 변동과 안정성을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하고자 함</p> <p>▶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초기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취업 유지확률이 여성에 비하여 높으며, 고졸자가 고학력자와 비교하면 취업 유지확률이 낮고 대학 진학이나 미취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음</p> <p>▶ 정규직 진입자의 정규직 유지 가능성이나 3개년 연속 동일 일자리를 유지하는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높지만,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때도 상당한 정도의 고용 형태 및 일자리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p> <p>▶ 같은 일자리 유지확률이나 정규직 유지확률은 고학력이 높음</p>
안영은 외 2017	대졸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중장기적 고용 안정성 연구	직업교육연구, v36.5,	<p>▶ 전공계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외환위기 직후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내 중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분석함</p> <p>▶ 고용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직업경력 배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직업경력은 정규직 안정형, 장기 미취업형, 비정규직 전전형, 비임금근로 전전형으로 유형화함</p> <p>▶ 고용 안정성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배경변수 중 대학 유형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별에서는 여성일수록 장기 미취업형과 비정규직 전전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 <p>▶ 주요 연구변수인 대학 전공계열의 경우 이공계열 대비 인문 사회계열이 장기 미취업형, 비정규직 전전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p>
김기덕 외 2019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변화와 결정 요인 분석	취업 진로 연구, v9,	<p>▶ 2년 고용유지율을 통해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변화를 분석함</p> <p>▶ 2년 고용유지율은 2003~2005년 60.3%에서 2015~2017년 72.2%로 11.9%p 증가하였다.</p> <p>▶ 고용 안정성 증가는 대부분 계층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용 안정성이 많이 개선되면서 성별 차이는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의 경우 30대 이상과는 다르게 20대에서는 뚜렷한 고용 안정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음</p> <p>▶ 산업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업, 그리고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에서 고용 안정성이 증가하였음.</p> <p>▶ 2년 고용유지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기 근속기간과 법정 복리후생, 그리고 조직몰입으로 나타남</p> <p>* 조직몰입의 경우 1수준 증가할 때 추가적인 2년을 고용유지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p> <p>* 2003~2005년의 7.08%에 비해 2015~2017년 4.67%로 영향력은 낮아졌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p> <p>* 결국 유급휴가 등의 법정 복리후생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에 대한 몰입은 이직 의도뿐 아니라 실제로 이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p>

5) 거주 안전성에 관한 선행 연구

■ 거주에 관한 선행 연구

- 거주 안전성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주거 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분포, 정책 대상 계층 도출 연구 또는 CPTED와 관련된 연구 등도 수행도
 - 최은희 외(2018) 연구에서는 주거 빈곤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한 주거 빈곤 가구를 4가지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
 - 이창우(2012) 연구에서는 2015년과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활용하여 침실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역을 도출
 - 서안나 외(2016) 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면적 기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도시-청년층-공동주택, 시설기준 미달 가구는 농어촌-비청년-단독주택이 도출됨
 - 이상헌 외(2014) 연구에서는 여성이 범죄(강간, 절도,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해 남성과 비교하면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범죄 모형의 설명력은 강간 모형, 성희롱 모형, 절도 모형, 폭행 모형의 순으로 높았음

[표 2-6] 거주 안전성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제목	발행기관	주요 내용
최은희·권치흥·임덕영·이슬해 2018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빈곤과 주거 안정에 대한 정의 및 흐름 ▶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 빈곤 가구의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주거 빈곤 가구에 대한 유형화
이창우 2012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변화 특성 분석	부동산학보, v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현황 및 변화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수도권과 광역시는 침실 기준(유형 I)이, 기타지역에서는 시설기준(유형 II)의 해소가 많이 이루어짐, 전남과 경북의 경우, 침실 기준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나 시설기준의 해소율이 매우 높음 (유형 III)
서안나 여창환 김재익 201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특성 및 지역적 차이 연구	주택연구, v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구분하여 2010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도 파악하였음 ▶ 면적 기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도시-청년층-공동주택, 시설기준 미달 가구는 농어촌-비청년-단독주택의 문제로 나타났고, 주택 이외 거주, 즉 기타 거처의 거주자는 두 가지 유형의 미달 가구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이상헌 이창한 2014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인식과 범죄 두려움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v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인식하는 CPTED 구성 요소별 인식 수준에 따라서 절도, 폭행, 성희롱 등 범죄 유형별 구체적 범죄 두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 ▶ 분석 결과, 여성이 절도 모형, 성희롱 모형, 폭행 모형, 강간 모형, 모두에 대하여 남성에 비해 범죄 두려움이 높고 모델별로는 강간모형, 성희롱모형, 절도모형, 폭행모형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음

6) 가족 관계성에 관한 선행 연구

■ 세대별 관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족 관계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부모+미혼자녀(2세대), 조부모+부모+미혼자녀(3세대) 간의 관계 및 만족도, 부부간의 관계 및 취업모와 자녀 간의 관계, 여가 시간과의 관계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음
 -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을 분석한 김나현 외 (2013) 연구에서는 남편의 방관자적 태도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이거나 육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 관계가 점차 줄어드는 등 소원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김경신 (2013) 연구에 의하면, 출산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출산 이외에 결혼에서도 드러나 현상이고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김지현 외 (2021)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돌봄, 관계 단절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경험하였고, 돌봄 공백을 경험한 부부의 23%만이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였음
 - 김필숙 외 (2004)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가 만족도는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적응도가 높고 직업별로는 주부인 집단이 전문직, 관리직 회사원, 기타 직업군보다 적응도가 높고 부모와 미혼자녀(2세대)가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에서도 적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7] 가족 관계성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제목	분석자료	주요 내용
김지현· 최형준, 2021	코로나 19시기 가족관계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 가사 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v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이 겪은 어려움과 변화들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함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돌봄, 관계 단절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피해를 경험하였고, 돌봄 공백을 경험한 부부의 23%만이 일 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하였으며, 여성의 제도 사용 비율이 남성보다 높음 ▶ 코로나19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의 가사 분담 여부에 따라 그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일 가정양립제도 사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구 소득 감소, 돌봄 부담 증가, 본인 가사 증가 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김필숙· 김태현 2004	여가 활동 및 여가 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 -30~4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v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자녀가 1명 이상인 30~4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여가 활동 및 여가만족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을 분석한 연구로써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음 ▶ 분석 결과, 연령은 낮을수록, 소득은 높을수록 여가 만족도가 높음,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적응도가 높고 직업별로는 주부인 집단이 전문직, 관리직 회사원, 기타 직업군보다 적응도가 높고 부모와 미혼자녀(2세대)가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에서도 적응도가 높음
김경신 2013	출산과 가치관, 성, 연령, 결혼 여부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v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는 출산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출산 지원정책은 아직도 인지도나 도움 인식 정도에 있어 특정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낮음을 알 수 있음 ▶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 교육비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있고, 출산당사자인 여성의 자녀 가치관 점수가 더 낮아 여성들이 좀 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여건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을 할 수 있었다 ▶ 기혼자들의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는 약하지만, 미혼자들의 경우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김나현· 이은주· 곽수영· 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 건강간호학회 지, v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취업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감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함 ▶ 제1주제 모음 :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일을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헌신이지만 지지받지 못함, 육아로 인해 일과 관련되어 충분한 시간 투자를 못 하는 것에 대해 갈등이 있음 등) ▶ 제2주제 모음 : 죄책감(아이에게 충분한 사람과 보살핌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쓰러움 등) ▶ 제3주제 모음 : 아이 교육에 관한 정보와 시간 부족으로 불안함 ▶ 제4주제 모음 : 부족한 엄마로 낙인찍힘(아이의 잘못됨은 곧 엄마의 육아 소홀 때문으로 결론지어짐) ▶ 제 5주제 모음: 소원해진 가족관계(남편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불안이 쌓임) ▶ 제6주제 모음: 지쳐가는 삶(이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이 과중) ▶ 제7주제 모음: 하루하루 버텨나감(자신의 힘든 삶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위안 삼음)

7) 출산·양육 지속성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효과 분석

- 출산과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출산 및 양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 평가이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최근에는 세분된 정책 평가 또는 지역별 인프라의 분포 분석, 양육의 어려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음
- 한단비 외(2023) 와 정재우 외(2023) 연구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 분석하였음
 - 한단비 외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동기 아버지의 양육 부담률을 높이고 가족 유연성을 증진시켜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 기능을 향상에 미치는 매개효과도 유의함
 - 정재우 외(2023) 연구에서는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업무수행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부적응, 양립에 따른 내적 갈등과 혼란,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가족지지의 필요성을 경험하였음
- 최근 획일화된 저출산 대응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철 외(2023)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유형별 저출산 대응 정책 조합이 적정한지를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차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1차 산업 특화지역에서는 [높은 현금 지원+높은 양적 인프라]의 조합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든지 또는 2차 산업 특화지역에서는 높은 현금 지원+높은 서비스 지원+높은 질적 인프라와 [높은 서비스 지원+낮은 양적 인프라+낮은 질적 인프라]의 조합이 효과적이라고 언급
- 김정일 외(2023) 연구에서는 전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의 분포를 통해 출산을 위한 인프라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지역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분포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음
 -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낮은 지역, 소아 청소년과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낮은 지역, 어린이집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낮은 지역을 분석하였고 이 모두에서 출산·양육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높은 지역을 도출하였음
 - 전남과 경북 등 도(道) 지역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인프라의 급속한 감소를 확인하였고, 광역시 가운데서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과 같이 지역 내 특정 자치구에서 출산·양육 인프라의 쏠림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표 2-8] 출산·양육 지속성에 관한 선행 연구

분야	연구명	분석자료	주요 내용
한단비·최지은·김현경 2023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 공동 양육 수행의 매개효과	육아 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아동 패널자료 활용하여 자녀의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 기능에 종단적으로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동기 동안 부모 공동양육의 수행을 증진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동기 아버지의 양육 부담률을 높이고 가족 유연성을 증진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 기능을 향상에 미치는 매개효과도 유의함
홍윤정·김선화·이영애 2023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육아 교육 연구 No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2021년까지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 ▶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연구 기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양육 태도', '유아 문제행동', '유아 기질'이 출현 빈도와 중심성에서 모두 높음 ▶ 연구 시기별 결과를 살펴보면, 1기(1996~2006)에는 '양육 태도', '유아 기질', '사회적 지지', '자녀 성별', '양육효능감', '취업 여부'가, 2기(2007~2011)에는 '양육 태도', '유아 기질', '부모 역할', '부모교육', '부모 인식', '매개효과'가, 3기(2012~2016)에는 '양육 태도', '우울', '양육 참여', '양육효능감', '자기 상대방효과'가, 4기(2017~2021)에는 '유아 문제행동', '양육 태도', '매개효과', '공동양육', '가족 상호작용'이 높음.
이태철·김소현·장우윤 2023	산업유형별 저출산 대응 정책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v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에 따라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산업유형별로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조합(combination)을 탐색 ▶ 1차 산업 특화지역에서는 [높은 현금 지원+높은 양적 인프라]의 조합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고 2차 산업 특화지역에서는 [높은 현금 지원+높은 서비스 지원+높은 질적 인프라]와 [높은 서비스 지원+낮은 양적 인프라+낮은 질적 인프라]의 조합이 효과적임 ▶ 생산자 서비스업 특화지역에서는 [높은 현금 지원+높은 서비스 지원+낮은 양적 인프라+낮은 질적 인프라]의 조합이 효과적임 ▶ 개인 서비스업 특화지역에서는 [낮은 현금 지원+높은 서비스 지원+높은 양적 인프라+높은 질적 인프라]와 [높은 현금 지원+높은 서비스 지원+낮은 양적 인프라+높은 질적 인프라] 두 가지 조합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경일·김정도·박영환 2023	지방자치 단계 출산 양육 인프라 분포의 형평성 측정	대한정치학회보, v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양육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지역 동질성 지수(코사인 제곱)를 활용하여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 세 차원으로 분석하였음 ▶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낮은 지역은 전남, 울산, 경기, 서울, 경북이고 소아청소년과는 전남, 광주, 울산, 부산, 대구 ▶ 어린이집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낮은 곳은 전남, 경기, 부산, 울산, 경북이고 이 모든 지역에서 출산·양육 인프라의 지역 동질성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 ▶ 분석과정에서 전남과 경북 등 도(道) 지역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인프라의 급속한 감소를 확인하였고, 광역시 가운데서도 서울, 부산, 대구, 울산과 같이 지역 내 특정 자치구에서 출산·양육 인프라의 쏠림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정재우·윤성민 2023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인문 사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 ▶ 분석 결과 업무수행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부족음, 양립에 따른 내적 갈등과 혼란,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가족지지의 필요성, 새로운 삶의 균형과 적응을 경험하였음

8) 주거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 주거 이동 및 주거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 주거 이동 및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소득·자산 등 가구 특성이나 역세권 등 입지적 요인, 주택 품질 만족도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조성희 외(1966) 연구에 따르면, 주거 이동 동기 특성 중에서 재산증식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가구 소득, 가족생활주기, 주택 소유 형태 등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주거 이동의 동기도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이재수 외(2014)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전·출입 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전입가구의 비율이 높고 30대는 전·출입 비중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0대 이상 장·고령층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나타남
 - 석호원 (2022) 연구⁷⁾에서는 5개 대도시의 10년('10~'19)간 전입·전출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형민 외(2021) 연구에서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지역 내 인구의 이동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지역 내 주거 이동은 역세권으로 집중되고 향후 역세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역세권 중심의 도시발전전략 수립 필요함
-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과 주거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창호 외 (2016)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과 주거 의식은 신혼부부의 가구 속성 및 주택 특성과 함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전세, 주거 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 기윤환 (2022) 연구에서는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는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요인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보다 주택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월세가구와 관리비 요인이 주거환경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선택요인의 우선순위는 주택구입대출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등으로 나타났고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로 이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 5개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시)의 10년('10~'19)간 전입·전출사례 1,189만 건의 전입 신고서에 기재된 전입 사유를 분석

[표 2-9] 주거 이동 및 주거환경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분야	연구명	분석자료	주요 내용
조성화·이은주 1996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 이동 동기와 주거 환경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주거학회지 v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내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 이동 동기와 주거 이동 시 고려하는 주거 환경 요소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주거 이동 현상을 파악하였음 ▶ 결과에 따르면, 재산증식요인, 편리·안전 요인, 환경 개선 요인, 비자발적 요인 중 재산증식요인이 설명력이 높음 ▶ 가구 특성 변인(소득, 가족생활주기, 주택 소유 형태)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발생하였고 주거 이동의 동기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구체화하였음
이재수·성수연 2014	서울 전출입 가구의 주거 이동 패턴과 특성 연구 -2000~2010	국토계획, v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전출입 가구의 특성을 분석 ▶ 20대는 전입가구 비율이 높고 30대 가구는 전·출입 비중이 35%로 가장 많고 50~60대 이상 장·고령층의 이동은 증가 추세 ▶ 근거리 지역 간 가구 이동의 비중은 최근 다소 감소, 평균 이동 거리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가 확대 ▶ 서울대도시권은 4개 권역(동북, 서북, 동남 및 서남권)으로 광역생활권 형성하지만, 공공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석호원 2022	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 회보, v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대도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의 10년('10~'19)간 전입·전출사예 전입 신고서에 기재된 전입 사유를 분석 ▶ 주된 인구이동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요인 등이며, 과거에 비해 주거환경요인의 비중이 큰 폭 증가하였고, 교육환경은 10대, 직업 및 주거환경요인 등은 20대를 중심으로 역 U자 형태를 보임 ▶ 주택과 자연환경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기윤환, 202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LHI저널 v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인천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을 분석하였음 ▶ 신혼부부는 단독/다가구 주택거주 요인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보다 주택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월세가구와 관리비 요인이 주거환경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또한 주거선택요인의 우선 순위는 주택구입 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으로 나타났고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로 이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창호·장성만 2016	점유형태 선택과 주거환경 및 주거의식의 관련성 분석 -수도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역연구 v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이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은 가구 속성 및 주택 특성과 함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전세, 주거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 미침 ▶ 주거환경의 경우,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부(-)의 영향)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정(+))의 영향은 가구의 자가 대비 전세 선택에 영향을 미친 반면, 주거지 주변의 거주 환경은 가구가 자가보다 월세를 선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침 ▶ 주거 의식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의 자산 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구는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음
김형만·장희순 2021	역세권의 주거 선택과 주거이동 특성 분석	주거환경, v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 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지역 내 인구가 역세권으로 집중하는지의 여부와 집중 현상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 철도가 개통된 중소도시의 지역 내 주거 이동은 역세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역세권 거주자도 향후 역세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어 이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전략 수립 필요함

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과 관련된 법률·제도·사업 현황

2.1 법률 현황

■ 신혼부부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 신혼부부와 관련된 법률은 주로 주거, 가정, 출산 및 양육, 고용, 가족관계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주거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주택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 기본법 (제2조 주거권, 제3조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2조 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목적), 19조 2항[별표6의 3] 등이 포함됨

[표 2-10] 주거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주거 기본법	▶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택법	▶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주거 약자법	▶ 제2조(정의) ①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혼부부의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 제75조 육아 시간 등이 포함됨

[표 2-11]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남녀고용 평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가정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은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목적, 제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가족실태조사,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친화법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등이 포함됨

[표 2-12] 가정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건강가정 기본법	<p>▶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가족실태조사,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p> <p>▶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p>
가정폭력 방지법	<p>▶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가족 친화법	<p>▶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아동수당법,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모자보건법(제2조 정의), 영유아보육법(제2조 정의) 등이 포함됨
- 출산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절 저출산 대책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포함됨

[표 2-13]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주요 법률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아동 수당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임신 보호출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법	▶ 제1절 저출산 대책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영유아 보육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모자 보건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畸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2 제도 현황⁸⁾

1) 공공주택 공급제도의 흐름

■ 공공주택⁹⁾의 주요 공급 정책 및 공급 유형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 이후 임대주택 육성방안 및 임대주택건설 촉진(1984)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공급된 시기는 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이 수립된 1989년 이후로 볼 수 있음

[표 2-14] 공공주택정책의 흐름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80~'86	▶ 임대주택 육성방안 ▶ 임대주택건설 촉진(1984)	'08~'12	▶ 보금자리주택 제도 ▶ 영구임대주택 건설 재계 ▶ 매입임대주택 10만 이상 도시 확대 ▶ 신축매입임대 도입(11)
'87~'92	▶ 주택 100만 호 건설 계획 ▶ 임대주택 건설 계획 (1989) ▶ 영구임대주택 도입	'13~'17	▶ 공공 건설/매입임대주택 유형 개편 ▶ 매입임대주택 8만 이상도 시 확대
'93~'97	▶ 영구임대주택 중단 ▶ 국민임대주택 도입	'17~'22	▶ 주거복지 로드맵 시행 ▶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 통합 공공임대주택 도입 ▶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건축물 확대 ▶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
'98~'02	▶ 주택 경기 활성화 ▶ 국민임대주택 도입		
'03~'07	▶ 장기 공공임대 150만 호 건설 계획 ▶ 최저주거기준 법제화(08) ▶ 매입임대 시범사업 (2004) ▶ 전세 임대사업(2004)	'22~'27	▶ 뉴·홈 공급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분양주택 공급 유형은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으로 구분
 -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공급 방법
 - 우선 공급은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공급

8) 제도적 현황은 전문가 서면 자문의 내용을 일부 재인용 및 재정리하여 작성하였음

9) 공공주택은 협의의 공공주택과 광의의 공공주택으로 구분.*협의의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고 '광의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법적 행정적인 강제력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성한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은 광의의 공공주택 일환으로 판단됨

-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과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은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 포함

[표 2-1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상의 공공주택의 공급 유형

구분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주택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 일반공급 규정에 따라 청약통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공급 방법
	우선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절 우선 공급 규정에 따라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하되, 특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 부여하는 공급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절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과 관계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 공공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공급제도

-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급 대상 : 무주택요건과 더불어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 등 주요 공급임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는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는 20년

-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인 기준 6,718,198원
- 자산 기준의 경우, 총자산 보유기준: 36,1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가구 특성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의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음
 -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의 돌봄 서비스와 보육 및 교육 등 신혼부부 가구의 수요 특성을 반영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급된 물량의 전량을 신혼부부가 그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임
 - 총공급물량 15만 호를 분양과 임대 형태로 혼합하여 공급할 계획(분양 10만 호+장기 임대 5만 호)
 - 지상 공간 공원화 등 단지 내 보행 설계와 맞춤형 평면을 특화하여 적용함
 -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의 인접성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선정하고 종합보육시설의 단지 중앙에 집적화 및 육아 종합서비스 운영 확충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
 - 신혼부부의 특화단지 조성, 공급 평형 확대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하고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전문 코디네이터의 도입 및 운영과 육아 종합서비스 운영을 지원

[표 2-16] 신혼희망타운의 개요

구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혼인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 기준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구성원일 것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	[전용50㎡ 이상 주택에한함] 가입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 사실 증명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有 : 130% 이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총자산기준 (2019년기준)	29,400만원 이하	(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기준은 2018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와 2021년에 신혼부부 공급 대상이 확대되었음
- 매입임대주택 I과 매입임대주택 II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음

[표 2-17] 매입임대주택 지원기준 변화

구분	지원기준 변화 추세
2015년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부여
2016년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정비(RIR 30% 이상자 추가) ▶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가점 항목 개선(수급자에서 모든 입주자에게로 확대 적용)
2018년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정 ▶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2019년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보호 종료 아동 우선지원 공급 대상 확대
2020년	▶ 매입 대상에 건축물 포함 (근린 생활숙박업무시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 ▶ 정부의 '주거안정지원방안'에 전세형 주택이 매입방식에 추가
2021년	▶ 신혼부부 공급 대상 확대
2023년	▶ 청년 공급 대상 확대

[표 2-18] 신혼부부 I & II 매입임대주택의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신혼부부 I 매입임대주택	<p>-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p> <p>▶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p> <p>▶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p> <p>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p> <p>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혼인신고 미비 시 계약 취소</p> <p>③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p> <p>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p> <p>순위별 입주 자격요건</p> <table data-bbox="395 717 1259 895"> <tr> <th>순위</th><th>자격요건</th></tr> <tr> <td>1순위</td><td>출산, 입양 등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만 6세 이하)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td></tr> <tr> <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td></tr> <tr> <td>3순위</td><td>1순위, 2순위 해당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td></tr> </table>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출산, 입양 등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만 6세 이하)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 해당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출산, 입양 등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만 6세 이하)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순위, 2순위 해당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p>소득·자산 기준</p> <p>- 총자산 가액(29,200만 원), 자동차 가액(3,496만 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p> <p>- 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원)</p>										
신혼부부 II 매입임대주택	<p>-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p> <p>- 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p> <p>▶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제4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이고,</p> <p>▶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신혼부부(제4순위는 신혼희망타운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를 대상</p> <p>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p> <p>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p> <p>③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족</p> <p>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p> <p>순위별 입주 자격요건</p> <table data-bbox="395 1479 1275 1698"> <tr> <th>순위</th><th>자격요건</th></tr> <tr> <td>1순위</td><td>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td></tr> <tr> <td>2순위</td><td>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td></tr> <tr> <td>3순위</td><td>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td></tr> <tr> <td>4순위</td><td>혼인 가구</td></tr> </table>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 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 가구										
	<p>소득·자산 기준</p> <p>-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6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p> <p>- 소득 기준 금액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p>										

2)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살펴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보증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이 있음

[표 2-19] 주택자금지원 제도

구 분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특징
내 집 마련	특례보증자리론	▶민법상 성인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소득제한 없음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보증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 가능, 고정금리 적용,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LTV: 최대70% (생초자:80%)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특정조건 충족 필요)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음 ▶CB점수 271점 이상	▶DTI: 최대60%	▶원리금균등상환,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신혼부부 보증자리론	▶민법상 성인			▶40년은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			▶50년은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음 ▶CB점수 271점 이상			
	디딤돌 대출	▶민법상 성인	▶5억원(신혼)이하 ▶신혼2자녀이상: 6억원 공부상 주택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 2자녀이상: 4억원	▶주택 면적: 주거 전용 면적 60~100㎡) ▶자금용도: 주택 구입 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 국적동포 포함)	▶세대원전원 무주택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 주택대출조건: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주거전용면적 60㎡ (읍면지역은 70㎡)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생최초자2억원) 이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 해당 사항 없음 ▶CB점수 271점 이상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 최초, 신혼) ▶2자녀이상: 7천만원		
		▶본인배우자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이하	▶LTV: 최대70% ▶DTI: 최대60%		

자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23.3.21.일자

-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경우,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음

[표 2-20] 신혼부부 전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자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1.1 접수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table><tr><th rowspan="2">부부합산 연소득</th><th colspan="4">임차보증금</th></tr><tr><th>5천만원 이하</th><th>5천만 초과~ 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th><th>1.5억원 초과</th></tr><tr><td>2천만원 이하</td><td>1.2%</td><td>1.3%</td><td>1.4%</td><td>1.5%</td></tr><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5%</td><td>1.6%</td><td>1.7%</td><td>1.8%</td></tr><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1.8%</td><td>1.9%</td><td>2.0%</td><td>2.1%</td></tr></table> <p>추가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p>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3 주거지원사업 현황

■ 임대주택재고수와 매입임대주택수 현황

- 총 임대주택 재고수는 1,708 천호로 수도권은 869천호, 비수도권에는 839 천호
 -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보다는 경인지역의 분포 비율이 더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를 비롯한 시 지역에 비해 도지역의 분포 비율이 더 높음

[표 2-21] 임대주택 재고 현황

구분	전체	공공부문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사원임대	장기전세	민간부문
전국	1,708,716	1,176,840	192,886	105,663	521,115	107,839	77,226	30,333	26,169	531,876
수도권	869,230	561,452	74,964	85,751	257,596	40,048	3,761	7,691	26,169	307,778
서울	374,968	219,919	46,446	78,678	39,291	1,373	-	0	25,961	155,049
인천	82,855	54,260	8,424	1,433	28,948	2,589	1,853	1,007	0	28,595
경기	411,407	287,273	20,094	5,640	189,357	36,086	1,908	6,684	208	124,134
비수도권	839,486	615,388	117,922	19,912	263,519	67,791	73,465	22,642	0	224,098
광역시	302,427	229,340	74,567	8,088	93,481	14,585	9,662	760	0	73,087
자치시	9,291	5,726	-	900	55	1,399	1,552	1,661	0	3,565
자치도	81,970	59,287	5,657	1,878	23,790	12,143	6,392	6,630	0	22,683
도지역	445,798	321,035	37,698	9,046	146,193	39,664	55,859	13,591	0	124,763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LH의 총 매입임대주택수(2022년 기준)는 19.2 천호 수준이고 매입임대의 경과년수비율은 10년 이하가 59.3%인 11.3천호 수준임
 -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남부지역의 매입비율이 높고 경과년수는 5년 미만이 높음

[표 2-22] 2022년 LH 매입임대현황

유형		호수	경과년수(건물사용승인일 기준)						
			5년미만	5년~10년 미만	10년~15 년미만	15년~20 년미만	20년~25 년미만	25년~30 년미만	30년 이상
			(‘18~’22)	(‘13~’17)	(‘08~’12)	(‘03~’07)	(‘98~’02)	(‘93~’97)	(~’92년)
총계		191,514	69,527	43,963	27,924	12,549	18,976	14,509	4,066
다가구*	소계 (다가구등)	153,347	57,074	39,830	22,925	11,049	8,038	10,678	3,753
	서울	23,275	10,728	3,328	2,445	687	908	3,955	1,224
	부산울산	13,379	4,240	3,125	2,461	731	384	886	1,552
	인천	15,198	6,629	3,310	2,042	322	1,116	1,382	397
	경기남부	32,163	16,262	5,977	2,400	1,720	1,877	3,489	438
	경기북부	10,381	3,333	3,282	1,546	557	1,307	316	40
	기타지역	58,951	15,882	20,808	12,031	7,032	2,446	650	102
그외매입임대		38,167	12,453	4,133	4,999	1,500	10,938	3,831	313

자료 : 내부자료, 2023.9월

3. 소결

- 2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의 정의, 주거 안정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 흐름과 이와 관련된 주요 이론들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고 신혼부부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도 및 사업 현황을 살펴봄
 - 과거 주거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족생활(생애)주기 또는 주거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많았지만, 국내 주택 분야에서 주거 안정성과 개인의 욕구 단계 이론과 접목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또한 기존 주거 안정성의 연구는 주로 주택 또는 주택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효과 또는 실태조사를 분석하는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주거 이외의 주제와 접목은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특히 거주민의 삶을 주제로 한 종합적인 접근은 제한적임
- 주거 안정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접목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 및 측정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음
 -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5가지의 주요 특성을 설정하고자함
 - 본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의 측정 요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가계 재무, 주거, 고용,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분야별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음
 - 고용과 관련한 요인 : 성별, 학력, 일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 등을 검토
 - 가족관계와 관련한 요인 :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검토
 - 가계 재무와 관련한 요인 : 가계수지비율, 슈바베지수, 부채부담지표 등을 검토
 - 거주와 관련한 요인 : 주택 유형, 주택점유 형태, 거주기간 등을 검토
 -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서는 출산 의향, 출산 여부, 양육비용, 양육수당, 직장에서 출산 양육과 관련한 휴가제도의 사용 여부 등을 검토
- 법률 현황은 신혼부부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법률을 재분류하여 향후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지표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및 분석 결과에 활용하고자 검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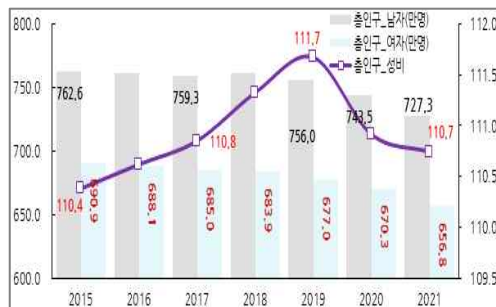
제3장 싯혼부부 가구 특성 및 현황

1.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이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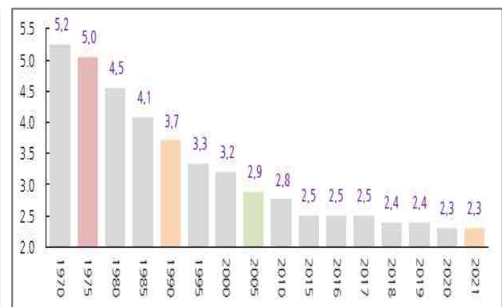
1.1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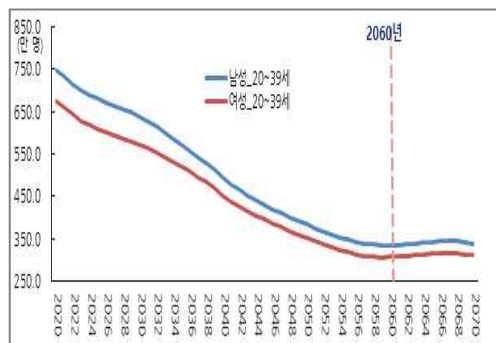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성비 불균형은 111.7로 2019년 이후 다소 완화되어 2021년 110.7을 기록하였고 20~39세 성별 추계는 `60년까지 감소세 전망(통계청, 인구추계)
-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00년에는 3.2명으로 축소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 1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초소형 가구로 변화되어가는 추세
- 2000년부터 여성 가구주의 급격한 증가세 (`00년 2.6천가구에서`20년6.8천가구)



[그림 3-1] 남성과 여성의 성비



[그림 3-2] 평균 가구원 수 추이



[그림 3-3] 성비 추이



[그림 3-4] 여성 가구주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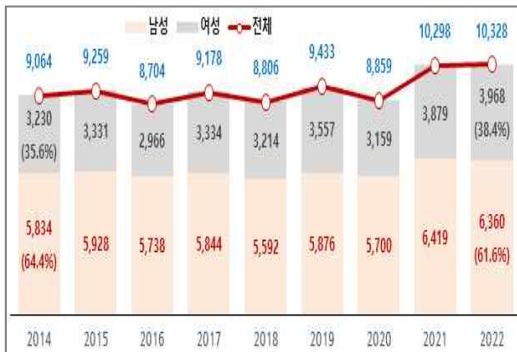
10) 통계청, 국제노동협회(ILO),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1.2 젠더 이슈

■ 여성의 사회진출 격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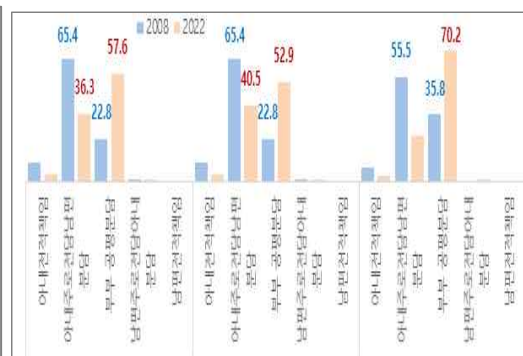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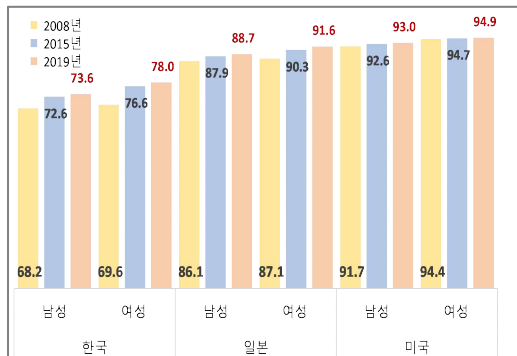
○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에 의해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증가

- 2014년 여성의 박사학위 취득 비율은 35.6%에서 2020년 38.4%로 2.8%p가 증가했지만, 남성은 감소세
- 여성의 고위직 진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8년 13.7%에서 2021년 19.0%로 5.3%p 증가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국제노동통계(ILO)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여성 고용 비율은 2008년에 69.6%에서 2019년 78.0%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비율(93.0%, 94.9%) 수준까지는 미흡
- 2008년도의 경우 가정 내 가사 분담은 주로 여성 전담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2022년에는 공평 분담에 대한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



[그림 3-5] 여성 박사학위 취득 비율 추이

[그림 3-6] 주요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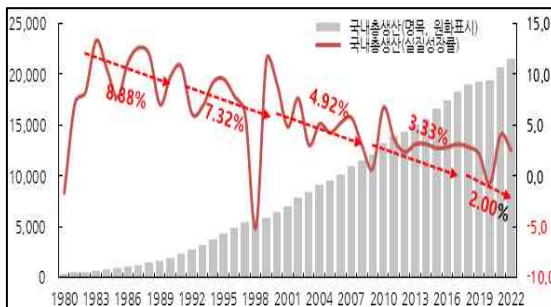
[그림 3-7] 주요국 임금 근로자의 성별 고용 비율

[그림 3-8]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1.3 경제 성장

■ 선진국형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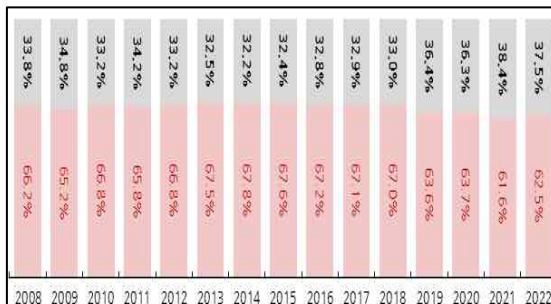
- 실질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후반기부터 선진국형 성장률 수준인 2.0%대 진입하였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명목, 美 달러)은 2010년 23,083.3 美 달러에서 2021년 35,127.9 美 달러로 증가세 지속
 - 1980년대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9%대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7.3%, 2000년대에는 4.9%, 2010년에는 3.3%, 2020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 후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4.3%까지 회복하였음
- IMF 사태와 Global Financial Risk 등의 세계 경제 변화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내 경기도 위축되었고 경제 불안 심리가 가중되었음
 -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은 지속되었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 2022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5%로 최근 10년 평균(34.2%)보다 높고 개인 창업도 2020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급격한 감소세



[그림 3-9] 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3-10]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



[그림 3-11] 임금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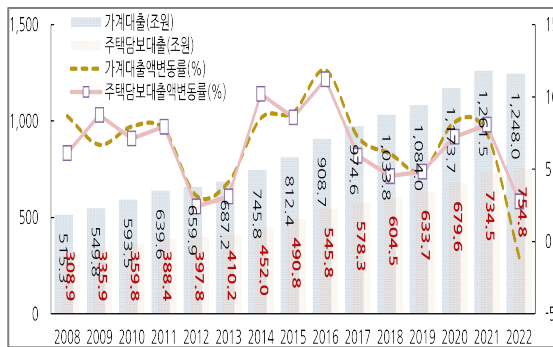


[그림 3-12] 개인 창업 추이

1.4 자산 양극화

■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 저금리의 영향으로 대출을 활용한 투자의 확대로 인해 자산 가치는 급등하였다
가 미국발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투자 불안과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됨
 -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 가치의 급등화를 일으켰으나 미국발 금리 인상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부채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의 평균 변동률은 8.5% 증가하였지만 변동 폭이 매우 심하였으며 주택 자산도 변동 폭이 급변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13] 가계/주택담보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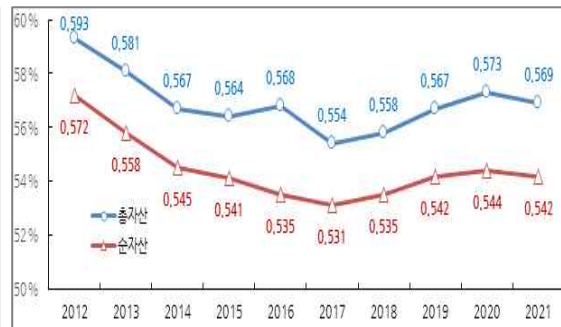


[그림 3-14] 금융자산 추이

- [그림 3-15]에 따르면, 아파트매매가격은 2015년 이후 하락하다가 2018년 이후 상승하였고 [그림 3-16]과 같이 자산 불평등도는 아파트 가격 추세와 같이 2012년~2017년까지는 완화되었다가 2017년 이후부터 확대되는 양상



[그림 3-15] 아파트가격지수와 가격추이



[그림 3-16] 자산 불평등도

2. 가구의 특징 및 현황

2.1 세대 특징¹¹⁾

■ MZ세대

-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혼 남성의 평균 연령은 33.7세이고, 여성은 31.2세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MZ세대임
 - 사회적 환경 속의 MZ세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 남녀평등 인식 강화, IT 산업 활성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만족을 중시
 - 최영준(2020)¹²⁾ 연구에 따르면, MZ세대의 주요 특징은 ① 일과 가정의 균형 추구 ② 디지털 원주민 ③ 공유 경제 선호 ④ 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 증가 ⑤ 주식 직접투자 선호 ⑥ 여타 세대와 비교해 근로 소득 증가세 부진 ⑦ 금융자산 정체 ⑧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소비 정체로 정리하였음
- MZ세대의 특징은 X세대나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

[표 3-1] 세대별 특징 비교

세대 구분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88세대
	~1949년생	1950~1969년생	1970~1979년생	1980~1992년생
사회적 배경	▶ 한국 전쟁 및 복구,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는 대중문화 등을 경험	▶ 4·19 혁명, 사정변, 새마을 운동 등을 경험	▶ 광주민주화운동, 프로야구 출범, PC통신 시작, IMF 사태 등 경험	▶ 탈권위와 된 정치적 상황,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 ▶ 남녀평등 인식 강화, IT산업 활성화 등 경험
특성	▶ 산업화와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 ▶ 전통적 가치관과 반공 등 보수적 권위주의 내면화 ▶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자부심 ▶ 준비되지 않은 노년	▶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 성공과 발전을 추구하는 성공 지향 ▶ 노인과 청년을 부양하는 긴 세대	▶ 경제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누림 ▶ 정보화 및 세계화와 함께 성장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상의 가치로 여김	▶ 자기 계발 매진, ▶ 디지털 네이티브 ▶ 태생적 글로벌 리스트 ▶ 기브앤 테이크가 확실한 실용주의파 ▶ 인생의 목표는 즐거움 ▶ 평등주의자

자료 : 최섯별, 2019, 한국의 세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홈페이지 재정리, 권치홍 2023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자료 재인용

11) 통계청 사회문화조사를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재분석

12) 최영준, 2020,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한국은행 보고서, 권치홍 2023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 자료 재인용

2.2 일반 현황¹³⁾

1) 신혼부부 수 현황

- 2021년 총 신혼부부 수(단위: 쌍)는 109.9만 쌍으로 이는 전년 대비 8.2만 쌍이 감소하였고 2017년 이후 연 5.5%가 감소하는 양상
- 2021년 초혼과 재혼인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7.1%와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혼인 신혼부부 비율은 '16년 19.9%에서 '21년 20.7%로 점진적 증가하는 양상

[표 3-2] 혼인유형별*연도별 추이

(단위: 만 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신혼부부	138.0	132.1	125.8	118.1	109.9	124.8
변동률(%)		-4.28	-4.77	- 6.12	- 6.94	- 5.53
초혼	110.3	105.2	99.8	93.8	87.1	99.2
변동률(%)		-4.62	- 5.13	-6.01	- 7.14	-5.73
재혼	27.5	26.9	26	24.3	22.7	25.5
변동률(%)		- 2.18	-3.35	-6.54	-6.58	-4.66

- 2021년 다문화 신혼부부 수는 80,464쌍, 최근 5년 평균¹⁴⁾*(8.5만)에 비해 4,616쌍이 감소하였고 다문화 혼인은 한국인 남편과 아내가 외국인과 결혼(96.2%)이 높음
 - 2021년 외국인 남편(2.0만 명)의 국적은 중국(38.0%), 미국(17.3%) 등이고 외국인 아내(6.9만 명)의 국적은 베트남(34.1%), 중국(28.1%), 태국(9.9%) 등 순임
- 2021년 전체 신혼부부의 분포는 수도권, 기타 도 지역, 5개 광역시 등의 순이고 초혼은 수도권과 광역시 비중이 높지만, 재혼은 기타 도 지역의 비중이 초혼에 비해 높음

[표 3-3] 혼인유형별*지역별 신혼부부 수

(단위: 만 쌍, %)

구분	전체		초혼		재혼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 국	109.9		87.1	79.3	22.7	20.7
수 도 권	58.9	53.6	48.1	55.2	10.8	47.6
5개광역시	19.2	17.5	15.5	17.8	3.7	16.3
기타 도	31.8	28.9	23.5	27.0	8.3	36.6

13)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자료를 분석 결과

14) *) 5년간 다문화 신혼부부 수 추이: 17년(8.5만), 18년(8.5만), 19년(8.8만), 20년(8.6만), 21년(8.0만)

- 2021년 총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56.9만 가구, 이중 초혼은 47.8만(84.0%) 쌍이고 재혼은 9.1만 쌍(16.0%)이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혼인 맞벌이 비율은 57.3% 재혼 가구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51.6%)이 높음

[표 3-4] 혼인 유형별* 맞벌이 가구 분포 (단위: 만 쌍, %)

구분	전체		초혼		재혼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 국	56.9		47.8	84.0	9.1	16.0
수 도 권	31.8	55.9	27.4	57.3	4.4	48.4
5개 광역시	9.7	17.0	8.3	17.4	1.5	16.5
기타 도	15.4	27.1	12.1	25.3	3.2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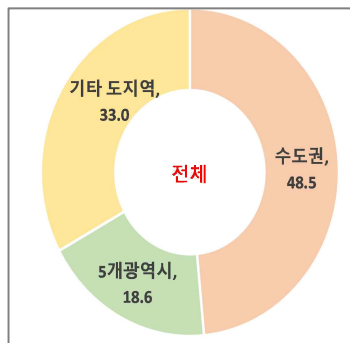
- 2021년 신혼부부 중 주택 소유 가구¹⁵⁾는 48.0만으로 전년 대비 3.5만 가구(7.1% 하락)가 감소되었고 최근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주택 구매 지연/ 포기때문임

- 2017년 이후 주택소유한 신혼부부 비율은 가격 상승과 반비례하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지역에서는 지역 주택시장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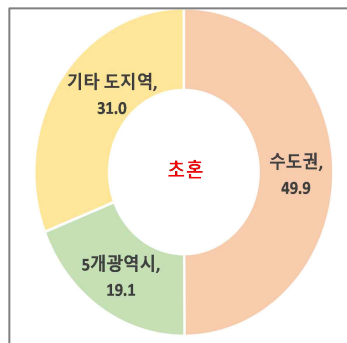
- 2021년 자가인 신혼부부의 비중은 수도권(48.5%)에 비해 비수도권(51.5%) 높음

※ 전국 자가 신혼부부 수는 `17년(61.7만 쌍), `19년(55.8만 쌍), `20년(51.6만 쌍)이고 2021년 수도권은 23.3만 쌍이고 비수도권 24.7만 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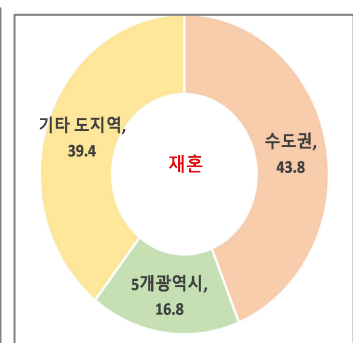
- 2021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혼인 주택 소유가구는 18.2만 가구, 재혼인 주택 소유 가구는 5.0만 가구,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초혼인 주택 소유가구는 18.3만 수준이며 재혼인 주택 소유가구는 6.4만 가구 수준임



[그림3-17] 지역별 자가 분포



[그림 3-18] 지역별 자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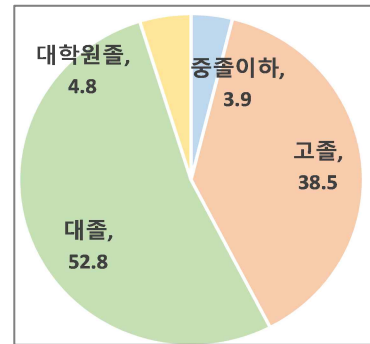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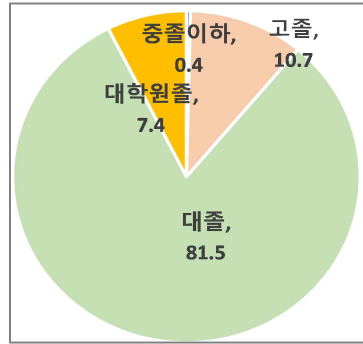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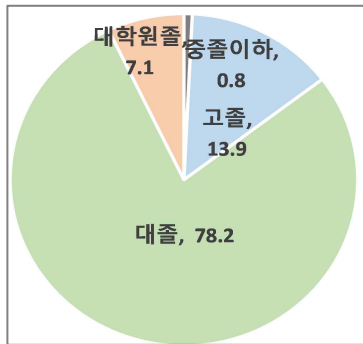


[그림 3-19] 지역별 자가 분포

15) 통계청 사회조사, 2021년 신혼부부통계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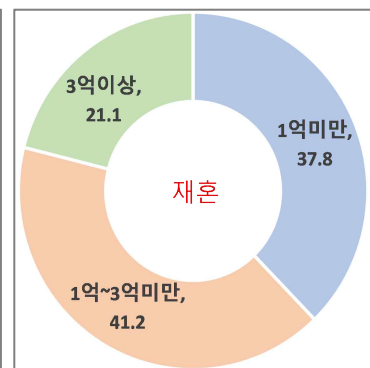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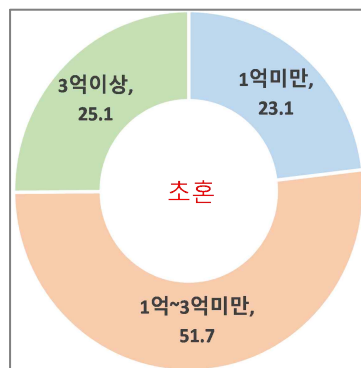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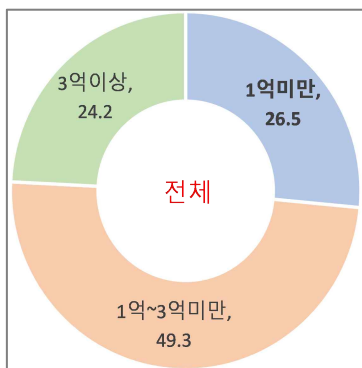
2) 신혼부부의 일반 특성

- 2021년 전국 신혼부부 중 남편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 수는 74.4만 명(67.5%)이고 아내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71.6만 명(65.0%)임
 - 초혼인 남편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67.2만 명(77.2%), 아내는 63.4만 명(72.7%)이고, 재혼인 남편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7.1만 명(77.2%), 아내는 8.2만 명(72.7%)임
 - 아래의 [그림 3-20] 부터[그림 3-22] 까지, 대졸자 남편과 결혼한 대졸자 아내의 비율을 보면, 전체 신혼부부는 78.2%, 초혼 부부는 81.5%, 재혼 부부는 52.8%로 나타남



[그림 3-20] 아내의 학력 비율 전체 [그림 3-21] 아내의 학력 비율 초혼 [그림 3-22] 아내의 학력 비율 초혼

- 2021년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없는 가구 비율은 11.6%, 대출잔액이 있는 가구 중 1억 원 미만 비율은 35.9%, 1억~3억 원 미만은 46.8%, 3억 원 이상은 17.8%임
 - 주택 소유 가구 중 대출 1억 원 미만은 26.5%, 1억~3억 원 미만은 49.3%, 3억 원 이상은 24.2%이고 초혼 부부는 2억 원 이상의 대출 비율이 37.3%로 나타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그림 3-23] 주택소유대출비율 [그림 3-24] 주택소유대출비율 [그림 3-25] 주택소유대출비율

3)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 현황

- 2021년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¹⁶⁾는 0.80명으로 2017년 0.78명에 비해 0.02명이 증가하였지만 2018년 이후 계속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
 - 특히 서울특별시 2017년 0.66명에서 2018년 0.70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부터 감소세가 지속하여 2021년에는 0.62명을 기록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2018년(0.87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였다가 2020년부터 0.8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2021년까지 1.03명 수준을 유지
- 2021년 전국 평균 출생아 수에 미달인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으로 나타남

[표 3-5] 시도별*연도별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수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0.78	0.87	0.84	0.81	0.80
수도권	서울특별시	0.66	0.70	0.67	0.63	0.62
	인천광역시	0.77	0.88	0.86	0.84	0.81
	경기도	0.77	0.85	0.82	0.78	0.76
광역시	부산광역시	0.79	0.88	0.84	0.81	0.79
	대구광역시	0.83	0.90	0.87	0.84	0.83
	광주광역시	0.88	0.97	0.94	0.91	0.90
	대전광역시	0.81	0.90	0.87	0.83	0.82
	울산광역시	0.85	0.94	0.91	0.88	0.87
세종특별자치시		0.83	0.87	0.85	0.82	0.82
강원도		0.98	0.95	0.93	0.91	0.89
충청북도		1.00	0.98	0.95	0.92	0.90
충청남도		0.99	0.96	0.94	0.92	0.90
전라북도		1.06	1.04	1.00	0.98	0.96
전라남도		1.13	1.10	1.07	1.04	1.03
경상북도		1.01	0.97	0.95	0.94	0.92
경상남도		1.00	0.97	0.94	0.92	0.90
제주특별자치도		1.01	0.97	0.95	0.93	0.92

- 신혼부부의 결혼 기간별 자녀 출산 시기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중에서는 결혼 후 12개월 미만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12~24개월 미만, 결혼 前 1년 미만 등 순으로 나타남

16)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자녀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입주 후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구(29,727)의 총 자녀수는 34,084명이고 이중 입주 후에 출생한 자녀 비율은 17.7%로 나타남

- 초혼 부부는 결혼 후 12개월 미만 첫 자녀 출산 비율이 가장 높고, 결혼 후 2년 미만, 결혼 후 3년 미만 등 순으로 나타났고 재혼 부부는 결혼 전 12개월 미만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높고, 결혼 후 1년 미만, 2년 미만 등 순으로 나타남
- 2015년 첫째 자녀의 출산 소요 기간은 14.9개월이지만, 2018년에는 15.6개월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17.1개월로 크게 증가
-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초혼 가구는 첫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을 준비하는 반면, 재혼 가구는 첫 자녀 출산 후 4년 정도가 소요됨
- 2015년 둘째 자녀의 출산 소요 기간은 33.9개월이지만, 2018년에는 34.2개월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34.3개월로 소폭 증가함

■ 신혼부부의 양육 현황

- 신혼부부의 양육 형태 비중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중이 가정의 양육 비중보다 높아 보육시설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택 소유 신혼부부의 양육 형태 비중은 어린이집(49.6%), 가정 양육(40.8%), 유치원(3.7%)의 순이고 주택 미소유 신혼부부도 어린이집(46.4%), 가정 양육(44.8%), 유치원(2.9%)의 순으로 나타나
- 3건 이상 소유한 신혼부부는 가정양육(39.6%)이 다른 신혼부부에 비해 낮으나 유치원 등의 비율은 높은 편임
- 통합 양육 서비스에서도 주택 소유가구는 가정양육과 돌봄 서비스(시간제) 비율은 낮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돌봄 서비스(시간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3 가구 특성별 현황

1) 가구 특성별 현황 분석자료의 개요

■ 연구 분석자료의 설정¹⁷⁾

○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21년 “가족과 출산” 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 및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가족과 출산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산과 결혼 행동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대표적인 조사이고 주요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경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임
-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는 그동안 매 3년 주기로 시행하던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실태조사’(이하 출산력 조사)의 변경된 제목임
 - 1964년 “전국 가족 계획실태조사”로부터 시작된 출산력 조사는 시기별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개편하면서 현재까지 지속
- ※ 1979년부터는 매 3년 주기로 시행하였고, 1985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조사”로, 2003년부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개편하여 2018년까지 유지
-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4,538명임

[표 3-6] 2021년 가족과출산 조사의 개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가족과 출산 조사
조사 대상 연령	▶ 15~49세	▶ 19~49세
조사 대상 성별/혼인상태	▶ 기혼 여성	▶ 미혼/기혼 남녀
기본/미혼 표본 특성	▶ 기혼/미혼 표본 분리	▶ 통합 표본
완료 표본 규모	▶ 기혼 11,207명(미혼 2,400명)	▶ 가구 : 9,999가구 ▶ 개인 : 14,538명

출처: 박종서 외, 202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재인용

17) 박종서 외, 202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재인용

-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의 주요 항목은 가구 및 가구원 사항, 부모와의 관계, 동거와 결혼, 임신·출산·건강, 산전 산후 관리, 자녀 양육, 일, 성장기와 주거 이동, 가치관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됨

[표 3-7] 2021년 가족과출산 조사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항목
가구/가구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관계, 성, 연령, 교육, 혼인상태, 취업 여부, 종교, 국적, 동거 여부 ▶ 주거,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연령, 학력, 생존 여부, 직업, 경제 상황 ▶ 세대 간 자원의 교환 및 세대 관계
동거와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우자 : 결혼 시점, 동거 시점, 혼인신고 시점, 결혼식 시점, 결혼 기대 척도, 결혼 이력 ▶ 동거 중 : 시작 시기, 동거 기대 척도, 결혼 이행, 차별 ▶ 미혼(기혼 싱글) : 결혼 의향, 결혼 기대 척도, 동거 의향 등 ▶ 이혼경험자 : 자녀 유무, 양육비 지급 사항
임신 출산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임 : 생식계 건강, 대처방안, 피임인지도, 경험, 방법, 이유, 의사결정 ▶ 임신·출산 : 임신 횟수, 계획 여부, 결과, 총출생아 수, 결혼 당시 출산계획, 향후 출산 의향, 의사 결정 척도 ▶ 난임(불임) : 경험, 검사, 원인, 시술 경험, 결과, 기간 등
산전 산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 분만 : 진찰 장소, 횟수, 초진 시기, 불편 사항, 분만 장소, 자연분만 여부, 분만 시기와 체중 ▶ 산후 관리 : 산후진찰 경험, 산후조리 장소, 산후우울 경험 및 치료 ▶ 수유 : 방법, 정보취득, 모유 여부 및 계획, 이력
자녀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담 : 육아와 가사 시간 분담, 만족도 ▶ 미취학 돌봄 : 희망 돌봄 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취학 돌봄 : 희망 돌봄 유형, 현재 유형, 주체, 만족도, 어려움 ▶ 양육비 : 돌봄 기관, 공/사교육비, 돌봄 인력 비용, 기타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 현 취업, 항목별 시간량과 적정성, 생애사건 시 취업 이력
성장기와 주거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당시) 거주지역, 동거 부모, 분거 경험, 15세 때 경제 형편 ▶ 주거 독립, 자립 인식, 결혼 전후 주거 이동
가치관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역할 태도와 가치, 자녀 출산 태도, 사회 신뢰

출처: 박중서 외, 202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재인용

2)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특성

■ 표본 가구의 분포

- 총 표본 수는 14,538명이고 4인 비율은 34.2%, 3인 비율은 27.8%, 2인 비율은 14.7% 등 순이고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는 2,817명(전체 대비 18.9%) 3인 비율은 46.0%, 4인 비율은 26.0%, 2인 비율은 24.1% 등 순임

[표 3-8] 신혼부부의 가구원 수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합계
전체	빈도	2,016	2,138	4,047	4,938	1,193	174	21	10	2	14,538
	%	13.9	14.7	27.8	34	8.2	1.2	0.1	0.1	0	100.0
신혼부부	빈도		679	1,295	733	90	18	2	0	0	2,817
	%		24.1	46.0	26.0	3.2	0.6	0.0	0.0	0.0	100.0

■ 성별 특성

- 신혼부부 가구주의 남성 비율은 99.1%, 여성 비율은 0.9%이고 연령대별로는 30~39세 이하* 남성 비율은 66.3%와 여성 비율은 58.3%로 가장 높음

[표 3-9] 가구주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남성	빈도	212	1,868	655	53	5	2,793
	전체 %	7.5	66.3	23.3	1.9	0.2	99.1
여성	빈도	5	14	5	0	0	24
	전체 %	0.2	0.5	0.2	0.0	0.0	0.9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 부부간 연령별¹⁸⁾ 특성

- 부부간 연령별 분포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29세 이하와 30~39세 이하에게서

18) 신혼부부의 연령 범주는 10세 단위로 6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그룹 1은 ~29세까지, 그룹 2는 30~39세까지, 그룹3은 40~49세까지, 그룹4는 50~59세까지, 그룹 5는 60~64세까지, 그룹 6분위는 65세 이상으로 설정

는 배우자의 동년배들 비율이 높지만 40~49세 이하에게서는 연하 비율이 높음

-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는 가구주 배우자의 동년 연령 비율이 6.0%로 높았고 30~39세 이하인 가구주는 배우자의 연령이 30~39세 이하인 비율이 54.8%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연령이 29세 이하 비율과 49세 이하 비율은 9.7%와 2.3%를 차지

[표 3-10]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 분			가구주 연령					전체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가구주 배우자 연령	29세 이하	빈도	168	272	39	2	0	481
		전체 %	6.0	9.7	1.4	0.1	0.0	17.1
	39세 이하	빈도	49	1,545	369	21	2	1,986
		전체 %	1.7	54.8	13.1	0.7%	0.1	70.5
	49세 이하	빈도	0	65	249	30	2	346
		전체 %	0.0	2.3	8.8	1.1%	0.1	12.3
	59세 이하	빈도	0	0	3	0	1	4
		전체 %	0.0	0.0	0.1	0.0%	0.0	0.1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 신혼부부의 학력 수준

- 신혼부부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57.4%와 55.6%이고 고졸 이하인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 비율은 42.6%와 44.4%임
- 가구주*배우자 대졸 이상 비율은 44.7%, 가구주 대졸이상*배우자 고졸 이하는 12.7%, 가구주*배우자 고졸 이하는 31.7%, 가구주 고졸 이하*배우자 대졸 이상은 10.7%임

[표 3-11] 가구주와 배우자의 학력 수준

(단위: 명, %)

구분			가구주 학력		전체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가구주 배우자 학력	고졸 이하	빈도	893	357	1,250
		전체 %	31.7	12.7	44.4
	대졸 이상	빈도	307	1,260	1,567
		전체 %	10.9	44.7	55.6
	전체	빈도	1,200	1,617	2,817
		전체 %	42.6	57.4	100.0

■ 맞벌이 가구의 특성

-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외벌이 비율에 비해 0.1%p가 높은 49.4%, 연령대별로는 30~39세 이하 비율 34.4%, 40~49세 이하 비율 11.0%, 29세 이하는 3.4%임
- 홀벌이 가구 중 가구주의 취업 비율은 48.0%, 배우자의 취업 비율은 1.5%이고 연령대별로는 30~39세 이하 비율 66.8%, 40~49세 이하 비율 23.4% 등임

[표 3-12] 가구주 연령별*맞벌이 여부

(단위: 명, %)

구 분		가구주 연령					전체	카이제곱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비경제적 활동실업	빈도	5	21	5	0	1	32	54.586 ^a p=.000
	전체 %	0.2%	0.7%	0.2%	0.0%	0.0%	1.1%	
배우자 취업	빈도	7	16	18	1	0	42	
	전체 %	0.2%	0.6%	0.6%	0.0%	0.0%	1.5%	
가구주 취업	빈도	109	876	326	37	4	1,352	
	전체 %	3.9%	31.1%	11.6%	1.3%	0.1%	48.0%	
맞벌이	빈도	96	969	311	15	0	1,391	
	전체 %	3.4%	34.4%	11.0%	0.5%	0.0%	49.4%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3) 가족 간의 관계

■ 양가 부모님과과의 교류 현황

- 신혼부부 자녀 중 양가 부모님과 비동거 비율은 98.4%이고 연령별 비율을 보면 30~39세 이하는 67.3%, 40~49세 이하는 22.0%, 29세 이하는 7.6% 등 순임

[표 3-13] 양가 부모님과과의 동거 여부

구분			가구주 연령					전체	카이제곱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비동거 양가 부모님	있음	빈도	207	1845	603	41	1	2,697	56.981 ^a p=.000	
		전체 %	7.6%	67.3%	22.0%	1.5%	0.0%	98.4%		
	없음	빈도	7	13	20	2	1	43		
		전체 %	0.3%	0.5%	0.7%	0.1%	0.0%	1.6%		
	전체 (결측치 77개 제외)		빈도	214	1858	623	43	2		2,740
			전체 %	7.8%	67.8%	22.7%	1.6%	0.1%		100.0%

- 비동거하는 부모님과 연락 빈도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31.6%), 매일 (30.1%), 일주일에 한 번 정도(21.1%) 등의 순임

[표 3-14] 비동거 부모 교류 현황

구분		가구주연령					전체	카이제곱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매일	빈도	75	565	160	11	1	812	73.601 ^a p=.000
	전체 %	2.8%	20.9%	5.9%	0.4%	0.0%	30.1%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빈도	66	586	187	14	0	853	
	전체 %	2.4%	21.7%	6.9%	0.5%	0.0%	31.6%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빈도	30	409	126	5	0	570	
	전체 %	1.1%	15.2%	4.7%	0.2%	0.0%	21.1%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빈도	15	172	65	8	0	260	
	전체 %	0.6%	6.4%	2.4%	0.3%	0.0%	9.6%	
한 달에 한 번 정도	빈도	11	81	41	1	0	134	
	전체 %	0.4%	3.0%	1.5%	0.0%	0.0%	5.0%	
한 해에 서너 번 정도	빈도	2	17	15	0	0	34	
	전체 %	0.1%	0.6%	0.6%	0.0%	0.0%	1.3%	
거의 또는 전혀 연락하지 않음	빈도	8	7	9	1	0	25	
	전체 %	0.3%	0.3%	0.3%	0.0%	0.0%	0.9%	
무응답	빈도	0	8	0	1	0	9	
	전체 %	0.0%	0.3%	0.0%	0.0%	0.0%	0.3%	
전체 (결측치 120개 제외)		빈도	207	1845	603	41	1	2,697
		전체 %	7.7%	68.4%	22.4%	1.5%	0.0%	100.0%

■ 부모님의 경제 상황

- 신혼부부 양가 부모님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녀까지 지원할 여력은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지만, 자녀를 지원해 줄 여력 부족은 45.4%,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 있음은 26.0%, 현재 생계는 감당하지만, 노후 생활자원은 부족은 22.3% 등 순임

[표 3-15] 부모의 경제 상황

구 분		가구주 연령					전체	카이제곱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현재 생계가 어렵고 노후 생활자원도 부족	빈도	5	67	32	4	1	109	53.293 ^a p=.000
	전체 %	0.2%	2.4%	1.2%	0.1%	0.0%	4.0%	
현재 생계는 감당하지만 노후 생활 자원은 부족	빈도	45	407	161	13	0	626	
	전체 %	1.6%	14.9%	5.9%	0.5%	0.0%	22.8%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지만,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없음	빈도	93	830	302	18	0	1,243	
	전체 %	3.4%	30.3%	11.0%	0.7%	0.0%	45.4%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 자원이 충분하고 자녀를 지원해줄 여유 있음	빈도	61	522	121	8	1	713	
	전체 %	2.2%	19.1%	4.4%	0.3%	0.0%	26.0%	
잘 모름	빈도	10	32	7	0	0	49	
	전체 %	0.4%	1.2%	0.3%	0.0%	0.0%	1.8%	
전체	빈도	214	1,858	623	43	2	2,740	
	전체 %	7.8%	67.8%	22.7%	1.6%	0.1%	100.0%	

■ 부모님과의 현금·현물 지원

- 신혼부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 지원을 받는 금액(2021년)은 연평균 222만 원, 비정기적 지원을 받는 금액은 연평균 76만 원이고 신혼부부가 부모님에게 정기적 지원금액은 연평균 311만 원, 비정기적 지원금액은 102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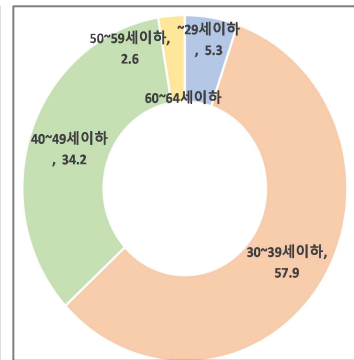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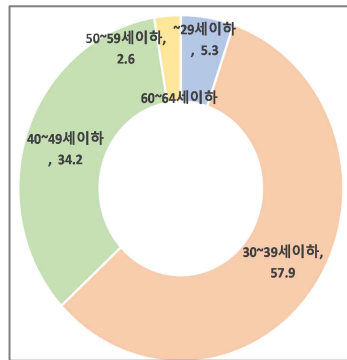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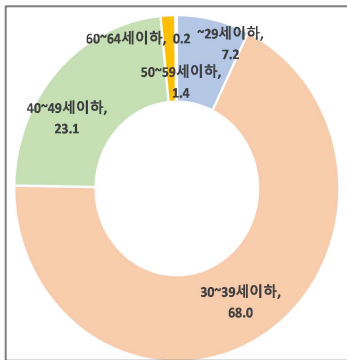
[표 3-16] 양가 부모님과 신혼부부 간의 정기/비정기 평균 현금지원 (단위: 2021년 기준, 만원)

구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평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정기적	189	291	186			222
	비정기적	108	76	75	44		76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린 금액	정기적	270	257	313	356	360	311
	비정기적	62	85	100	163		102

4) 고용의 현황

■ 신혼부부의 고용 현황

- 전체 신혼부부의 취업 비율은 68.7%, 실업/구직비율은 1.3%, 비경제 활동 비율은 29.9%이고 연령대별 취업 비율은 30~39세 이하(68.0%), 40~49세 이하(23.1%), ~29세 이하(7.2%), 50~59세 이하(1.4%) 등 순임



[그림 3-26] 연령별 취업 비율 [그림 3-27] 연령별 구직비율 [그림 3-28] 연령별 비경제활동비율

- 신혼부부의 주당 실제 평균 근로 시간은 42.3시간,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액은 325.8만 원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의 경우 29세 이하에서는 주당 43.6시간이고 59세 이하에서는 41.2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9세 이하는 278.5만 원, 59세 이하는 평균 375.7만 원으로 나타남

[표 3-17]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및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액 (2021년 기준, 단위: 시간, 만원)

구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주당 실제 평균 근로 시간	43.6	41.6	41.2	41.2	44.0	42.3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액	278.5	330.3	344.5	375.7	300.0	325.8

■ 가구주 연령/학력별 직장 유형*정규직 여부

- 가구주 연령별*직장 유형*정규직 비율을 보면, 민간 중소기업*정규직 비율은

21.9%, 민간 대기업*정규직(18.7%), 민간 소기업* 정규직(17.3%) 등의 순임

- 직장 유형*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개인사업체(5인 이하)*비정규직 비율은 6.8%, 민간 중기업*비정규직(2.0%), 민간 소기업*비정규직(5.0%) 등의 순임

[표 3-18] 가구주 연령*학력별 직장 유형* 정규직 여부

구 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카이제곱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정부기관* 정규직	빈도	7	7	29	112	5	34	0	0	0	0	194	100.192 ^a p=.000
	전체 %	0.4%	0.4%	1.8%	7.1%	0.3%	2.1%	0.0%	0.0%	0.0%	0.0%	12.2%	
정부기관* 비정규직	빈도	2	0	5	2	3	6	0	0	0	0	18	
	전체 %	0.1%	0.0%	0.3%	0.1%	0.2%	0.4%	0.0%	0.0%	0.0%	0.0%	1.1%	
정부외 공공기관* 정규직	빈도	1	1	10	63	6	18	1	1	0	0	101	
	전체 %	0.1%	0.1%	0.6%	4.0%	0.4%	1.1%	0.1%	0.1%	0.0%	0.0%	6.4%	
정부외 공공기관* 비정규직	빈도	0	1	2	8	0	6	0	0	0	0	17	
	전체 %	0.0%	0.1%	0.1%	0.5%	0.0%	0.4%	0.0%	0.0%	0.0%	0.0%	1.1%	
민간대기업* 정규직	빈도	10	8	65	154	18	40	1	0	0	0	296	
	전체 %	0.6%	0.5%	4.1%	9.7%	1.1%	2.5%	0.1%	0.0%	0.0%	0.0%	18.7%	
민간대기업* 비정규직	빈도	5	1	6	9	3	1	0	0	0	0	25	
	전체 %	0.3%	0.1%	0.4%	0.6%	0.2%	0.1%	0.0%	0.0%	0.0%	0.0%	1.6%	
민간중기업* 정규직	빈도	12	7	84	162	33	47	1	1	0	0	347	
	전체 %	0.8%	0.4%	5.3%	10.2%	2.1%	3.0%	0.1%	0.1%	0.0%	0.0%	21.9%	
민간중기업* 비정규직	빈도	0	1	16	9	0	6	0	0	0	0	32	
	전체 %	0.0%	0.1%	1.0%	0.6%	0.0%	0.4%	0.0%	0.0%	0.0%	0.0%	2.0%	
민간소기업* 정규직	빈도	16	11	86	100	28	29	1	2	1	0	274	
	전체 %	1.0%	0.7%	5.4%	6.3%	1.8%	1.8%	0.1%	0.1%	0.1%	0.0%	17.3%	
민간소기업* 비정규직	빈도	5	1	25	24	14	6	3	1	0	0	79	
	전체 %	0.3%	0.1%	1.6%	1.5%	0.9%	0.4%	0.2%	0.1%	0.0%	0.0%	5.0%	
개인사업체 (5인이하)* 정규직	빈도	4	4	30	35	7	11	2	0	0	0	93	
	전체 %	0.3%	0.3%	1.9%	2.2%	0.4%	0.7%	0.1%	0.0%	0.0%	0.0%	5.9%	
개인사업체 (5인이하)* 비정규직	빈도	8	5	33	35	11	10	4	0	1	1	108	
	전체 %	0.5%	0.3%	2.1%	2.2%	0.7%	0.6%	0.3%	0.0%	0.1%	0.1%	6.8%	
기타* 비정규직	빈도	0	0	0	0	1	0	0	0	0	0	1	
	전체 %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1%	
전체	빈도	70	47	391	713	129	214	13	5	2	1	1,585	
	전체 %	4.4%	3.0%	24.7%	45.0%	8.1%	13.5%	0.8%	0.3%	0.1%	0.1%	100.0	

■ 신혼부부의 이직 형태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직 행태는 다른데 정규직의 이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비율은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과 반대로 증가하는 양상
 - 정규직 비율의 경우 첫 직장의 정규직 비율은 76.5%, 두 번째 직장은 69.4%, 세 번째 직장은 66.6%, 네 번째 직장은 68.6%, 다섯 번째 직장은 58.3%로 점차 감소
 - 비정규직 비율의 경우 첫 직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23.5%, 두 번째 직장은 30.6%, 세 번째 직장은 33.4%, 네 번째 직장은 31.4%, 다섯 번째 직장은 41.7%로 증가하는 양상

[표 3-19] 맞벌이* 가구주 직장유형*정규직 현황

구 분		직장1	직장2	직장3	직장4	직장5
정규직*정부기관	빈도	139	28	11	6	2
	전체 %	10.7%	3.7%	2.9%	3.8%	3.3%
정규직*정부외기관	빈도	62	35	15	5	3
	전체 %	4.8%	4.7%	4.0%	3.1%	5.0%
정규직*민간대기업	빈도	216	89	41	11	2
	전체 %	16.7%	11.9%	10.9%	6.9%	3.3%
정규직*민간중기업	빈도	245	171	74	27	9
	전체 %	18.9%	22.9%	19.6%	16.9%	15.0%
정규직*민간소기업	빈도	237	148	83	41	17
	전체 %	18.3%	19.8%	22.0%	25.6%	28.3%
정규직*민간사업체	빈도	91	48	27	19	2
	전체 %	7.0%	6.4%	7.2%	11.9%	3.3%
비정규직*정부기관	빈도	16	12	11	6	3
	전체 %	1.2%	1.6%	2.9%	3.8%	5.0%
비정규직*정부외기관	빈도	23	9	9	1	1
	전체 %	1.8%	1.2%	2.4%	0.6%	1.7%
비정규직*민간대기업	빈도	32	25	10	8	1
	전체 %	2.5%	3.3%	2.7%	5.0%	1.7%
비정규직*민간중기업	빈도	44	25	13	6	5
	전체 %	3.4%	3.3%	3.4%	3.8%	8.3%
비정규직*민간소기업	빈도	93	77	43	17	6
	전체 %	7.2%	10.3%	11.4%	10.6%	10.0%
비정규직*민간사업체	빈도	96	81	40	12	9
	전체 %	7.4%	10.8%	10.6%	7.5%	15.0%
비정규직*기타	빈도				1	
	전체 %				0.6%	
전체	빈도	1,294	748	377	160	60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5) 거주 안전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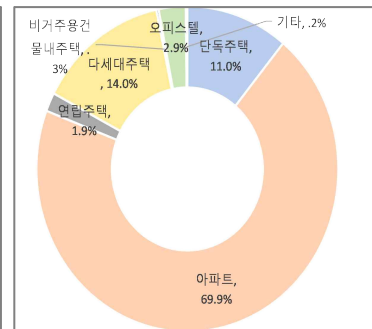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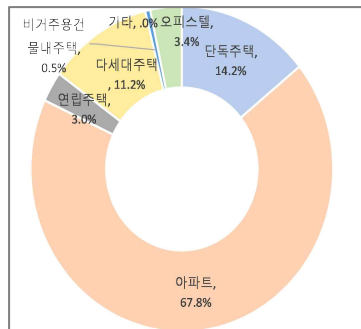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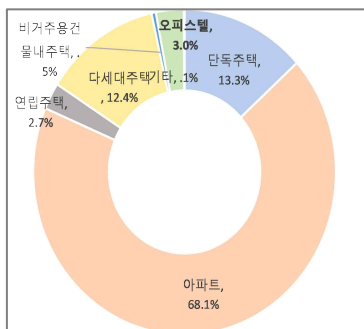
■ 주택 유형의 특성

- 신혼부부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68.1%), 단독주택(13.3%), 다세대주택(12.4%), 오피스텔(3.0%), 연립주택(2.7%) 등 순이고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66.8%), 49세 이하(23.4%), ~29세 이하(7.7%)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20] 가구주 연령*주택 유형

구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카이제곱
단독주택	빈도	48	220	91	16	0	375	81.087 ^a p=.000
	전체 %	1.7%	7.8%	3.2%	0.6%	0.0%	13.3%	
아파트	빈도	123	1,315	456	21	3	1,918	
	전체 %	4.4%	46.7%	16.2%	0.7%	0.1%	68.1%	
연립주택	빈도	3	54	12	6	0	75	
	전체 %	0.1%	1.9%	0.4%	0.2%	0.0%	2.7%	
다세대주택	빈도	29	228	82	9	2	350	
	전체 %	1.0%	8.1%	2.9%	0.3%	0.1%	12.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빈도	2	9	1	1	0	13	
	전체 %	0.1%	0.3%	0.0%	0.0%	0.0%	0.5%	
오피스텔	빈도	12	56	16	0	0	84	
	전체 %	0.4%	2.0%	0.6%	0.0%	0.0%	3.0%	
기타	빈도	0	0	2	0	0	2	
	전체 %	0.0%	0.0%	0.1%	0.0%	0.0%	0.1%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 세대별 주택 유형 비중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고 아파트와 비슷한 유형인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은 MZ세대의 비중이 높고 다세대주택은 X세대의 비중이 높음



[그림 4-29] 세대별 주택유형_전체 [그림 4-30] 세대별 주택유형_MZ [그림 4-31] 세대별 주택유형_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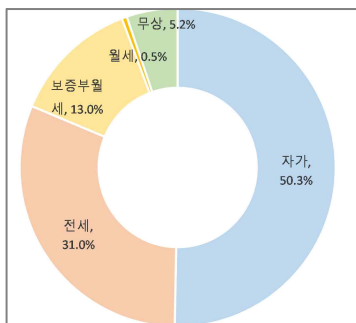
■ 주택 점유 형태별 현황

-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은 50.3%, 전세는 31.0%, 보증금 있는 월세는 13.0% 등 순이고 관사 등 무상 비율은 5.2%로 월세 비율(0.5%)에 비해 높고,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50.3%)은 임차 비율(44.5%)에 비해 높아 주택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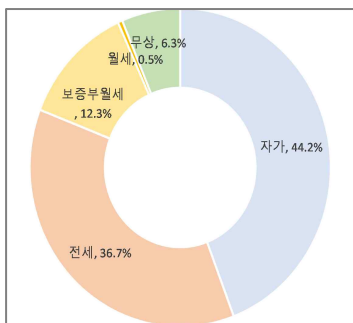
[표 3-21] 가구주 연령*주택 점유

구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카이제곱 p=.000
자가	빈도	72	929	378	35	3	1,417	
	전체 %	2.6%	33.0%	13.4%	1.2%	0.1%	50.3%	
전세	빈도	71	632	166	4	0	873	
	전체 %	2.5%	22.4%	5.9%	0.1%	0.0%	31.0%	
보증금 있는 월세	빈도	52	216	85	10	2	365	
	전체 %	1.8%	7.7%	3.0%	0.4%	0.1%	13.0%	
월세	빈도	2	9	3	1	0	15	
	전체 %	0.1%	0.3%	0.1%	0.0%	0.0%	0.5%	
무상	빈도	20	96	28	3	0	147	
	전체 %	0.7%	3.4%	1.0%	0.1%	0.0%	5.2%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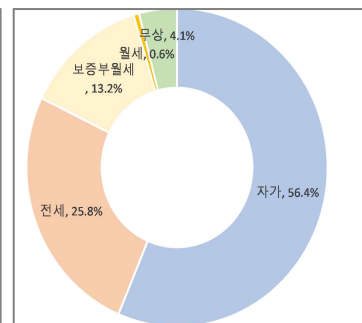
- 세대별로 보면, MZ세대는 축적된 자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가 비율이 낮지만, 향후 자가 소유 또는 자산 축적을 위해 전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2] 세대별 점유형태_전체



[그림 4-33] 세대별 점유형태_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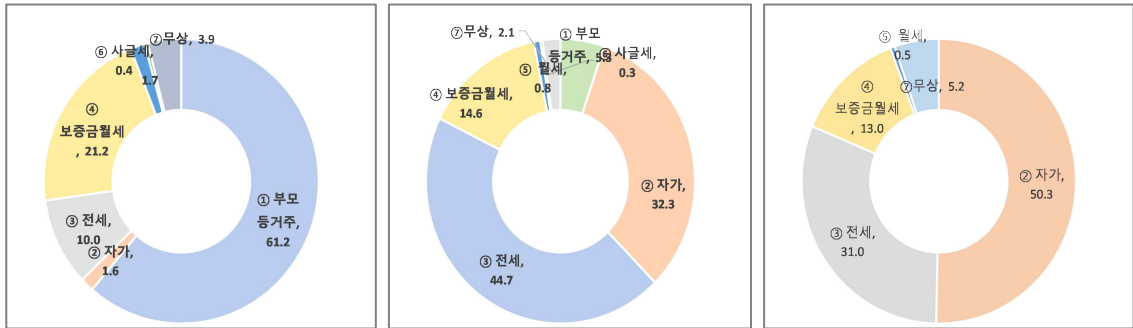


[그림 4-34] 세대별 점유형태_X

■ 신혼부부의 결혼 전·직후·현재의 주거점유이동 경로

- 결혼 전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형태는 부모 등 친인척과 거주 비율, 결혼 직후에는 전세 비중, 현재는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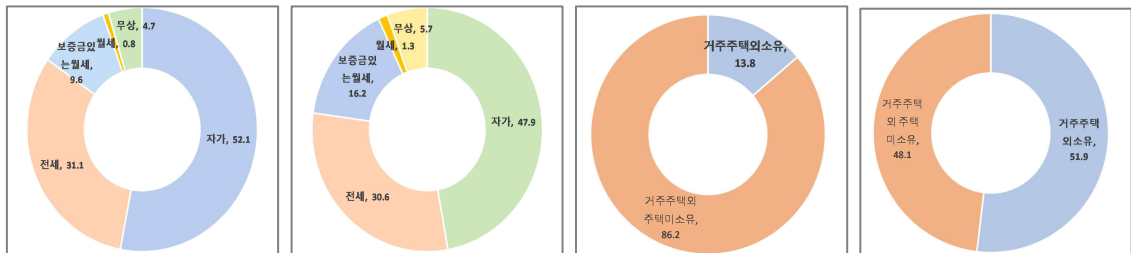
- 결혼 전 점유 형태는 부모, 친인척 등 거주 비율(61.2%), 보증부월세(21.2%), 전세(10.0%), 자가(1.6%) 등의 순이고 결혼 직후의 점유 형태는 전세(44.7%), 자가(32.3%), 보증부월세(14.6%), 부모 등과 동거(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의 점유 형태는 자가(50.3%), 전세(31.0%), 보증부월세(13.0%) 등의 순으로 주거 이동하였음



[그림 3-35] 결혼 전 점유형태 [그림 3-36] 결혼 직후 점유형태 [그림 3-37] 현재 점유 형태

■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의 점유 형태 특성

- 맞벌이 가구는 자가(26.2%), 전세(15.6%), 보증부월세(4.8%) 등 순이고 외벌이 가구도 맞벌이와 같은 순서인데 비율에서만 차이가 있음
- 전체 신혼부부 가운데 거주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13.8%, 이중 맞벌이 가구는 51.9%, 외벌이 가구는 48.1%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30~39세 이하 비율은 59.4%, 40~49세 이하 비율은 32.6%, 29세 이하의 비율은 4.4%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8] 점유형태_맞벌이 [그림 3-39] 점유형태_외벌이 [그림 3-40] 거주외소유_전체 [그림 3-41] 거주외소유_맞벌이

6) 가계의 재무 현황

■ 신혼부부의 가계 재무 현황

- 신혼부부의 월평균 총소득은 567만 원, 총지출은 384만 원, 순자산액은 3억 2,122만 원이고 전체 신혼부부 중 대출 가구는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총재산 대비 총부채액)은 24.6%로 나타남
 - 신혼부부의 월평균 총소득¹⁹⁾은 567만 원, 총지출은 384만 원, 총재산은 평균 4억 2,603만 원, 총부채는 1억 481만 원, 순자산액은 3억 2,122만 원으로 나타남
 - 총 자가주택의 시가는 평균 4억 1,503만 원, 전월세보증금은 1억 5,730만 원, 대출금액은 1억 2,147 만원(신혼부부 대비 대출가구는 61.9%)임

[표 3-22] 신혼부부의 가계 재무 상태

(단위: 만원)

구 분	월평균 소득	월평균 지출	재산	부채	순자산	자가주택 시가	전·월세 보증금	월세금	대출액
평균	567	384	42,603	10,481	32,122	41,503	15,730	37	12,147
중위수	510	350	29,000	7,500	20,000	30,000	13,000	30	10,000
표준편차	294	144	46,310	13,650	38,990	35,477	13,446	38	9,114
최솟값	28	70	0	0	-26,700	1,000	40	2	200
최댓값	4,227	1,500	620,000	146,000	620,000	380,000	90,000	400	80,000

■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의 재무 현황 비교

- 맞벌이 가구는 주택가격과 전월세보증금은 외벌이에 비해 높지만, 가계수지비율과 평균 대출금액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총재산은 평균 4억 7,711만 원, 총부채는 1억 2,110만 원, 순자산액은 3억 5,601만 원, 부채 비율은 25.4%이고 외벌이 가구의 총재산은 3억 8,512만 원, 총부채는 8,982만 원, 순자산액은 2억 9,530만 원임
 -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과 지출액은 각각 683만 원과 428만 원, 가계수지비율은 62.7%이고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과 지출액은 각각 461만 원과 345

19) 신혼부부의 소득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중위소득 범주는 1분위(~50%), 2분위(50~100%), 3분위(100~150%), 4분위(150~200%), 5분위(200% 초과), 또한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를 적용하였고 기준 중위 소득액은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액(가구원 수별)을 반영

만 원, 가계수지비율은 74.8%로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음

- 맞벌이 가구의 주택가격 시가는 평균 4억 3,349만 원, 전월세보증금은 1억 7,856만 원, 대출금액은 1억 3,493만 원이고 외벌이 가구의 주택가격 시가는 평균 4억 334만 원, 전월세보증금은 1억 4,324만 원, 대출금액은 1억 866만 원임

※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부채 비율은 25.4%와 23.3%로 나타남

[표 3-23] 맞벌이의 가계 재무 상태

(단위: 만원)

		월평균 합계 소득	월평균 지출	재산	부채	순자산	자가주택 시가	전·월세 보증금	월세금	대출액
맞 벌 이	평균	683	428	47,711	12,110	35,601	43,349	17,856	46	13,493
	중위수	620	400	32,200	10,000	23,000	30,000	15,600	30	10,000
	표준편차	303	152	46,857	15,245	37,695	33,430	13,813	55	9,800
	최솟값	150	120	360	0	-26,700	1000	50	6	1,000
	최댓값	4,227	1,406	396,000	146,000	251,000	210,000	80,000	400	80,000
외 벌 이	평균	461	345	38,512	8,982	29,530	40,334	14,324	31	10,866
	중위수	410	313	25,000	6,000	18,000	29,000	12,000	28	10,000
	표준편차	230	122	46,447	11,900	41,091	38,392	13,068	19	8,195
	최솟값	50	70	0	0	-5,000	1,500	100	4	200
	최댓값	2,579	1,500	62,0000	145,000	620,000	38,0000	90,000	100	70,000

7) 출산 및 양육의 현황

■ 가구주 연령대별 혼인유형 현황

- 신혼부부의 초혼비율은 97.8%, 재혼비율은 2.2%이고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초혼은 74.5%, 39세 이상*초혼은 23.9%이고 29세 이상*재혼은 2.2%임

[표 3-24] 가구주 연령별*결혼 횟수 현황

(단위: 회, %)

구 분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전체
1회	빈도	217	1,866	627	43	2	2,755
	전체 %	7.7	66.2	22.3	1.5	0.1	97.8
2회	빈도	0	16	32	10	3	61
	전체 %	0.0	0.6	1.1	0.4	0.1%	2.2
3회	빈도	0	0	1	0	0	1
	전체 %	0.0	0.0	0.0	0.0	0.0	0.0
전체	빈도	217	1,882	660	53	5	2,817
	전체 %	7.7	66.8	23.4	1.9	0.2	100.0

■ 신혼부부의 결혼 기간별*자녀 출산 현황

- [그림 3-42]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율은 76.2%로 이는 결혼 3년 이상과 결혼 4년 이하 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함

구분	전체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유자녀	76.2	22.2	45.6	65.9	75.0	84.5	89.5	94.1	92.2
미자녀	23.8	77.8	54.4	34.1	25.0	15.5	10.5	5.9	7.8

[그림 3-42] 결혼 기간 중 자녀 출산 경험 유무

(단위: %)

- [그림 3-43]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첫째 자녀의 출산 비중은 결혼 1년(94.0%), 둘째 자녀는 결혼 4년 차(36.2%)와 6년 차(48.1%) 등의 순이고 셋째 자녀는 3.6%, 넷째 자녀는 0.2% 순으로 나타남

- 첫째 자녀는 결혼 1년 이내에 출산 비율이 높고 둘째 자녀는 결혼 4년과 6년, 셋째와 넷째 자녀는 결혼 7년까지도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전체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첫째자녀	62.4	100.0	94.0	86.7	80.5	61.1	59.0	47.8	42.0
둘째자녀	33.8		3.6	11.9	17.0	36.2	37.3	48.1	50.4
셋째자녀	3.6		2.4	1.5	2.5	2.7	3.3	3.7	7.1
넷째자녀	0.2						0.5	0.4	0.4

[그림 3-43] 결혼 기간별 자녀 출산 비중

(단위: %)

■ 신혼부부 자녀 수별 점유 형태와 가구주 연령 현황

○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율은 24.4이고 유자녀 비율은 75.5%임

- 무자녀*임차²⁰비율(무상 제외)은 12.2%지만, 무자녀*자가 비율은 11.0%로 나타났고 유자녀*자가 비율은 78.0%이지만 유자녀 임차 비율은 72.6%로 임차에 비해 자가 거주자의 유자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점유 형태 * 출산 자녀 수 현황

구 분			주택점유					전체	카이제곱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무상		
자녀 수	0명	빈도	189	149	61	2	20	421	24.041 ^a p=.001
		전체 %	11.0	8.6	3.5	0.1	1.2	24.4	
	1명	빈도	401	270	101	3	43	818	
		전체 %	23.2	15.7	5.9	0.2	2.5	47.4	
	2명	빈도	248	101	63	4	26	442	
		전체 %	14.4	5.9	3.7	0.2	1.5	25.6	
	3명	빈도	21	11	6	0	2	40	
		전체 %	1.2	0.6	0.3	0.0	0.1	2.3	
	4명	빈도	2	2	0	0	0	4	
		전체 %	0.1	0.1	0.0	0.0	0.0	0.2	
전체		빈도	861	533	231	9	91	1,725	
(결측치 1,092 제외)		전체 %	49.9	30.9	13.4	0.5	5.3	100.0	

- 가구주 연령*무자녀 비율은 30~39세 이하(16.1%), 40~49세 이하(4.5%) ~29세 이하(2.9%) 등의 순이고 자가*유자녀 비율은 ~29세 이하(38.5%), 30~39세 이하(53.5%), 40~49세 이하(60.3%) 등으로 나타남

[표 3-26] 가구주 연령 * 출산 자녀 수 현황

구 분			가구주연령범주					전체	카이제곱
			29세 이하	39세 이하	49세 이하	59세 이하	64세 이하		
자녀 수	0명	빈도	50	278	77	15	1	421	39.617 ^a p=.001
		전체 %	2.9	16.1	4.5	0.9	0.1	24.4	
	1명	빈도	66	534	201	15	2	818	
		전체 %	3.8	31.0	11.7	0.9	0.1	47.4	
	2명	빈도	20	302	115	5	0	442	
		전체 %	1.2	17.5	6.7	0.3	0.0	25.6	
	3명	빈도	1	24	13	2	0	40	
		전체 %	0.1	1.4	0.8	0.1	0.0	2.3	
	4명	빈도	0	1	3	0	0	4	
		전체 %	0.0	0.1	0.2	0.0	0.0	0.2	
전체		빈도	137	1,139	409	37	3	1,725	
		전체 %	7.9	66.0	23.7	2.1	0.2	100.0	

20) 임차는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를 포함

■ 신혼부부의 양육과 관련한 분석

○ [표 3-27]와 같이 영유아(6세 이하) 육아 서비스에 관한 이상과 실제치²¹⁾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 국공립 어린이집(예상치 30.9%) →(실적치 12.7%) : 18.2%P 감소, 국공립유치원(예상치 10.1%) →(실적치 5.2%) : 4.9%P 감소, 아이 돌보미(예상치 1.2%) →(실적치 0.1%) : 1.1%P 감소
- 민간 : 직장어린이집(예상치 3.8%) →(실적치 2.0%) : 1.8%P 감소, 가정·민간어린이집(예상치 19.2%) →(실적치 37.2%) : 18.0%P 증가, 기타 어린이집(예상치 0.5%) →(실적치 0.7%) : 0.2%P 증가, 사립유치원(예상치 10.8%) →(실적치 16.1%) : 5.3%P 증가, 반일제 이상 학원(예상치 3.3%) →(실적치 1.2%) : 2.1%P 감소, 기타 사설 학원(예상치 0.3%) →(실적치 0.4%) : 0.1%P 증가, 민간 돌보미(보모) (예상치 0.7%) →(실적치 0.2%) : 0.2%P 감소, 방문 교육(미술 등) 교사(예상치 0.3%) →(실적치 0.1%) : 0.2%P 감소
- 가족이나 친척 : 본인(예상치 15.6%) →(실적치 21.4%) : 5.8%P 증가, 배우자(예상치 0.4%) →(실적치 0.5%) : 0.1%P 증가, 시부모님 (예상치 0.2%) →(실적치 0.2%) : 동일, 친정 부모님 (예상치 2.6%) →(실적치 1.9%) : 0.7%P 감소
- 자가 신혼부부의 실제 영유아 양육은 가정과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임차 가구는 자가 가구에 비해 국공립 양육 형태의 활용 비율이 높고 아내의 양육 부담이 증가함
- 아내는 자녀 양육을 최소화하고 취업, 여가 생활 등으로 시간을 이용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현실은 아내의 양육 비율과 친정 부모님의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21) 본 분석은 김은정, 2022,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 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

[표 3-27] 신혼부부의 점유 형태별 영유아 육아 서비스 비교

영유아 시설		예상치				실제치			
		자가	임차	전체	카이제곱	자가	임차	전체	카이제곱
① 국공립어린이집	빈도	190	183	373	21.591 ^a p=.087	70	83	153	21.591 ^a p=.087
	전체 %	15.7	15.1	30.9		5.8	6.9	12.7	
② 국공립유치원	빈도	68	54	122		33	30	63	
	전체 %	5.6	4.5	10.1		2.7	2.5	5.2	
③ 가정·민간 어린이집	빈도	131	101	232		255	194	449	
	전체 %	10.8	8.4	19.2		21.1	16.1	37.2	
④ 기타어린이집	빈도	5	1	6		6	3	9	
	전체 %	0.4	0.1	0.5		0.5	0.2	0.7	
⑤ 직장어린이집	빈도	23	23	46		14	10	24	
	전체 %	1.9	1.9	3.8		1.2	0.8	2.0	
⑥ 사립유치원	빈도	87	44	131		134	61	195	
	전체 %	7.2	3.6	10.8		11.1	5.0	16.1	
⑦ 반일제 이상 학원	빈도	27	13	40		10	4	14	
	전체 %	2.2	1.1	3.3		0.8	0.3	1.2	
⑧ 기타 사설 학원	빈도	3	1	4		2	3	5	
	전체 %	0.2	0.1	0.3		0.2	0.2	0.4	
⑨ 본인	빈도	94	95	189		115	144	259	
	전체 %	7.8	7.9	15.6		9.5	11.9	21.4	
⑩ 배우자	빈도	3	2	5		4	2	6	
	전체 %	0.2	0.2	0.4		0.3	0.2	0.5	
⑪ 친정 부모님	빈도	14	18	32		13	10	23	
	전체 %	1.2	1.5	2.6		1.1	0.8	1.9	
⑫ 시부모님	빈도	2	0	2		1	2	3	
	전체 %	0.2	0.0	0.2		0.1	0.2	0.2	
⑬ 기타 친인척	빈도					0	1	1	
	전체 %					0.0	0.1	0.1	
⑭ 민간 돌보미(보모)	빈도	5	3	8		1	1	2	
	전체 %	0.4	0.2	0.7		0.1	0.1	0.2	
⑮ 아이 돌보미(정부)	빈도	6	8	14		1	0	1	
	전체 %	0.5	0.7	1.2		0.1	0.0	0.1	
⑯ 방문교육(미술 등) 교사	빈도	2	2	4		1	0	1	
	전체 %	0.2	0.2	0.3		0.1	0.0	0.1	
전체	빈도	660	548	1,208		660	548	1,208	
	전체 %	54.6	45.4	100.0		54.6	45.4	100.0	

■ 신혼부부의 가사 분담 및 양육 현황

-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형태별 가사 분담 비율²²⁾과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가사 분담 비율과 만족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가 가구의 가사 분담 비율은 6.37로 임차 가구(6.35)에 비해 다소 높지만 가사 분담의 만족도는 2.88점으로 임차 가구(2.90점)에 비해 낮음

[표 3-28] 맞벌이 가구의 주택소유여부별 가사 분담 비율 및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자가 가구			임차 가구		
	응답자 가사 분담 비율	응답자 배우자 가사 분담 비율	가사 분담 만족도	응답자 가사 분담 비율	응답자 배우자 가사 분담 비율	가사 분담 만족도
평균	6.37	6.37	2.88	6.35	6.35	2.90
중위수	6.00	6.00	3.00	6.00	6.00	3.00
표준편차	2.172	2.172	.616	2.169	2.169	.601
최솟값	1	1	1	1	1	1
최댓값	11	11	4	11	11	4

- 신혼부부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주요 어려움은 주택점유 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고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과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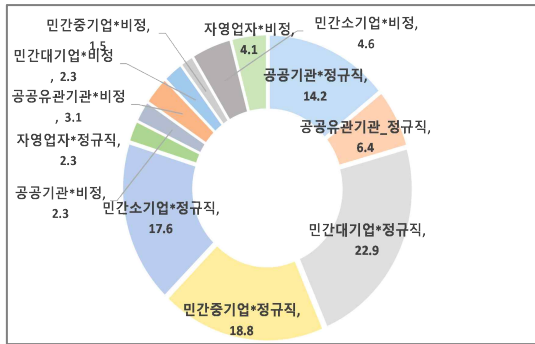
[표 3-29]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형태별 양육의 어려움 비교 (단위: 점)

구분	주요 내용	N	어려움 정도	S.D.
자가 가구	1.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660	2.80	1.45
	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660	3.04	1.61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 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660	2.17	1.36
	4.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660	3.30	1.65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660	2.82	1.55
	6.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660	4.33	1.72
임차 가구	1.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둘러싼 배우자와의 갈등	548	2.61	1.43
	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에 기인한 정서적 문제	548	3.04	1.64
	3. 학업, 취미(게임 등), 생활 습관 등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	548	2.05	1.29
	4.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시간 관리와 일과 생활 균형 유지 어려움	548	3.34	1.64
	5. 양육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문제	548	3.01	1.62
	6.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따른 신체적 고단함	548	4.37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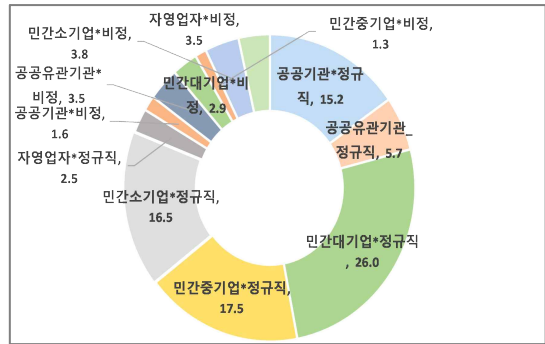
22)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가 가구의 가사 분담 비율은 평균 6.50, 가사 분담 만족도는 2.86이고 임차 가구의 가사 분담 비율은 평균 6.49, 가사 분담 만족도는 2.86

■ 출산 및 양육 휴가 사용 현황_첫 번째 직장만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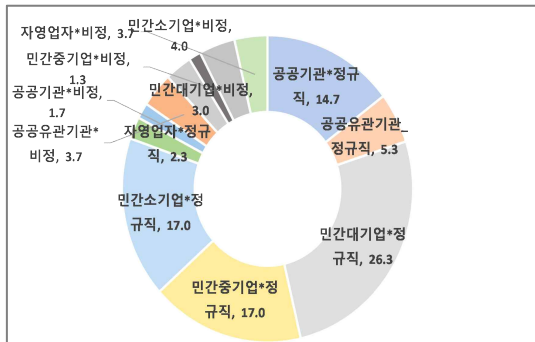
- 첫 번째 직장의 휴가 이용 비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육아휴직, 연속사용 비율은 민간 대기업 비율이 높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은 민간 소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육아휴직, 연속사용, 배우자 출산 휴가 이용은 민간 소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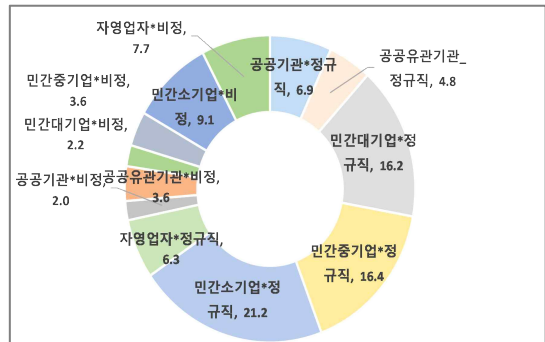
[그림 3-44] 출산 전후 사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그림 3-45] 육아휴직 이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그림 3-46] 연속사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그림 3-47]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_직장*정규/비정규비율

■ 주택 소유 형태 * 자녀 수별 양육비용 현황

- 자가주택 소유자의 첫 번째 자녀(영유아)의 연평균 양육비용은 각각 62.3만 원, 둘째는 39.3만 원, 셋째는 43.8만 원이고 임차가구의 첫 번째 자녀(영유아)의 연평균 양육 비용은 57.5만 원, 둘째는 39.3만 원, 셋째는 30.1만 원으로 나타남
- 자가 가구는 셋째 아이의 양육비용이 다시 증가하였지만, 임차 가구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양육 비용이 감소하는 양상임

[표 3-30] 자녀별 영유아 양육비용 검토

구분			자녀 나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등	사교육 비	돌봄비용 1 (조부모)	돌봄비용 2 (기타 친인척)	돌봄비용 3 (타인)	기타	총액
첫 째 아 이	자 가	평균	3.4	8.3	0.1	10.9	4.2	0.1	0.7	38.1	62.3
		중위수	3.0	4.0	0.0	0.0	0.0	0.0	0.0	30.0	52.0
		S.D.	2.6	11.2	1.2	22.8	17.4	1.9	6.3	21.9	38.8
	임 차	평균	3.0	6.1	0.2	7.4	3.9	0.4	0.9	38.7	57.5
		중위수	3.0	0.0	0.0	0.0	0.0	0.0	0.0	35.0	50.0
		S.D.	2.8	11.7	2.3	19.9	18.3	5.2	9.0	22.6	38.2
둘 째 아 이	자 가	평균	2.1	4.0	0.0	2.1	1.9	0.3	1.0	30.0	39.3
		중위수	2.0	0.0	0.0	0.0	0.0	0.0	0.0	30.0	32.0
		S.D.	2.3	6.5	0.1	8.7	11.6	3.7	11.2	15.2	23.7
	임 차	평균	2.1	4.0	0.0	2.1	1.9	0.3	1.0	30.0	39.3
		중위수	2.0	0.0	0.0	0.0	0.0	0.0	0.0	30.0	32.0
		S.D.	2.3	6.5	0.1	8.7	11.6	3.7	11.2	15.2	23.7
셋 째 아 이	자 가	평균	2.0	3.5	0.0	0.9	6.5	0.0	2.5	30.4	43.8
		중위수	1.0	0.0	0.0	0.0	0.0	0.0	0.0	30.0	30.0
		S.D.	2.7	7.6	0.0	3.3	31.3	0.0	10.5	17.8	42.0
	임 차	평균	1.4	1.8	0.0	2.0	0.5	0.0	0.0	25.8	30.1
		중위수	1.0	0.0	0.0	0.0	0.0	0.0	0.0	25.0	30.0
		S.D.	1.7	4.0	0.0	5.9	2.3	0.0	0.0	9.8	11.4

2.4 지역별 신혼부부 수와 지역별 영향 요인 분석

1) 분석 개요

- 시·군·구별 신혼부부와 주요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신혼부부 거주지역의 관련성이 있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종속변수로는 지역별 총인구수 대비 신혼부부 비율을 설정
 - 설명변수로는 산업(전체사업체 수), 교육변수(보육시설 수), 직장변수(임금 근로자), 지역변수(수도권)를 설정

2) 분석 결과

- 전국 226개 시·군·구(통계청 자료)별 총인구수 대비 신혼부부 비율과 지역별 영향 요인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함
 - 자녀 양육 변수인 보육시설 수는 정(+)의 관계를 예상하고 직장변수인 총 사업체 수도 신혼부부의 직주근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의 관계를 예상하게 되었으나 2021년은 아파트 m²당 평균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부(-)의 관계를 예상함

[표 3-31] 기본 변수의 예상 방향

변수		변수	내 용	예상 방향
종속변수		총인구수 대비 신혼부부 비율	▶228개 시군구별 총인구수 대비 신혼부부 수(세종 제외, 임금 근로자 결측)	
설명 변수	교육	▶ ln 보육시설 수	▶ 시군구별 보육시설 수	+
	직장	▶ ln 임금 근로자 수	▶ 임금 근로자 수(천명)	+
	산업	▶ ln 총사업체 수	▶ 총사업체 수	+
	지역	▶ 수도권 더미	▶ 수도권(수도권=1, 비수도권=0)	+

자료 : 통계청

[표 3-32] 기초통계량

분류		Variable	Obs	Mean	S.D.	Min	Max
종속변수		총인구대비 신혼부부 비율	228	0.038	0.010	0.020	0.072
설명 변수	직장	보육시설 수	228	144	165	1	896
	임금	임금 근로자 수	228	88,007	95,918	3,300	552,100
	산업	총사업체 수	228	26,532	24,632	1,470	114,965
	지역	수도권 더미	228	0.289	.455	0	1

-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보육시설 수, 전체사업 수, 임금 근로자 수 등 순으로 종속변수와 관계성이 높음

[표 3-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구분	총인구대비 신혼부부 비율	보육시설 수	임금 근로자	총사업체 수	수도권
총인구대비 신혼부부 비율	1.000				
보육시설 수	0.563	1.000			
임금 근로자 수	0.484	0.852	1.000		
전체사업체 수	0.504	0.908	0.844	1.000	
수도권	0.410	0.439	0.513	0.483	1.000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보육시설 수와 수도권 더미는 정(+)의 관계, 임금 근로자 수와 전체사업체 수는 부(-)의 관계를 보임

[표 3-34] 회귀분석 결과

구분	총 신혼부부 비율(총인구대비)					
	Coef.	S.E.	t	P>t	[95%Conf.Interval]	
ln보육시설수	0.010	0.001	8.06	0.00	0.008	0.013
ln임금근로자수	-0.002	0.001	-1.73	0.09	-0.005	0.000
ln전체사업체수	-0.005	0.002	-3.4	0.00	-0.008	-0.002
수도권	0.004	0.001	3.08	0.00	0.001	0.006
_cons	0.069	0.011	6.34	0.00	0.048	0.091

$R^2=0.508$ adj. $R^2=0.499$

3. 소결

- 3장에서는 2021년 통계청의 신혼부부통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일반적 가구 현황을 분석하였음
 - 2021년 신혼부부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신혼부부 수(단위: 쌍)은 109.9만 쌍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고 혼인유형별로는 초혼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재혼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2021년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0명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첫 자녀 출산 시기는 결혼 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등 순이고 양육 형태 비중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중이 높아 보육시설에 관심이 매우 높음
-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자료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부모님과 관계성, 가계 재무, 고용,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음
 -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는 가구주 나이가 29세 이하와 30~39세 이하에게서는 배우자의 동년 비율이 높지만 40~49세 이하에게서는 연하 비율이 높음(동년 비율은 제외)
 - 신혼부부 자녀는 양가 부모님과 비동거 비율이 높고 교류 비율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31.6%)이나 매일 연락(30.1%)이 높게 나타남
 - 신혼부부 양가 부모님의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현재 생계와 노후 생활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녀까지 지원할 여력은 부족한 상황임
 - 신혼부부의 취업 비율(가구주)은 68.7%, 실업/구직비율은 1.3%, 비경제활동비율은 29.9%로 나타났고, 주당 실제 평균 근로 시간은 42.3시간 정도임
 - 신혼부부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68.1%), 단독주택(13.3%), 다세대주택(12.4%) 등 순이고 MZ세대는 오피스텔과 연립주택비율이 높고 X세대는 다세대주택 비중이 높음 (아파트 제외한 경우)
 - 결혼 전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형태는 부모 등 친인척과 거주(61.2%) 등이지만 결혼 직후에는 전세 비중이 가장 높고 현재의 점유 형태는 자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액은 각각 567만 원과 384만 원이고 순자산액은 3억 2,122만 원, 이중 대출 가구는 61.9%를 차지함
 - 신혼부부 중 첫 자녀의 출산 비중은 62.4%, 둘째 자녀는 33.8%, 셋째 자녀는 3.6%, 넷째 자녀는 0.2% 순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 중 유자녀 비율은 76.2% 수준이고 이는 결혼 3년 차의 유자녀 비율

(75.0%)로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4년 차의 유자녀 비율은 84.5%로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 신혼부부의 실제 영유아 양육은 가정과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임차 가구는 자가 가구에 비해 국공립 양육시스템 이용 비율이 높고 아내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의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육시설 수, 수도권, 전체사업 수, 임금 근로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보육 시설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사업 수와 임금 근로자 수는 부(-)의 관계를 보임

제4장 신흠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성 정의와 검토

1. 주거 안정성의 조작성 정의

1.1 신흠부부 주거 안정성의 개념

1) 신흠부부의 법률적 정의

- 공공주택 특별법 19조 2[별표6의 3] <개정 2023. 8. 4.>에 따르면, 신흠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흠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흠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흠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로 한다)]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거 안정성의 조작성 정의

- 주거 안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률 규정과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개념을 적용하여 조작성으로 정의를 설정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주거 기본법 제2조 주거권의 개념을 기반으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의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라고 설정

[표 4-1]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성 정의의 주요 의미

구분	주요 내용	적용
인간다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적용
삶	인간의 출생~죽음까지의 흐름이라고 해석	▶ 가족생활주기 이론 적용
유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행동 및 이벤트로 해석	▶ 교육, 경제, 일,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하는 이벤트
주거	인간으로 살아가면 독립적인 공간	▶ 물리적 주택의 개념과 인간의 삶을 포함한 공간

- 본 연구에서는 주거 안정성의 조작성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주거 안정성에 접목하게 시키고자 함

[표 4-2]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이론	동기부여 이론 : 매슬로 욕구 단계 이론		
	가족발달 이론 : 가족생활주기 ①결혼 ②출산 ③영유아 ④학령기 ⑤청년기 ⑥중장년기 ⑦ 노년기		
정의	신 혼 부 부 : 결혼 7년 이내 자녀 연령 6세 이하		
	주거 안정성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특성	자아실현의 욕구	▶	사회 및 가정생활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욕구 - 현재 생활의 만족도,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가능 등이 주거 안정성과 관련성 등을 의미함
	자아 존중의 욕구	▶	소속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 간 갈등, 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성취감에 대한 욕구 - 자신감, 소속감, 일에 대한 만족도, 갈등 해결 등을 통해 고려하여 고용의 안정성에 관련성 등을 의미함
	소속·사랑의 욕구	▶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이는 가족 형성(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의 양육, 가족(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성별 관계 등) 간 관계성 등을 의미함
	안전의 욕구	▶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하거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욕구 - 천재지변 또는 범죄,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부터 안전, 해소 등을 의미함
	생리적 욕구	▶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주거밀도, 방의 개수, 부엌 수, 소득, 주택 등을 포함

1.2 주거 안정성의 주요 욕구와 하위 항목 간의 연관성

- 자아실현의 욕구: 욕구 단계 이론의 최상위의 단계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
 - 주거 안정성은 현재 삶의 가치에 대한 만족도로써 현재 생활의 만족도, 현재와 향후 사회적 지위 등을 측정
- 생리적 욕구: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욕구를 의미함
 - 가계 재무 건전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나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지출, 가계수지, 순자산 등으로 측정
- 안전의 욕구: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하거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욕구를 의미함
 - 거주 안전성은 기본 욕구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균형을 의미

- 소속·사랑의 욕구 :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족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사랑을 느끼는 욕구
 - 가족 관계성은 노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을 측정
 - 출산·양육 지속성 :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
- 자아 존중의 욕구 : 직장이나 가정에 발생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기는 자신감을 느끼는 욕구
 - 고용 안전성은 현재 직장에서 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대,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성취도, 학력 등을 측정

[표 4-3] 주거 안정성의 특성별 하위 지표

구분	주요 내용		하위 지표
자아실현 욕구	▶ 사회 및 가정생활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욕구 - 현재 생활의 만족도,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 가능 등이 주거 안정성과 관련성 등을 의미함	⇒	주거 안정성
자아 존중의 욕구	▶ 소속 사회 또는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성취감에 대한 욕구 - 자신감, 소속감, 일에 대한 만족도, 갈등 해결 등을 통해 고려하여 고용의 안정성에 관련성 등을 의미함	⇒	고용 안정성
소속·사랑의 욕구	▶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이는 가족 형성(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의 양육, 가족(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등) 간 관계성 등을 의미함	⇒	가족 관계성 출산·양육 지속성
안전의 욕구	▶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산을 방어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및 하거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욕구 - 천재지변 또는 범죄,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부터 안전, 해소 등을 의미함	⇒	거주 안전성
생리적 욕구	▶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주거밀도, 방의 개수, 부엌 수, 소득, 주택 등을 포함	⇒	가계 재무 건전성

1.3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판단기준 설정

-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²³⁾는 현재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및 그 밖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곤란함 없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

23) 가계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주요 항목은 유호실·양세정, 2018, “가계 재무 종합지수(HFC)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일부 항목에 착안 및 재인용하였음

고 가족 구성원의 미래 생활에 대한 대비 가능성을 측정

- 월 소득 지표 : 월 소득의 중위수로 측정하는 지표
 - 총자산 지표 : 총자산액의 중위수로 측정하는 지표
 - 가계수지비율 : 월평균 소득에서 월평균 지출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로 이는 가계 재무의 운영상 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항상 정(+)의 방향을 설정
 - 부채부담지표: 장기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총자산 대비 총부채액으로 측정
 - 부채상환지표: 단기적 부채상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월 평균소득 대비 월 원리금 상환액을 나눈 값으로 측정
 - 저축성향 지표: 월 소득액 대비 월평균 저축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위험 대비지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월 소득 대비 월 보장성 보험료로 측정
 - 슈바베지수²⁴⁾: 총지출 중 주거비²⁵⁾가 차지하는 비율로 25% 이상이면 부(-)의 관계
- 고용 안정성 : 개인과 사회 (지역 커뮤니티, 정부, 직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
- 성별 : 성별에 따른 고용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더미 변수화
 - 학력 : 학력 수준에 따른 고용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로 더미 변수화
 - 고용 형태 지표 :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더미 변수화
 - 경력 기간 : 현 직장에 근무한 경력 기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준시점을 2021년도를 기준시점으로 측정하는 지표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근로자*근로 유형별 주당 근무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임
 - 일에 대한 만족도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성취도 등에 대한 만족도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

24) “슈바베지수”의 활용은 박종호 · 이현정, 2023, “전세 및 월세 신혼 부부가구의 지역별 주거 수준 비료”, 2023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하반기 학술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활용

25) 주거비는 집세 외에 수도 · 광열비, 주택 유지 · 수선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와 연료비 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조사에게 제공한 주거비를 활용하고자 함(네이버 백과사전)

- 취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현재 취업하여 있는 직장(공간, 분위기,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
 - 전반적인 일 만족도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일에 전반적인 만족도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
 - 사회적 친분 만족도 : 직장이나 일로 인해 협력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측정
- 거주 안전성 지표²⁶⁾는 거주 주택의 물리적 상태, 입지적 요인, 소유 여부, 계약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곤궁함이 없이 안전, 편리성, 지속성을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거주 여부를 측정
- 주거밀도 : 가구원 수 대비 주택규모로 측정할 수 있고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평균 주거밀도인 27.5㎡를 적정으로 설정
 - 주택 유형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더미 변수화
 - 주택점유 형태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가와 임차로 더미 변수화
 -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 : 한 가구의 연간 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7배로 설정
 -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RIR) :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8.7%로 설정
 - 거주기간 :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년으로 설정
 -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로써 준거 가구와 평균 비교로 측정
- 가족 관계성 지표는 가정 내 노부모와 자식 세대, 부부간의 관계 (성 역할 인식, 가사일 분배) 등을 통해 소속감이나 친밀성 등을 측정
- 양가 부모님과 동거지표 : 신혼부부 자녀와 양가 부모님이 동거 또는 비동거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비동거와 동거를 더미 변수화

26)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신혼부부와 일반 가구(주거밀도)를 기준으로 설정

- 양가 부모님과과의 교류 지표 : 비동거하는 양가 부모님과 신혼부부 자녀가 월간 기준으로 몇 회 정도의 교류를 갖는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월간 평균 횟수를 비교
 -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총 현금/현물 지원지표 :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신혼부부 자녀가 지원받은 모든 현금 및 현물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값과 비교하였고 가구주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양가 부모님에게 드린 총 현금/현물 지원지표 : 양가 부모님에게 신혼부부 자녀가 지원 드린 모든 현금 및 현물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값과 비교하였고 가구주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성 역할 인식지표 : 신혼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성별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준거 가구의 평균값과 비교함
- 출산·양육 지속성 : 개인과 사회(정부, 직장, 커뮤니티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
- 출산지표 :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출산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유자녀와 무자녀로 더미 변수화
 - 양육 비용지표 : 가구의 자녀 수별 평균 양육비용을 산출하여 지표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 양육비용과 신혼부부의 평균 양육비용을 비교하고자 함
 - 정부의 양육수당지표 : 가구별 양육 수당액을 측정하는 지표
 - 양육 비용 부담지표 : 가구의 양육비용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정성적 지표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함
 - 양육비 부담 경감 지표 : 정부의 양육수당지원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정성적 지표로써 준거 가구의 평균과 비교함
 - 생리휴가 제공/사용 지표, 출산휴가 제공/사용 지표, 육아휴가 제공/사용 지표, 가족돌봄 휴가/휴직(무급) 제공*사용 지표, 보육비 지원 혜택 제공/사용 지표, 주택 마련 지원 혜택 제공/사용 지표는 직장에서의 출산 및 양육, 주택 마련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여부와 사용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표 4-4]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평가 기준 설정 I

구분		측정 지표	주요 내용	판단기준
주거 안정성 ▶ 사회 및 가정생활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함	현재 생활 삶의 만족도	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5점 척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2.60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0
		②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 (10점 척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6.15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6.15
		③ 현재 만족도 (10점 척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6.37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6.37
	향후 삶의 만족도 예상	④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5점 척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2.62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2
		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5점 척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2.64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4
① 가계 재무 안정성 ▶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곤란함 없이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		① 월 소득 지표	▶ 중위수 기준 (준거 가구 326.7만 원)	=+
		② 총자산 지표	▶ 중위수 기준 (준거 가구 20.950만 원)	=+
		③ 가계 수지 지표	▶ 월평균 지출/월평균 소득	>=.87
		④ 부채 부담지표	▶ 총부채/총자산	>=.68
		⑤ 부채상환지표	▶ 월 원리금/월 소득	>=.139
		⑥ 저축 상향지표	▶ 준거 가구의 평균	>=.197
		⑦ 위험 대비지표	▶ 월 보장보험료/월 소득	>=.104
		⑧ 슈바베지수	▶ 주거비/가계소비지출	<=0.25
		⑨ 현재 경제 상황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3.34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3.34
		⑩ 가구의 소득 만족도	▶ 준거 가구의 만족도 평균 2.9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96
② 고용 안정성 ▶ 한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		① 성별 지표	▶ 남성=1, 여성=0	남성
		② 학력 지표	▶ 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대졸 이상
		③ 고용유형 지표	▶ 정규직=1, 비정규직=0	정규직
		④ 경력지표	▶ 2021년 대비 현 직장 내 경력 기간 (준거 가구 10.4년)	10.4
		⑤ 주당 평균 시간	▶ 준거 가구의 평균 39.5시간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39.5
		⑥ 일에 대한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3.42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3.42
		⑦ 취업 안정성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2.61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1
		⑧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2.64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4
		⑨ 전반적인 일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2.61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1
		⑩ 사회적 친분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2.58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58
③ 거주 안전성 ▶ 거주 주택의 물리적 환경, 점유 형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곤궁함 없이 안전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거주 가능성 측정		① 주거 밀도지표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적용 (신혼부부: 27.5㎡ 이상)	=>27.5㎡
		② 주택 유형 지표	▶ 아파트=1, 비아파트=0	아파트
		③ 주택점유 형태	▶ 자가=1 임차=0	자가
		④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PIR)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 RIR은 6.7배	<=6.7배
		⑤ 월임대료대비 월소득비율(RIR)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신혼부부 RIR은 18.9%,	<=0.189
		⑥ 주거환경 만족도	▶ 준거 가구의 평균 2.47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47

[표 4-5]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항목별 측정 지표와 평가 기준 설정 II

구분	측정 지표	주요 내용	판단기준
④ 가족 관계성 ▶ 노부모와 자식 세대, 부부관계 (성별에 관한 인식, 가사일 분배) 등을 측정	① 부모와 동거지표	▶ 비동거=1, 동거	비동거
	② 부모와 교류 지표	▶ 월별 만남 횟수, 준거 가구 월평균 4.1/3.9회	4.1
	③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 비율	▶ 준거 가구의 평균 27.2%	
	④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린 경험 비율	▶ 준거 가구의 평균 85.8%	
	⑤ 총 현금/현물지원액(부모)	▶ 준거 가구 평균 509만 원 (양가 부모님의 합산 금액)	509
	⑥ 총 현금/현물지원액(자녀)	▶ 준거 가구 평균 252만 원 (양가 부모님의 합산 금액)	252
	⑦ 가족 관계 만족도	▶ 준거 가구의 2.3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36
	⑧ 친인척관계 만족도	▶ 준거 가구의 2.5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56
	⑨ 여가 만족도	▶ 준거 가구의 2.80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80
	⑩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	▶ 준거 가구의 2.4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46
	⑪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하다	▶ 준거 가구의 2.5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56
	⑫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준거 가구의 2.67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67
	⑬ 맞벌이 부부는 집안도 공평	▶ 준거 가구의 3.0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3.06
	⑭ 부부라도 수입 각자 관리	▶ 준거 가구의 2.21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21
	⑮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이 가계 소득 기여	▶ 준거 가구의 2.95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95
	⑯ 아내가 남편보다 더 벌면 분명히 문제 발생	▶ 준거 가구의 2.31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2.31
⑤ 출산·양육 지속성 ▶ 개인과 사회 (지역 커뮤니티, 정부, 직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	① 출산지표	▶ 준거 가구의 평균 31.2%	-
	② 양육 비용지표	▶ 준거 가구의 평균 69.3만 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69.3
	③ 양육수당지표	▶ 준거 가구의 평균 16.3만 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16.3
	④ 양육비용부담지표	▶ 준거 가구의 3.16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3.16
	⑤ 양육비용부담경감지표	▶ 준거 가구의 1.84점 (평균 미만=0, 평균 이상=1)	1.84
	⑥ 직장 생리휴가제공*사용	▶ 준거 가구의 항목별 비율과 신혼부부의 항목별 비율 비교	
	⑦ 직장 출산휴가제공*사용	▶ 준거 가구의 항목별 비율과 신혼부부의 항목별 비율 비교	
	⑧ 직장 육아휴가제공*사용	▶ 준거 가구의 항목별 비율과 신혼부부의 항목별 비율 비교	
	⑨ 직장 가족돌봄휴가/휴직(무급)제공*사용	▶ 준거 가구의 항목별 비율과 신혼부부의 항목별 비율 비교	
	⑩ 직장 주택마련지원 혜택 제공*사용	▶ 준거 가구의 항목별 비율과 신혼부부의 항목별 비율 비교	

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검토 개요

2.1 측정 지표의 검토 방향과 통계자료 설정

1)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에 관한 소고

- 연구자의 탐구심과 의구심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성에 대한 계량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통계자료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대한 통계적이고 정책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표본 수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와 다른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점임

2)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와 통계자료 연계성

■ 주요 측정 지표와 통계자료 설정

- 주거 안정성의 개념에 대한 접근은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만족도 문항과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적 자료가 결합한 형태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 주거 안정성 : 조작적 정의에 맞는 현재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등과 향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상/전망 등의 항목이 반영된 변수를 설정
 - 가계 재무 건전성: 소득에 대한 만족도, 현 경제 상황 진단 등의 항목 포함
 - 고용 안정성 : 성별, 학력, 일과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 포함
 - 거주 안전성: 주거밀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의 항목 포함
 - 가족 관계성 :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 만족도, 여가 만족도 등의 항목 포함
 - 출산·양육 지속성 : 직장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지원 등의 항목 포함
-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의 주요 통계자료의 내용을 [표 4-8]과 같이 검토한 후 노동패널 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4가지 유형의 통계조사 자료는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어 혼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활용성 및 적용도가 높은 자료로 설정하였음
 - 노동패널조사자로 내 주거와 관련한 항목은 이사 여부와 원인, 변경된 사항, 거주기간, 현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자가주택 시가, 전월세보증금, 월세 또는 사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제한적임

[표 4-6]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별 통계자료 적용 항목 비교

구분	가계 재무 안정성	거주 안전성	고용 안전성	가족 관계성	출산양육 지속성
주거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주택 자산 등 ▶총부채, 금융기관대출금, 비금융기관대출금, 임대보증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사회보험수혜금, 정부 보조금, 사적 이전소득, 월평균 경상소득 월평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현재, 향후 주택 유형, 점유, 규모, 지역, 주거 이동분석 등 ▶주택 품질/주거환경 만족도, 임차인의 정신적 불안감, ▶국민임대주택, 주거 정책에 대한 효과, 주택 개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여부, 지난주일 종류 ▶근무 형태, 고용 형태, ▶정규/시간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구성,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여부, 아동과 청소년끼리 사용 몇 명 사용, 아동이나 청소년 사용 때 위생 문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남편/아내의 부모님과 동거 계획과 이유, 육아를 위한 필요시설 ▶가족 계획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등
가족과 출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 부채, 월평균 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 근로 소득(세전) 및 사업소득, 재산, 금융, 개인 금융 소득(월평균), ▶공적 이전 소득 (월평균), 사적 이전 소득 (월평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자가주택 시기, 전세 / 월세 보증금, 월세 또는 사글세, 임대주택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여부, 취업 의향 여부, 주당 실제 근로 시간,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월평균), 직종, 업종, 직장 유형, 종사상지위, 정규직, 시간제, 노동 시간 의향, ▶현 직장에 취업한 (사업 시작) 시기, 정규직 여부, 일자리유형, 월 입사 시 임금, 월 퇴사 시 임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 자녀(부모생존 여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 존재 여부, 부모의 현재 경제적 상황, 일상대화 상대 등 ▶가구주 부모: 생존, 최종학력, 현재 직업, 부부관계(부모의 역할,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역할 등 ▶비혼 가구에 대한 분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 피임·임신 횟수, ▶출생아 수, 사망자녀수, 난임 여부,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의견, 모유 소유, 자녀에 대한 태도 ▶이상적인 자녀 수, 자녀 유무에 대한 의견, 사회에 대한 신뢰도, 기관에 대한 신뢰 등
노동 패널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 경상소득, 작년 한해 소득, 작년 근로 소득, 금융 소득 저축액,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지출, 지난해 총지출 ▶전반적인 가계 경제 상황, 가계에 부담스러운 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여부 &이유 ▶현 주택 유형, 점유 형태, 규모 ▶시가, 전월세보증금, 월세 ▶거주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된 일자리) 정규직/비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불안정성 이유 등 ▶실제 근무 시간 축소 여부 ▶직장에서 제공 여부/사용 여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 자녀 세대(부모생존 여부, 비동거 부모님 존재 여부와 연락 빈도, 부모와 자식 간의 현금 현물 지원 여부, 부모의 현재 경제적 상황, ▶별거 자녀와 부모 관계_현금/현물 지원, 연락 빈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관련 변화시기 ▶양육비용, 아이사랑카드 사용 여부 0세-미취학 이하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수당 받고 있는지, 월평균 받는 양육수당 금액(만), 정부의 보육 및 자녀 양육비 지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 등
재정 패널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월평균 가구 지출 등 ▶부채 현황, 부채 유무 정부 지원 주택 자금 대출 등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여부 등 ▶교육비,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고령층 정부 지원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 말 기준 주택 형태, 거주 형태, 주택가격 ▶작년 초 공시가격, 거주 주택의 취득 연도, 단독명, 공동명, 비가 구원 공동 명의자 수, 재산세 고지 금액 ▶전월세보증금, 거주 주택 외의 소유주택, 주거환경 만족, 종부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주된 일자리 - 기관 종류, 종사자 수, 취업 형태, 종사상지위 근무 시간 형태, 정규근무 시간 유무, 초과 근무 시간 유무, 초과 근로 시간 수당 금액 월평균 근로 일수 및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양육 지원금, 지원금 세부 내용, 수급 개월 수, 월평균 수급액, 연수급총액 ▶출산 관련 지원금, 출산 관련 지원금 세부 내용, 출산 관련 지원금 연간수급 총액, ▶아동수당 수급 가구원 존재 여부 수급, 개월 수 연간수급 총액, 미 수급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 가구원 성별, 출생 연도, 거주지역, 최종학력 졸업 여부, 연간 소득 유무 금액, 혼인 관련 비용 주된 마련 방식 ▶체외수정 인공수정 비용, 산후조리원비용,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 출산 형태 등

출처 : *)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4차 노동패널 조사, *)한국재정연구원, 14차 재정 패널 조사

3) 측정 지표의 검토자료 개요

■ 측정 지표의 검토자료

- 본 연구에서는 제24차 노동패널 조사(2021년)를 활용
 - 노동패널조사 (KLIPS) 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 표본 구성원 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현재, 25차 조사를 진행 중임)
 - KLIPS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한 가구용 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용 자료로 구분됨

[표 4-7] 24차 노동패널조사자료의 개요

구분	24차 노동패널조사
표본틀	▶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10% 표본 조사구인 전국의 21,938 조사구 중에서 제주도의 263 조사구와 군부 지역 2,650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 도시지역(시의 동부 17,353 조사구와 시의 읍면부 1,672 조사구) 19,025 조사구로 선정
모집단	▶ KIPS 표본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15세 이상 개인 (제주도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 거주자 구(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
완료 표본 규모	가구: 11,639가구, 개인: 22,958명
조사 자료 구성	▶ 가구 자료 : 모든 조사 연도별로 만들어지며 가구 조사용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 ▶ 개인 자료 : 모든 조사 연도별로 만들어지며, 유형 설문지, 취업자와 미취업자 개인 설문지, 신규조사자용 설문지 등을 토대로 구성 ▶ 부가 조사자료 : 3차~4차 연도 자료와 6차~11차 연도 자료, 17차~24차 연도 자료에 포함되며, 부가 조사 설문지를 토대로 구성 ▶ 직업력 자료 : 직업력 자료는 유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된 개인의 모든 직업력 (work history)를 누적한 형태의 자료이므로 다른 자료들과는 달리 연도별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자료만이 존재

출처: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2021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는 본 연구 주제인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에 적합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여 설정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약도 존재하였음
 - 노동패널조사자료는 주로 일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한 사항은 핵심적인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주거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함

[표 4-8] 24차 노동패널자료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항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사항 ■ 가족 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 주거 관련 사항 ■ 자녀 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사항 ■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시 일자리 응답 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 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의 종사상지위와 현재 지속 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 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 관련 사항 ■ 근로 시간 관련 사항 ■ 임금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사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 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 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 관련 사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창업 과정의 어려움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상태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직무만족도 ■ 구직 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 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정규교육 관련 사항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종교 및 종교활동(12차 연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근로 시간 관련 사항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사회보험 수급 관련 사항 ■ 혼인상태 ■ 고용 형태 ■ 성 역할 인식(24차 이후)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상태 ■ 구직 활동, 구직 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 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 정규 교육 관련 문항 ■ 혼인 상태 ■ 생활 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 종교 및 종교활동(12차년도 이후) ■ 성 역할 인식(24차 이후) 	

출처: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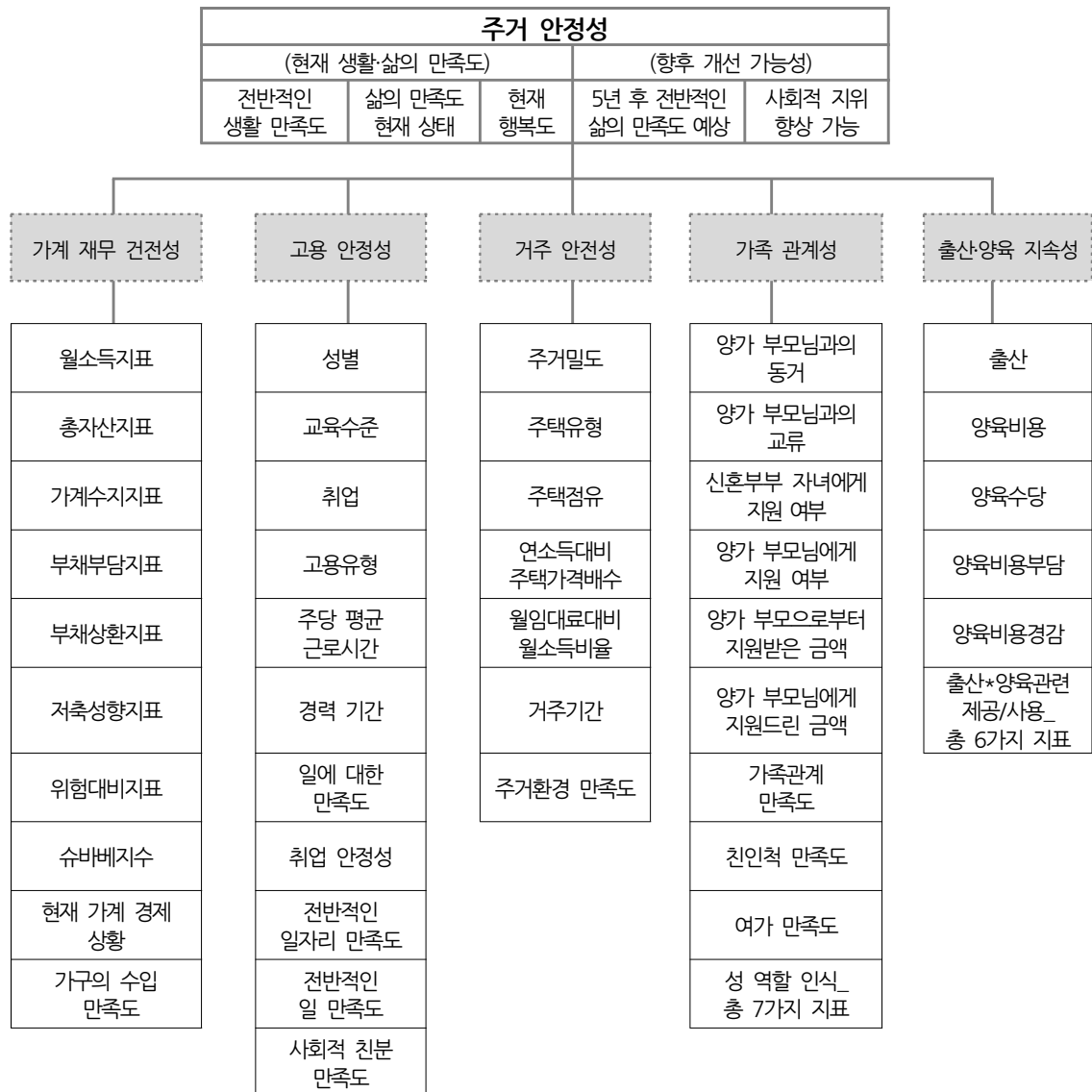
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와 측정 지표 검토

3.1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 구성

1) 주거 안정성에 대한 체계도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는 5가지의 특성과 56가지의 측정 지표로 구성

[표 4-9]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2) 주거 안정성의 준거 가구 설정

-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가구와 가구원 자료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준거 가구와 표본 가구를 설정하여야 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신혼부부는 총 133가구이고 이들 가구 중 가구주 비율은 90.2%,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은 9.8 %로 나타남
 - 따라서 준거 가구의 설정은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만 설정하였고 가구원 자료 분석 시 개별 가구의 대표자 순서는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로 설정함

[표 4-10] 신혼부부의 가구원 분포

가구와의 관계	가구주	가구주 배우자	전체
빈도	120	13	133
전체 %	90.2	9.8	100.0

3.2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1) 주거 안정성의 검토 결과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²⁷⁾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는데 각 항목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패널자료의 항목에서 도출하였음
 - 현재 삶이나 생활 만족도 항목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항목,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 항목, 현재 만족도 항목으로 검토하였음
 - 향후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에는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항목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항목으로 검토하였음
- 현재 신혼부부는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와 「현재 만족도」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

27)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와 “현재 만족도”는 10점 척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항목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는 5점 척도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60점, 신혼부부는 2.29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31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7.8%로 나타나 본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이지 않음
-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6.15점이고 신혼부부는 7.04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89점이 높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70.7%로 나타나 본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현재 행복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평균 만족도는 평균 6.15점이지만 신혼부부는 7.47점으로 나타나 1.09점이 높은 상황임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82.7%로 나타나 본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향후 삶에 대한 만족도 예상“ 에서는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62점, 신혼부부는 2.21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41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1.1%로 이어서 긍정적이지 않음
 -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64점, 신혼부부는 2.53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11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5.9%로 이어서 긍정적이지 않음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5가지 측정 지표 검토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낮지만 삶의 만족도 현재 상태와 현재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표 4-11]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점, %)

구 분		준거 가구		신혼부부		신혼부부 비율(%)	
		N	평균	N	평균	준거 가구 평균 이상	준거 가구의 평균 미만
현재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8,326	2.60	133	2.29	27.8	72.2
	삶의 만족도 현재 상황	18,323	6.15	133	7.04	70.7	29.3
	현재 행복도	18,326	6.37	133	7.47	82.7	17.3
향후	5년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예상	18,327	2.62	133	2.21	21.1	78.9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18,326	2.64	133	2.53	45.9	54.1

2) 주거 안정성의 하위 특성별 검토 결과

■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검토

○ 신혼부부는 연평균 월 소득액과 총자산액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가계 수지 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고,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지표는 높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부채관리가 필요함

- 월 소득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월 소득(중위수 기준)은 410.8만 원, 신혼부부의 월 소득(중위수 기준)은 599.5만 원으로 나타남
- 총자산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총자산 지표(중위수 기준)는 20,950.0만 원, 신혼부부는 22,000.0만 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많음
- 가계수지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가계수지지표는 평균 86.8% 신혼부부는 80.7%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14.6%로 나타남
- 부채 부담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부채 부담지표는 평균 69.3%, 신혼부부는 58.6%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75.6%로 나타남
- 부채 상환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부채 상환지표는 평균 13.9%, 신혼부부는 13.8%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0.6%로 나타남
- 저축 성향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저축 성향지표는 평균 19.7%, 신혼부부는 30.3%로 준거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4.1%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위험 대비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위험 대비 비율은 평균 10.4%, 신혼부부는 11.1%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8.2%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슈바베지수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슈바베지수는 각각 10.1%와 9.3%로 나타남
- 신혼부부 중 슈바베지수의 적정 비율(25.0%) 이상인 비율은 5.1%로 나타나 신혼부부 중 주거비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가계 경제 상황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3.34점, 신혼부부는

3.12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22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17.3%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가족의 수입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96점이고 신혼부부는 2.71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25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62.4%로 나타나 긍정적임

[표 4-12]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점, %)

구 분	N	준거 가구		N	신혼부부		신혼부부 비중(%)	
		평균	비율		평균	비율	준거 가구 평균 이상	준거 가구 평균 미만
월 소득 지표(중위수)	11,556	326.7		123	502.5			
총자산 지표(중위수)	11,459	21,500		133	22,000			
가계 수지 지표	11,556	0.9		123	0.8		14.6	85.4
부채 부담지표	4,616	0.7		79	0.5		13.0	87.0
부채 상환지표	3,603	13.9		68	13.8		20.6	79.4
저축성향 지표	7,376	19.7		123	30.3		34.1	65.9
위험 대비지표	102	10.4		85	11.1		28.2	71.8
슈바베지수	148	10.1		123	9.3		5.1	94.9
현재 가계 경제 상황	11,636	3.34		133	3.12		17.3	82.7
가족의 수입 만족도	18,324	2.96		133	2.71		62.4	37.6

■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경우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대졸 이상 비율과 정규직 비율, 일에 대한 만족도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전반적인 일 등의 만족도에서는 낮은 수준
 - 성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남성과 여성 비율은 46.3%와 53.7%, 신혼부부 중 남성과 여성 비율은 77.4%와 22.6%로 나타남
 - 학력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64.6%지만, 신혼부부 중 대졸 이상 비율은 71.4%로 준거 가구에 비해 높음
 - 취업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취업 비율은 평균 60.1%이고, 신혼부부의 취업 비율은 86.5%로 나타남
 - 고용유형 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정규직 비율은 평균 61.6%이고 신혼부부는 80.0%로 나타남

- 경력 기간 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경력 기간은 평균 10.4년이고 신혼부부의 경력 기간은 평균 5.3년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39.5시간이지만 신혼부부는 27.4시간으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3.7%로 나타남
- 고용 안정성과 연관된 만족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취업의 안정성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인 일 만족도, 사회적 친분 만족도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일에 대한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3.42점이지만 신혼부부는 3.59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17점이 높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59.1%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임
 - 취업 안정성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61점, 신혼부부는 2.38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23점이 낮은 편임
 - 신혼부부 중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비율은 38.3%로 취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2.64점이고 신혼부부는 2.47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17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6.1%로 나타나 긍정적임
 - 전반적인 일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61점이고, 신혼부부는 2.43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18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1.7%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사회적 친분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58점, 신혼부부는 2.38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20점이 낮음
 - 신혼부부 중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비율은 39.1%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표 4-13]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m², 점, %)

구 분		N	준거 가구		N	신혼부부		신혼부부 비중(%)	
			평균	비율		평균	비율	준거 가구 평균 이상	준거 가구 평균 미만
성별	남성(%)	18,367		46.3	133		77.4		
	여성(%)			53.7			22.6		
학력	고졸 이하(%)	18,367		48.9	133		28.6		
	대졸 이상(%)			64.6			71.4		
고용 유형	정규직(%)	7,735		61.6	100		80.0		
	비정규직(%)			38.4			20.0		
취업	취업(%)	18,367		60.1	133		86.5		
	비취업(%)			39.4			13.5		
경력 기간 지표		10,926	10.4		120	5.3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지표		6,890	39.5		86	27.4		33.7	66.3
일에 대한 만족도		11,029	3.42		115	3.59		59.1	40.9
취업 안정성		11,029	2.61		115	2.38		38.3	61.7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1,030	2.64		115	2.47		46.1	53.9
전반적인 일 만족도		11,030	2.61		115	2.43		41.7	58.3
사회적 친분 만족도		18,325	2.58		133	2.38		39.1	60.9

■ 거주 안전성²⁸⁾의 측정 지표 검토

- 신혼부부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중 주택 점유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 주택 유형,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 주거 환경 만족도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편임
 - 주거밀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평균 주거밀도는 36.6㎡, 36.5㎡로 나타났고 신혼부부 중 주거밀도(27.5㎡) 이하인 비율은 23.7%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4.2%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주택 유형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46.8%와 43.6%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주택점유 형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와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은 38.4%와 57.1%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높음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PIR)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5.8배(중위수)이고 신혼부부는 4.0배(중위수)로 나타났고 신혼부부 중 PIR(6.7배, 중위수)이하인 비율은 71.2%로 나타남

28) 거주 안전성은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신혼부부 적용)를 활용하여 검토하였음. 주요 적용항목은 다음과 같음. 자가 비율 43.9%, 아파트 거주 비율 72.5%, 주거밀도 27.5㎡, PIR 6.7배, RIR 18.9%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5.8%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RIR)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15.9%(중위수), 신혼부부는 16.3%(중위수)이고 신혼부부 중 RIR(18.9%) 이하인 비율은 58.0%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3.2%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음
- 주거환경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47점이고 신혼부부는 2.34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14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0.1%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표 4-14]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m², 점, %)

	N	준거 가구		N	신혼부부		신혼부부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주거밀도	4,246	36.6		76	36.5		34.2	65.8
주택유형 지표	11,639		46.8	125		43.6		
주택점유 지표	11,639		38.4	125		57.1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 (PIR, 중위수)	425	15.8		52	5.6		5.8	94.2
		5.8 (중위수)			4.0 (중위수)		71.2 (중위수이하)	28.8 (중위수초과)
월소득대비 월임대료비율 (RIR, 중위수, 18.9% 적용)	3,680	27.2 (평균)		69	44.0		23.2	76.8
		15.9 (중위수)			16.3 (중위수)		58.0 (중위수이하)	42.0 (중위수초과)
주거 환경 만족도	18,324	2.47		133	2.34		30.1	69.9

■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검토

- 부모님과 비동거하는 신혼부부 비율은 평균 75.9%(양가 부모님), 방문 횟수는 월평균 3.2회 정도이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을 드리는 비율은 각각 40.1%, 76.1%로 지원 드리는 비율이 높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더 큼
- 부모님과의 동거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가구주 부모님과의 비동거 비율은 40.9%(배우자 부모님 51.4%), 신혼부부의 가구주 비동거 비율은 74.2%(배우자 부모님 77.5%)로 나타남
- 가구주 부모님과의 교류 횟수 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월평균 4.1회(배우자 부모님, 3.9회) 정도 방문하였고 신혼부부는 3.6회(배우자 부모님, 2.7회) 정도임
-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험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경험 있는 비율은 평균 27.2%, 신혼부부는 40.1%로 나타남

-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린 경험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양가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리는 비율은 평균 85.6%, 신혼부부는 76.1%로 나타남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부모님(양가 합산)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2021년, 현금 기준)은 연평균 509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3,305만 원을 지원받음(신혼부부는 주택/결혼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
 - 부모님에게 지원해드린 금액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부모님(양가 합산)에게 지원해드린 금액(2021년, 현금 기준)은 연평균 252만 원, 신혼부부는 192.0만 원임
- 신혼부부의 가족관계만족도는 친인척 만족도와 여가 만족도에 비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가족관계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36점, 신혼부부는 2.14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22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17.3%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친인척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56점, 신혼부부는 2.41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15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9.8%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여가 만족도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2.80점, 신혼부부는 2.52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28점이 낮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8.1%로 나타나 긍정적이지 않음
- 성(性) 역할²⁹⁾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 등 2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동의하는 의견임

[표 3-15] 신혼부부의 성 역할 항목에 대한 의견 결과

구 분	동의	비동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 ■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어야 가정 소득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 ▶ 아내가 남편보다 더 벌면 분명히 문제 발생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 ▶ 부부라도 수입 각자 관리 ▶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29) 성 역할 인식에 만족도 척도는 1~4점임

-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46점이지만 신혼부부는 준거 가구보다 0.23점이 낮은 2.23점으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3.8%로 나타나 본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임
-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하다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56점이지만 신혼부부는 평균 2.65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12점이 높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57.1%로 본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임
- 취학 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67점, 신혼부부는 2.55점으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7.4%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의견임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하다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3.06점이고 신혼부부는 준거 가구에 비해 0.09점이 높은 3.15점으로 나타남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27.8%로 나타나 본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임
- 부부라도 수입 각자 관리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21점이지만 신혼부부는 2.31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10점이 높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2.3%로 나타나 본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임
-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 기여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95점이지만 신혼부부는 3.07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에 비해 0.12점이 높음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82.0%로 본 항목에 동의하는 의견임
- 아내가 남편보다 더 벌면 분명히 문제 발생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31점, 신혼부부는 2.17점으로 준거 가구에 비해 0.14점이 낮은 편임
-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31.6%로 본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임

[표 4-16]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만원, 횟수, 점, %)

구 분			N	준거 가구		N	신혼부부		신혼부부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이상	평균 미만
양가 부모	비동거	가구주 부모	11,563		40.9	120		74.2		
		배우자 부모	7,520		51.4	111		77.5		
	교류	가구주 부모	2,062	4.1		89	3.6			
		배우자 부모	1,629	3.9		51	2.7			
지원 여부	부모to자녀	가구주 부모 도움받음	4,729		27.4	89		39.4		
		배우자 부모 도움받음	3,867		27.0	86		40.7		
	자녀to부모	가구주 부모 도움드림	4,729		84.5	89		76.6		
		배우자 부모 도움드림	3,867		87.0	86		75.6		
지원금액	부모to자녀	가구주 부모 도움받음	1,296	현금 356 (현물 96)		34	현금 2,751 (현물 147)			
		배우자 부모 도움받음	1,046	현금 153 (현물 76)		35	현금 553 (현물 180)			
	자녀to부모	가구주 부모 도움드림	3,994	현금 138 (현물 31)		69	현금 104 (현물 30)			
		배우자 부모 도움드림	3,366	현금 114 (현물 30)		65	현금 88 (현물 40)			
가족관계 만족도			18,324	2.36		133	2.14		17.3	82.7
친인척 만족도			18,325	2.56		133	2.41		39.8	60.2
여가 만족도			18,323	2.80		133	2.52		48.1	51.9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			18,288	2.46		133	2.23		33.8	66.3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함			18,280	2.56		133	2.65		57.1	42.9
취학전 자녀를 둔 여자가 일을 하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18,276	2.67		133	2.55		47.4	52.6
맞벌이부부는 집안 일도 공평함			18,280	3.06		133	3.15		27.8	72.2
부부라도 수입 각자 관리			18,278	2.21		133	2.31		32.3	67.7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 기여			18,279	2.95		133	3.07		82.0	18.0
아내가 남편보다 더 벌면 분명히 문제 발생			18,274	2.31		133	2.17		31.6	68.4

■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검토

-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됨

- 출산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 비율은 31.2%, 신혼부부의 출산 비율은 5.3%로 나타남
- 양육 비용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양육비용은 연평균 69.3만 원, 신혼부부는 47.7만 원으로 나타나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7.7%임
- 양육수당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의 연평균 양육비용은 16.3만 원, 신혼부부는 18.0만 원으로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41.0%로 나타남
- 양육 비용부담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3.73점, 신혼부부는 3.83점으로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55.3%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됨
- 양육 비용경감지표 항목의 경우 준거 가구는 평균 2.10점, 신혼부부는 2.22점으로 준거 가구의 평균 이상인 신혼부부 비율은 71.1%로 나타나 양육비 경감에 긍정적임
- 직장에서 제공되는 직접적인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지원 제도 중 사용 비율이 높은 제도는 가족 돌봄 휴가/휴직제도, 육아 휴가제도, 출산휴가제도로 나타남
 - 생리휴가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으로부터 생리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17.0%(이중 사용 비율은 17.5%, 미사용 비율은 82.4%)이고, 미제공 비율은 67.0%, 모름 16.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생리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13.3%(이중 사용 비율은 33.4%, 미사용 비율은 65.6%)이고 미제공 비율은 79.2%, 모름은 7.5%로 나타남
 - 출산휴가 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으로부터 출산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51.0%(이중 사용 비율은 74.5%, 미사용 비율 25.5%)이고, 미제공 비율은 39.0%, 모름 16.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30.0%(이중 사용 비율은 63.5%, 미사용 비율은 25.5%)이고 미제공 비율은 63.4%, 모름은 6.0%로 나타남
 - 육아휴가 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으로부터 육아휴가를 제공받는 비율은 43.0%(이중 사용 비율은 76.7%, 미사용 비율은 23.3%), 미제공 비율은 45.0%, 모름은 11.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육아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30.6%(이중 사용한 비율은 74.7%, 미사용한 비율은 25.3%), 미제공한 비율은 63.5%, 모름은 5.9%로 나타남
 - 가족 돌봄 휴가/휴직(무급) 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으로부터 가족 돌봄 휴가/휴직을 제공받는 비율은 18.0%(이중 사용 비율은 100.0%), 미제공 비율은 64.0%, 모름은 18.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제공받은 비율은 14.3%(이중 사용 비율은

63.5%, 미사용 비율은 25.5%)이고 미제공 비율은 75.3%, 모름은 10.3%로 나타남

- 보육비 지원 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에서 보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5.0% (이중 사용 비율은 80.0%, 미사용 비율은 20.0%), 미제공 비율은 89.0%, 모름 6.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보육비 지원을 제공받은 비율은 30.0%(이중 사용 비율은 63.5%, 미사용 비율은 25.5%), 미제공 비율은 63.4%, 모름은 6.0%로 나타남
- 주택 마련 지원 제공*사용 항목의 경우 신혼부부 중 직장에서 주택 마련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5.0%(이중 사용한 비율은 100.0%), 미제공한 비율은 92.0%, 모름 3.0%로 나타남
- 준거 가구 중 직장에서 주택 마련 지원을 제공받은 비율은 5.1%(이중 사용 비율은 88.8%, 미사용 비율은 11.2%), 미제공 비율은 91.8%, 모름은 3.1%로 나타남

[표 4-17]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단위: 점, 만원, %)

		N	준거 가구						N	신혼부부						신혼부부	
			평균		비율					평균	비율	비율				평균 이상 (%)	평균 미만 (%)
			값	비율	제공* 사용	제공* 미사용	미제공	모름				제공* 사용	제공* 미사용	미제공	모름		
출산		12,875		30.7					133		5.3						
양육비용		2,531	69.3						39	47.7						7.7	92.3
양육수당		253	16.3						39	18.0						41.0	59.0
양육 비용부담		1,042	3.16						36	3.83						55.3	44.7
양육 비용경감		1,042	1.84						36	1.94						71.1	28.9
생리 휴가	제공	7,740			13.3		79.2	7.5	100			17.0		67.0	16.0		
	사용	1,032			33.4	65.6			17			17.5	82.4				
출산 휴가	제공	7,740			30.7		63.5	5.9	100			51.0		39.0	16.0		
	사용	394			77.6	22.4			51			74.5	25.5				
육아 휴가	제공	7,740			30.6		63.4	6.0	100			43.0		45.0	11.0		
	사용	2,368			74.7	25.3			43			76.7	23.3				
가족 돌봄 휴가 / 휴직	제공	7,740			14.3		75.3	10.3	100			18.0		64.0	18.0		
	사용	1,110			85.0	15.0			18			100.0					
보육 비 지원	제공	7,740			5.7		90.5	3.8	100			5.0		89.0	6.0		
	사용	439			76.1	23.9			5			80.0	20.0				
주택 마련 지원	제공	7,740			5.1		91.8	3.1	100			5.0		92.0	3.0		
	사용	394			88.8	11.2			5			100					

3. 소결

- 4장에서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을 제시하였고 주거 안정성의 5가지 특성과 56가지의 측정 지표들을 검토하여 주거 안정성에 대한 체계도를 구축하였음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검토 결과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재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회적 지위 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
 -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월소득액과 총자산액(중위수 기준)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계수지지표와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기 부채관리가 필요
 -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학력 수준(대졸 이상)과 고용 유형 등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전반적인 일 만족도 등에서는 낮은 수준임
 -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점유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와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편임
 -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 중 40% 정도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인척 만족도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함
 -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되고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중 사용 비율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 및 주택 마련 지원, 보육비, 육아휴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1.1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 배경

- 4차 정보화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요인들의 발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인식과 환경의 변화가 발생
- 인문사회적 환경변화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결혼 후 여성 중심의 가사·육아 전담이 지속되고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양상을 보임
- 학술적 측면의 경우, 신혼가구의 주거와 출산/양육 문제는 종합적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된 주요 특성 및 측정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임
- 동기부여 이론 및 가족 발달이론의 고찰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5가지 하위 특성과 측정 지표를 설정하고자 함

■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설정을 위한 이론과 선행 연구 검토

- 주거 안정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접목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특성을 설정하였으며, 측정 지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음
 - 매슬로의 욕구 단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사랑의 욕구, 자아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와 5가지의 주요 특성을 설정하고자 하였음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요인들은 가족관계, 가계 재무, 주거, 고용, 출산 및 양육에 관련 된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였음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과 가족생활 이론을 접목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을 제시하였고 주거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 개념과 지표들을 검토하여 주거 안정성에 대한 체계도를 구축하였음

[표 5-1]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 및 특성

구분	주요 내용			
이론	동기부여 이론 : 매슬로 욕구단계론			
	가족 발달이론 : 가족생활(생애)주기			
정의	신 혼 부 부 : ▶ 결혼 7년 이내이거나 자녀 연령 6세 이하			
	주거 안정성 : ▶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특성	자아 실현의 욕구	▶	현재까지 사회 및 가정생활을 통해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 - 현재 생활의 만족도,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이에 포함됨	⇒ 주거 안정성
	자아 존중의 욕구	▶	소속 사회 또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 일에 대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성취감에 대한 욕구 - 자신감, 소속감, 일에 대한 만족도, 갈등 해결 등을 통해 소속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부심 등이 이에 포함됨	⇒ 고용 안정성
	소속사랑의 욕구	▶	개인이 느끼는 소속감 또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이는 가족 형성(결혼, 자녀 출산 등), 가족의 양육, 가족(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등)간 관계성 등을 의미함	⇒ 가족 관계성 출산양육 지속성
	안전의 욕구	▶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욕구 - 천재지변 또는 범죄, 인간관계의 갈등 등에서 벗어나 느끼는 해방감 또는 해소되는 느낌 등을 의미함	⇒ 거주 안전성
	생리적 욕구	▶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 - 주거밀도, 방의 개수, 소득, 주택 등을 포함	⇒ 가계 재무 건전성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와 측정 지표 검토

- 주거 안정성의 체계도는 5가지 특성과 56개의 측정 지표로 구성되었음
-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의 경우, 신혼부부는 현재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회적 지위 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음

[표 5-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 체계도



■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하위 특성과 측정 지표 검토

- 가계 재무 건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월소득액과 총자산액(중위수 기준)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가계수지지표와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장기 부채관리가 필요
- 고용 안정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학력수준(대졸 이상)과 고용유형 등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전반적인 일 등의 만족도에서는 낮은 수준

- 거주 안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점유 비율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 월임대료대비 월소득비율,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가족 관계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 중 40% 정도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인척 만족도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함
- 출산·양육 지속성의 측정 지표 경우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되고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중 사용 비율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 및 주택 마련 지원, 보육비, 육아휴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3]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측정 지표별 검토 결과 및 시사점

구 분	주요 내용	시사점
주거 안정성	▶ 신혼부부는 현재 생활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사회적 지위 변화 가능성이 낮은 수준임	■ 단기적 정책 대응 방안 마련보다는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신혼부부의 장래에 대한 기대감 회복 필요
가계 재무 건전성	▶ 신혼부부의 월소득액과 총자산액(중위수 기준)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가계수지지표와 부채상환지표는 낮지만 부채부담지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높아 장기적인 부채관리가 필요	■ 신혼부부의 장기적 부채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월임대료대비 월소득비율이 높은 임차 가구를 위한 차등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
고용 안정성	▶ 신혼부부는 고용 안정성과 관련성이 높은 학력 수준(대졸이상)과 고용 유형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전반적인 일자리와 일 만족도 등에서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일자리와 일 만족도 및 사회적 친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직장 내 상담제,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직장의 노력도 필요
거주 안전성	▶ 신혼부부의 주택 점유 비율은 준거 가구에 비해 높지만, 주거밀도,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서는 준거 가구에 비해 낮은 편임	■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저렴한 오피스텔과 연립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쉽게 주거 사다리나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필요
가족 관계성	▶ 신혼부부 중 40% 정도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만 가족관계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총 7가지의 성 역할 항목 중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 관계가 평등하다”와 “남자와 여자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 소득 기여한다” 항목에서만 동의함	■ 가족관계 만족도는 친인척 만족도에 비해 낮은 편이라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 필요한 상황 ■ 성 역할 인식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점진적 성 역할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출산양육 지속성	▶ 신혼부부의 양육비용은 가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양육비 경감 지원으로 인해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음 ▶ 직장에서 제공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중 사용 비율은 가족 돌봄 휴가/휴직과 주택 마련 지원, 보육비, 육아휴가 등의 순으로 높음	■ 신혼부부의 양육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차등화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제시 및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 직장에서는 직원들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의 제공이 시급하고 공공에서는 경영성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

1.2.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에 대한 개선 방향

1) 주거 안정성의 개념 확장 필요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개념은 물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 또는 가치 추구” 등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확장 중
 - 주거기본법 제2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물리적 측면만을 고려 중
- 따라서 주거 안정성의 개념을 “주거”에 한정시켜 물리적·공간적 정책지원에 국한되기보다는 인간의 삶 차원에서 바라보는 주거 안정성의 개념으로 개편하여 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면, 광의의 주거 안정성(가족·경제·물리·사회적 접근)과 협의의 주거 안정성(물리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학술적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주거 안정성에 대한 정의를 설정해야 할 것임

2) 주거 안정성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강화 및 신규 개발 필요

- 주거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확장된 주거 안정성의 개념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기존 통계자료의 강화, 타 기관의 통계자료와의 연계성 검토 또는 주거와 관련한 패널자료의 구축을 검토 필요
 - 본 연구에서 검토한 통계자료는 가계 조사자료(소득·지출),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자산 중심), 주거실태조사(주거 중심), 가족과 출산(출산과 양육 중심), 노동 패널자료(노동 중심), 재정 패널 조사(세금 중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향 검토

3)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택구매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 지원 대책 등과 같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상황
 - 공공주택의 특별 공급 시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지원이 지원 대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어 기초 연구로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 고찰과 통계자료를 활용하기에는 시간과 연구 인력에 제약이 존재하였고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추가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나 특성, 측정 지표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증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연구에는 기초 연구의 한계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예정임

1.2 향후 연구과제

- 향후 연구에서는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정의, 특성과 측정 지표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재논의와 추가적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성의 이론적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주거 안정성의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구축한 후 통계적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DB 구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Reference

- 김기탁·김재환, 2019, “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변화와 결정 요인 분석”, 취업진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V9,
- 김관용, 2018, “장애인가구 빈곤 진입 분석-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일·김정도·박영환, 2023, “지방자치 단계 출산 양육 인프라 분포의 형평성 측정”, 대한정치학회보, V31.1
- 김나환·이은주·곽수영·박미라, 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 부담감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19.3
- 김경신, 2013, “출산과 가치관, 성, 연령, 결혼 여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18.2
- 김은정, 2022,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김민장·손지연·최현자, 2007, “직업 안정성과 위험 감수 성향에 따른 소비자 포트폴리오 비교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 3. 2
- 김지현·최형준, 2021, “코로나19시기 가족관계만족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남성가사분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v70
- 김필숙·김태현, 2004, “여가 활동 및 여가만족도에 따른 가족관계 적응-30~4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9.3
-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 출산력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김형민·장희순, 2021, “역세권의 주거 선택과 주거이동 특성 분석”,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v19.3
- 권치홍, 2011, “주택정책대상계층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주택지불능력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기철, 2019, “시민 관점에서의 서울시민 복지기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박미선, 2017,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33~4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임지영·김은정·변수정·이소영·장인수·조성호·최산영·이혜정·송지은, 2023,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수정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호·이현정, 2023, “전세 및 월세 신혼부부가구의 지역별 주거수준 비료”, 2023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하반기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 신윤정·이명진·박신아, 2017, “배우자간 사회경제적 격차 변화와 저출산 대응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 양세정·주소현·차경옥·김민정, 2018, “한국형 가계 재무 비율 도출 및 가이드 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v6.3
- 유호실, 2019, “가계 재무 종합 지수(HFCI)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v6.3
- 안종수, 1997. “가족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대학생의 견해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한국관광산업학회, V11
- 이상람·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간의 연관성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이지운·김민정·최현자, 2018, “가계 재무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가계 재무 상태 평가 지표의 활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v11.2
- 이창우, 2012,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변화 특성 분석”, 『부동산학보』, v50
- 이상현·이창한, 2014,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공동주택 주민의 인식과 범죄 두려움의 관계”, 『한국경찰학회보』 v16.5
- 이창효·장성만, 2016, “점유형태 선택과 주거환경 및 주거의식의 관련성 분석-수도권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연구』 v32.2
- 이태철·임소현·장우윤, 2023, “산업유형별 저출산 대응정책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v32.3
- 이재운·서원석, 2022, “대도시권 거주 중장년층의 노후 주거선택요인 분석”, 『부동산학연구』, v25.4

- 이재수·성수연, 2014, “서울 전출입 가구의 주거 이동패턴과 특성 연구-2000~2010”, 국토계획, v49.7
- 임세희·박경하, 2017,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 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한국사회정책, 24(4):31~62, 한국사회정책학회
- 서안나·여창환·김재익, 201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및 지역적 차이 연구”, 주택연구, v24.3
- 서춘희, 201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석호원, 2022, “생애주기별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v31.3
- 정재우·윤성민, 2023, “첫 출산 후 복직한 여성 사무종사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인문사회 21
- 조성호·문승현·김종훈, 2020, “일자리 안정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준, 2020,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한국은행 보고서,
- 최은희·권치홍·임덕영·이슬해, 2018,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 최현자·최은숙, 198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V.4(2)
- 홍윤정·김선화·이영애, 2023,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육아교육연구, No43.3
- 한단비·최지은·김현경, 2023,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 공동 양육수행의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Cater, Betty and Monica McGoldrick. 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2nd)". Allyn and Bacon
- Duvall, E. m. 1967. Family Development. 3ed., NEW YORK, Philadelphia:- 114 J.B. Lippincott Comany.
- Duvall. E. M. 1957.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전재일 외, 1999,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하성규, 2010, 「주택정책론」, 박영사, 증보판4판
한국주거학회 주거학연구회, 2013,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국회예산정책처, 2015,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10, “부동산분야 통계품질 진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2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국제노동연구원(ILO)

네이버 백과사전

법체처, 법률정보시스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